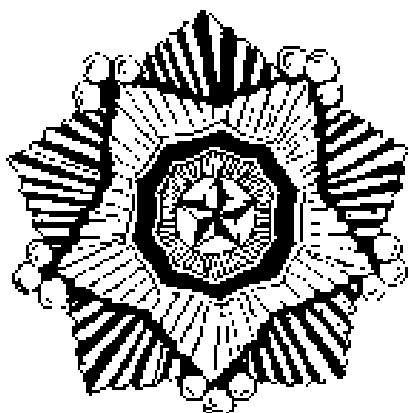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12

주체 91 (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1(2002)년 제12호

(루계 제 662 호)

◆◆◆◆◆◆◆◆◆◆ 차 례 ◆◆◆◆◆◆◆◆◆◆

보내고 싶지 않은 한해.....	4
명언해설	7
개인과 집단, 단결.....	7
선군혁명철학에 대한 문학적탐구.....	7
12 월아!	13
장군님과 어머니.....	13
경암에서의 하루.....	18
처녀의 꿈	28
수령님추억속에(1).....	29
생일상이야기.....	30

시인의 한생에 내려 진 눈송이	31
3 대장군의 군대.....	43
극적정황의 설정과 심리묘사	44
광부들에게 바치는 노래	46
들꽃향기	47
수령님 추억 속에(2).....	58
바다밑에도 땅이 있다.....	59
한해의 무대우에 서정시들을 세워 보며	77
평론의 한해를 바래우며... ..	78
추억에 남을 소설을... ..	79

보내고 싶지 않은 한해

오영재

벗이여 밝은 전등불을 끄고
상우에 초불을 켜자
이 밤을 어찌 잠들수 있을것인가
이제 자정이 되면
주체92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거네

얼마나 좋은가. 이 밤이
어둠이 울바자로 둘러 주었으니
이 세상에는 마치 우리 둘만 있는듯
자기 몸을 태우며 사색을 재촉하는
저 희미한 초불에
우리의 추억도 실어 보지 않겠나

얼마만인가
우리 이런 기회를 마련해 본것도
함께 수도안에 살면서도
그대와 나 일터가 서로 달라
하는 일이 언제나 바빠서
우리 자주 만나지 못했었지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밤
우리 이렇게 만날 기회 서로 마련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쉼 늙었나 보네
지난 날의 추억을 나누고 싶어 졌으니

들리지 않는가
우주가 또 한차례 해를 바꾸며
지구가 돌아 기는 소리를
그것은 세월이 흐르는 소리
두번 다시 이해를 돌려 세울수 없는
석별의 노래

세월이란
바퀴 달린것처럼 후진할수 없고
록음기의 테프처럼 다시 돌려 볼수도 없는것
그저 강물과도 같이 흘러만 가는것

우리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한해 한해를 보내왔던가
철 없던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기쁨이어서
설날이 오기를 손을 꼽아 기다렸건만
언제부터였던가

그것이 아쉬움으로 깃들기 시작한것은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아쉬움만은 아니었지
보다 좋은 래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래서 희미한 초불을 벗 삼아 돌이켜 보는
이 밤의 추억도 즐거운것 아닌가

생각나는가 벗이여
평양을 해방하고 남으로 진격해 가던
1950년 12월의 마지막 그 밤이
우리의 행군대오가
한밤중에 남강원도의 어느 고개우에 올라 섰을
대대장은 우리에게 휴식구령을 내리고
고지우에 대렬을 정렬시켰었지

야광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을 때
대대에 엄숙히 차렷구령을 내리고
그가 하던 말이 기억나겠지
-우리의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올립시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대대 경례!

북두칠성 반짝이는 복녕하늘을 우러러
정중히 경례를 올리는
우리 전사들의 두불을 타고
왜 그리도 뜨거운것이 자꾸만 흘러 내렸던지

슬플 때나 기쁠 때는 눈물이라고
사람들은 말해 왔지만
그 밤에 우리 흘린것은 무엇이었던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친근한분을 그리워 하는
송엄한 그 감정도 눈물이 아닐가
이것은 위대한 아버이를 모신 우리 인민만이 알고
있는
눈물의 새로운 철학이 아니겠나

그때 우리는 애젊은 병사였고
아버이수령님은 40도 안되는 젊으신 년세였는데
세월이란 것처럼 가차없이
너무도 애석하게 수령님을 잃은지도
어느덧 여러해가 되었던말인가

이렇게 망년의 밤을 보내는 이 시각
더욱 간절해 지는 수령님생각
못 잊을 7월의 그날에 목 놓아 울던
그 울음이 이 밤에 다시금 북받쳐 올라
벗이어 그대도 손수건을 눈에서 떼지 못하누나

오직 수령님만 믿고 그리며
나는 의용군으로 총을 메고 북으로 왔고
그대는 행복한 배움의 교정에서
펜을 총으로 바꿔 메고 전선으로 나왔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우로 되었으니
우리 수령님을 그리는 마음
이 밤 따라 어찌 간절하지 않을수 있으랴

전우여 이 뜻 깊은 밤에
아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영원한 태양을 모신
태양조선의 공민된 그 영예 그 영광을 안고
자, 잔을 높이 들자
잔을 높이 드세나

×

하많은 해와 해들을 보내왔건만
이해를 보내는것을 아쉬워 하는
그대의 그 마음이
왜 그리도 내 마음과 꼭 같은지

이해 주체91년이야말로
정이 가고 사랑이 간 해였지
년초에 시작한 한편의 시를
년말에 끝낸듯이
시종 흥분속에 보내온 한해였지

내 조국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한 한해
기쁨과 눈물과 환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나를 격동시킨 한해
눈부시게 펼쳐 저 가는 래일의 모습이
내 나이를 더 젊게 해준 한해

이해의 첫 아침부터
우리 장군님 그토록 심혈을 바쳐 이어가시는
선군의 그 위대함, 막강한 그 생활력이
세계를 진감시킬 때
내 조국 우리 인민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과 긍지로 차넘쳤던가

나는 생각하네
이 세상 가장 사랑스럽고
가정 아름답고 귀중한
그것이 우리 장군님의 선군이라고
오늘의 시대가
그처럼 목 마르게 바라던 정치라고

세계정치가 하나의 산악이라면
선군은 그속에서 캐낸
굳고 빛나는 금강석이 아닐가
그것은 곧 사회주의의 빛
세계평화와 안정의 대명사
행복하고 번영하는 미래에로 행진하는
인류의 지휘봉

혁명애, 조국애, 인민애로 불타는
위대한 심장의 산아
그것은 세계의 정의, 력사의 진리
그것은 동지애이며 그것은 따뜻한 정
그것은 불패의 일심단결
작은것으로부터 큰것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그 모든 귀중한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결정체

시대가 아무리 바라고 바란다 해서
이루어 지는것은 아니지
인간중의 인간이시며
위인중의 위인
영웅중의 영웅이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라면 그 누구도 내놓을수 없
는
혁명의 새로운 원리이며
위대한 실천이 아니겠나

한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훌륭하면
온 마을의 존경속에 더없이 기쁘네
나라의 아버지가 위대해
온 세계가 칭송하고 흠모하고 끝없이 따를 때
우리 인민이 간직하게 되는 그 긍지, 그 영광
무엇에 비길수 있을것인가

하기에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을 위해
수천여리 장정의 길을 가고 가실 때
인민은 얼마나 장군님 그리워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이 가계시는 먼 하늘가를 우러르며
간절히 간절히 아버지의 안녕을 바랐던가

경사에 경사가 이어 지고
승리에 승리가 이어 진 한해
얼마나 화려한 공장들이 세워 지고
국토가 선군시대의 새 모습으로 변하였나

북과 남이 철길을 잇는 착공식의 그날
민족의 환호속에 첫삽을 뜰 때
나는 눈물속에 그려 보았네
찬바람에 몸을 얼구시며
전선길을 가고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을

반세기 지나긴 세월
두렵게 덮인 분렬의 녹을 벗기고
혈맥처럼 철도를 잇는
그 힘은 위대한 선군의 힘이 아니겠나
선군의 뜨거운 심장에서 뿜어 나온
민족애 동포애의 거대한 인력 아니겠나

《조일평양선언》을 받아 안고
세계의 정치기류가
장군님을 중심으로 흘러 간 한
한 외국기자의 말도 신문에서 읽어 보았겠지
얼마나 열화 같은 칭송과 찬탄의 목소리
온 행성이 들썩하게 울리었던가

우리 금강산의 통일행사에 함께 갔을 때
한 남조선인사를 만났던 생각이 나지
그도 말하지 않았나
지금 세계의 신문방송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보도경쟁》 《보도폭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금도 울리고 있는것 같네
아시아경기에 응원단을 싣고
바다의 분계선을 넘어 가던
《만경봉》 호의 목 메인 고동소리
공동응원으로 북과 남이 하나 된 그 모습
어찌 감동없이 볼수 있었던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더 폭 넓게 오가는 동포들의 물결
얼마나 활기에 넘치고 희망에 넘치는
조국통일의 대통로에 나선 기분이었던가

힘겨운 길,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
우리 장군님 선군으로 내 조국을 억세게 다지셨기
에

이제는 두려울것도 없고
이 세상 못해 낼 일도 없네

그렇다네
선군은 통일조국
선군은 민족부흥 강성대국
이처럼 벅찬 시대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 받은 행운아들인가

이런 현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 둘 우리결을 떠나간
옛 화선시절의 전우들이 생각나네
만날 때마다
통일, 통일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전라도출신의 그 전우는
이 세상에 안타까운 눈물만을 남기고 갔는가

민족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 가시는 우리 장군님
한시도 미룰수 없는것이 통일이고
내 조국의 부강번영이기에
비범한 전략을 펼치시고
그 누구도 상상 못한 대응단으로
그 길을 다그쳐 가시었나니

장군님이 한없이 고맙기만 한 한해였지
장군님을 목숨 바쳐 옹위하며
그 뜻을 결사관철해 나갈
끝없는 맹세를 불 태워 온 한해였지
세월은 가도
그 흥분 그 열정 그 희망은
두고 두고 가슴에 남아 있을
아, 보내고 싶지 않네 주체91년이여

×

자정이 되었으니
우리 잠시 귀를 기울이세
들리지 않는가
제야의 종소리가

함께 손을 흔들어 보내주세
잘 가라, 주체91년이여
세월도 헤어졌다 다시 만날수 있는
정든 벗과 갈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이제는 비록 가버린 과거로 되었다 해도

우리 잊지 말자구
가는 해가 우리에게 주었던
온갖 귀중한것 사랑스러운것
정답게 지어 주던 그 웃음과 기쁨
한없이 부풀려 준 이 가슴의 설레임을

주체91년이여 네 걸어 온 그 자욱을
오는 해가 이어 가나니
너의 모습은 가야 할 세월속에 깃들여 있으리
내가 있어 오는 해는 더 큰 자욱을 찍고
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 주리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을
우리 장군님 민족에게 안겨 줄것인가
심장은 높뛰고 가슴은 울렁이네
이제 얼마나 더 큰 경사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것인가

더 많은 일을 하며
더 오래 우리 장군님 잘 모셔 가세
오직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기고 영원한 승리만이 있다는
그 철리를 생활로 터득한 우리 아닌가

다음해는 전승 50돐을 맞는 해
우리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

이날에 우리 전쟁로병들이
무엇으로 우리 장군님께 기쁨 드릴것인가를
조국은 더 커지고 강해 지리
인민은 더 높이 더 빨리 내려쳐 가리
우리의 조국을 **김일성** 조국으로 더욱 높이 펼쳐 가
시는
장군님 모신 영광과 행복에 넘쳐
자, 잔을 높이 들자
잔을 높이 드세나

추억도 좋지만 래일이 더 좋아
이제는 초불을 끄고
환하게 새날을 밝히세
우리 전화의 날 불 타는 고지우에서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북녘하늘 우리러
축원의 경례를 올렸던
그날의 그 자세, 병사의 자세로
이 잔에 담아
위대한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
새해의 경례를 올리세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우리 조국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위해
부디 건강하시기를
인민은 삼가 축원합니다!

명언해설

《예술적일반화의 힘은 백을 가지고 백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백을 헤아리게 하는데 있다.》

김정일

세계성구속담

개인과 집단, 단결

누에고치실 한오리로는 실이 안된다. (중국)
못사람의 혀는 힘이 있고 군중의 눈을 흰 눈처럼
밝다. (몽골)
산은 합치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합친다. (도
이칠란드)
삭은 이 한대가 입을 역하게 만든다. (까메룬)

집단을 떠난 사람은 눈을 잃은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알바니아)
큰 바다는 마르는 일 없고 인민을 길을 잃는법
없다. (로씨야)
한마음으로 단결하면 승리는 손안에 든것 (모잠
비끄)

선군혁명철학에 대한 문학적탐구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에 대하여-

박춘택

우리 조국의 력사와 인민의 운명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고난의 행군》. 가장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친 이 력사적인 행군의 승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것인가.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송상원작)는 이에 대한 감명깊은 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작품은 새로운 선군정치방식의 창조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의 승리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지는 총서형식으로서의 사상에술적품격을 파시하였다.

총대우에 존엄 있는 삶이 있고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 소설은 선군정치를 정면에서 형상한것으로 하여 시대적 및 주제적의의가 매우 크다.

1. 선군령장의 위대한 성격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가 거둔 사상에술적성파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혁명철학인 총대중시사상. 선군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선군혁명의 새 시대를 장엄히 펼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 깊게 형상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해쳐 온 《고난의 행군》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력사에서나 인류사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최악의 시련이였다. 세계적판도에서 일부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 수백년 이래 처음 보는 자연재해...

한 국가, 한 민족이 완전히 피멸해 버릴수 있는 이런 최악의 형편에서 우리가 피할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였던 조국수호전은 참으로 준엄하였다.

소설의 첫 머리에 형상된바와 같이 미중앙정보국의 어느 한 극비자료는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특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후 우리 나라의 이른바 《정세》를 분석하면서 우리 나라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 미행정부의 대북조선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전력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붕괴》를 가속화할것을 지령했었다. 미중앙정보국의 문건은 우리의 《붕괴》를 2~3년내의 일로 확고히 여기였었다.

소설은 악조건으로 충만된 이런 력사적환경을 진

실하게 펼쳐 보이면서 준엄한 난국을 과감히 헤가르고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고 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 벌어진 이 엄혹한 정황속에서 조선혁명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수 있겠는가.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 운명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는 새로운 정치방식을 요구하였다.

소설에 형성된바와 같이 조국과 민족의 생사존망을 걸고 나아가서 인류의 자주와 평화를 지켜 세계제국주의와 단독으로 맞서 최후의 결판을 보아야 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대로 난국을 헤쳐 나갈 단호한 결심을 하시고 혁명의 총대를 틀어 쥐신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첫해, 첫 아침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신 그 길로 찾으신 다박술초소.

소설은 세계가 조선이 장차 어느 길로 나가며 어떤 정치를 열것이기를 주시하던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신 이 사연 깊은 초소에서 선군정치의 전면적인 력사가 시작되었음을 형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소설에서 선군정치를 필승의 전략,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 쥐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은 그이의 특출하고 원대한 철학세계에 대한 심오한 묘사로 감동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인류정치사를 분석하시면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총대정치의 새로운 본질을 천명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국가정치를 실현하는 힘은 본질에서 군사이고 군사의 뒤받침이 없는 정권은 바람앞에 선 초불이나 같다는 철의 진리를 밝히면서 이전 소련의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경험과 교훈을 명철하게 분석하시는 그이의 말씀...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구절구절마다 담겨 진 심오한 철학사상과 비범한 철학적예지가 진실한 생활적형상속에서 부각되고 있다.

소설은 특출한 철학적예지로 빛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 활동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로 그이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무게 있게 밝혀 내고 있다.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적들과의 의지의 대결로 보시고 의지가 있으면 살고 승리할수 있지만 의지가 없으면 죽고 패망할수 있다고 하면서 의지의 강자가 되자고 결심하시는 장군님의 심리세계, 해

군대와 김동환의 자료를 보시고 단련이 부족하고 우리의 혁명력사를 잘 모르는 새 세대의 교양문제에 대하여 하시는 그이의 사색...

소설에서는 그 생활이 체현되고 있는 심오한 의미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지니고 계시는 비범한 품모를 손색없이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이 지성을 깨우치고 그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는것이다.

소설은 우리 시대의 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과정을 감명 깊게 형상함으로써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로부터 선군정치를 하시고 그 정신의 창조로부터 선군시대를 장엄히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 있다.

소설에 형상된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책임진 심철범장령에게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난국을 해치고 우리를 《봉피》시키려는 적들의 망상을 짓부셔 버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최단기간내에, 적어도 1년내에 100리 물길굴을 완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것이라고 하시며 그 시대정신을 혁명의 기둥인 우리 군인들이 창조해야 하고 군인들이 창조한 그 정신으로 온 사회를 무장시키고 들끓게 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뜻 깊은 가르치심을 주신다.

소설은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의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고 건설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발전소건설을 1년안으로 끝낸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건설을 책임진 심철범도 다른 지휘관들도 불가능한것으로 인정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건설의 실패를 료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강군의 위력을 발휘할때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발전소건설장을 적들과의 의지의 대결장으로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기서 조선의 의지, 조선의 정신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군인들을 사상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키우신다. 여기서 공사장의 어려움을 두고 동요하는 단련이 부족한 신입병사 김남철을 집부실로 부르시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실정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서 그를 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도록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결심한 발전소건

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할수 없다고 하시며 큰 물피해를 입고 적들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형편에서도 건설을 계속 내밀도록 하시고 100리 물길굴을 뚫으면서 19강의 봉락구간 돌과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직선돌파를 지지하면서 직선돌파정신이 우리 군대의 기본정신으로 되여야 한다는 가르치심도 주신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봉락에 묻혔을 때에는 직접 구출방도를 찾아 주시고 유독성가스가 나올 때에는 방독면을 보내주시며 희귀한 남방과일을 보내주시는 등 천어버이사랑을 부어 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건설의 방대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값높이 평가하시면서 군인들이 벽에 새겨 높은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구호는 우리 군대의 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며 우리가 바라는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신다.

소설은 변심을 모르는 일당백영웅전사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이라는것을 보여 주면서 그것이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려고 《봉쇄》의 올가미를 조이고 있는 원수들과의 포성 없는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지 오게 한 요인으로 되었음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은 위대한 시대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은 인민군대의 고유한 투쟁정신이기전에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으며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품모의 빛나는 구현임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소설에서 인민군대를 틀어 쥐고 선군정치를 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품모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통하여 폭 넓게 형상되고 있다.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위대성을 어느 한 측면에서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보여 주며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풍부한 생활적사실들을 통하여 감동 깊게 형상하는것은 선군시대 수령형상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풍부한 생활속에서 다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위인의 비범한 품모는 인간관계속에서 나타나며 위인의 숭고한 생활도 인간관계속에서 펼쳐 진다.

소설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등장인물의 관계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생활적으로 구체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등장인물들이 형상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다양화, 적극화되고 있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비범한 담력 등 위인의 탁월한 품모를 깊이 체험하는 심철범장령,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 료리철학을 부각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류송

직, 전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을 보여 주는 신입대원 김남철, 선군정치의 진리성과 독창성을 확인하는 전 쏜련국방상 야조브 등 다양한 인물들이 설정되어 있다. 이 인물들은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되고 그이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서 뚜렷한 형상적몹을 안고 있다.

인물들은 그이의 위인적품모의 적극적인 체현자로 되고 있다. 야조브의 형상만 살펴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야조브는 순간의 휴식도 없이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의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에 탄복하며 선대수령과 후계자사이의 국가관직에 대한 교대 하나를 두고도 그토록 깊이 생각하시는 그 위인적 모습을 뵈옵고는 적앞에 무자비하고 강인담대한령장이기전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숭고하며 특출한 덕과 인간애를 지닌 위대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의 심장에 새기는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새로운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고 있다는 그이의 말씀에 접하는 순간 장군님께서 덕과 함께 사회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보검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이처럼 소설에서 야조브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위대성, 그이의 위대한 인간적품모의 적극적인 체현자로 되고 있으며 그이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를 새롭게 알고 자기 활동의 방향각을 세우며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체득해 나간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는 인물을 순수 실무적인 전달자의 관계에서 설정되지 않고 운명적으로 련결되어 있으면서 개성적으로, 독자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며 그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인간들로 설정되고 있다.

김남철전사의 형상은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처음에는 부닥치는 난관앞에 동요도 하고 《위훈》을 세울수 있는 그 어떤 《빛이 나는》 부대로 옮겨 볼 생각을 하던 그가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 그이의 사상과 감정, 담력과 의지를 닮아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감동 깊은 형상을 인간관계설정에서 작가가 기울인 탐구의 결과로 얻어 진것이다.

소설에서 선군정치와 위대성형상에서 이룩된 성과는 또한 구성의 립체성을 보장한데서 찾아야 할것이다.

소설에서 기본형상선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기본령도선으로 되고 있다. 여기서 선군시대의 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부각되고 있다.

작가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대한 정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선군정치를 펴시고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필승강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생활들을 유기적으로 맞물려 보여줌으

로써 선군령장이신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형상하였다.

2. 위대한 인간세계, 인간생활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세계,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린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 주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그이와 인간세계, 인간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소설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최고사령관과 병사의 동지관계, 전우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혈육관계로 더 깊어 지고 더 뜨거워 진 선군시대 선군동지애의 특별한 세계를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통하여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다.

소설에 그려 진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발전소건설이 완공되었을때에는 그들모두를 《개선팔군》이 되여 평양에 《입성》하도록 하시고 친아버비심정으로 생활을 보살펴 주신다.

남철전사와 만나신 장군님께서서는 적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아버지의 최후에 대하여 슬픈 어조로 매우 세세히 말씀하시며 못내 가슴아파 하신다,

《나는 군인건설자들을 평양에서 맞이하고 보니 희생된 경비함영웅들 생각이 더 납니다. 단 한명이 라도 살아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당이, 전체 인민이 그들을 안아 줄것입니다. 나는 오전에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희생된 전사들모두의 영웅적 행동을 높이 평가하시고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로 내세워 주신다.

걱정에 목이 메여 흐느끼는 남철을 보시며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자신께서 남철의 친아버지가 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최고사령관과 병사의 군직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혈육관계로 전환된 선군동지애의 감명깊은 세계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화폭이다.

소설은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면서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부세계를 깊이 펼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마음고생을 많이 겪으신분이시다 소설에서는 그이와 그 깊은 심리세계를 생동하게 펼쳐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서 형상된것처럼 그이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통강냉이에 소금국을 먹고 있는 우리 인민의 처지를 아시였으며 배 고프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어린이들이 어리둥절해서 허리띠를 조이는 모양도 눈앞에 그려 보시였으며 기차가 멎은 철길우

로 여행자들이 줄을 지어 걸어 다니는것도 잘 알고 계시었다. 그래도 그들은 아버지나 남편이라는 작은 하늘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희생된 군인들의 가족들은? 하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는것이다.

소설에서는 희생된 전사들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체험세계를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물론 당과 사회주의국가가 그들의 큰 하늘이 될것이다. 그들의 운명과 생활을 국가의 법과 사회적혜택으로 지켜 주고 보살펴 줄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없는 설움, 남편 없는 불행, 자식 잃은 부모들의 슬픔은 무엇으로 메꾸어 준단 말인가!

소설은 경비함선원들이 적구에 떨어 진 사실과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의 대붕락 그리고 자폭과 육탄으로 당의 호소를 받들어 나가는 유명무명의 전사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그이와 내면세계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있다.

소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심리묘사는 100리 물길굴에 들어 서신 장면에서 더욱 감명 깊게 펼쳐지고 있다.

물길굴에 들어 서시여 그이께서는 생각하신다. 여기서 10년간 일했을 전사들의 모습을 그려 보시는 장군님의 내면심리.

석수에 떠내려 오는 나무토막도 콩크리트벽의 끄슬린 자리도 빠죽이 나온 철근에 걸려 있는 형겼조각도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편관시켜 생각하신다. 여기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언 몸을 녹였을가? 저 떠내려 오는 절두목은 무엇을 자른 나머지일까? 저 형겼은 붕락에 깔려 희생된 병사의 군복자락은 아닌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여기서 숨털이 보시시켰던 어린 전사의 턱에 검실검실 턱수염이 자랐을것이고 그들의 청춘시절이 흘러 갔을것이 아닌가.

오른쪽 벽에 새긴 《결사옹위!》라는 구호와 《결사관철!》이라고 쓴 구호를 보시고는 저 구호를 새긴 군인들앞에 고난과 역경, 무시로 생명을 위협하는 시련의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 주는 이 내면심리묘사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세계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확인으로 된다.

소설의 심리묘사에서 특징적인것은 내면심리세계를 투시한다고 하면서 미문장으로 분식하거나 멋을 부리지 않고 소박한 필체로 심리적내용의 기본핵을 명백히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어디까지나 이 작가의 묘사는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명백한것이다. 그러면서도 장군님의 심리세계가 깊이 있게 안겨 오는것이 인상적이다.

그 요인을 심리묘사에서 생활세부를 잘 선택하여 내면심리의 본질을 생동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세계는 생활세부를 통해서만 표현되기때문이다.

이전 조선국방상이었던 야조브를 데리고 100리 물길굴공사장을 돌아 본 심철범이 현지에서 보낸 서면보고를 보시고 체험하시는 장군님의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 다박술초소를 돌아 보시고 오시던 길에 해군사령부소속 한 부대에 들리시여 그들이 부르는 자작노래에 감동되시는 그이의 심리적체험세계에 대한 묘사...

작품에서는 이처럼 그이께서 지니신 고유한 사상 감정과 심리를 보여 줄수 있는 생활세부를 통하여 장군님의 심리세계를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3.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선군시대 인간전형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문학적가치를 가지는 작품으로 되고 있다.

새 시대의 문학은 새형의 인간전형창조를 요구한다.

소설은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선군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올라야 할 사상정신세계와 인간의 성격적미를 보여 주었다. 여기에 또한 이 작품이 가지는 감화력과 견인력이 있다.

소설에 형성된것처럼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은 말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피어린 투쟁이었다.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건설하는것으로 하여 난관과 시련은 더 엄혹한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에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을 관철하기 위하여 말그대로 인민군장병들은 육탄이 되었으며 억척의 신념을 안고 횡포한 자연과 맞서 결사전을 벌려 나갔다.

소설에 형성된바와 같이 군인건설자들은 분당수 십톤의 압력으로 쏟아 지는 차디찬 석수를 한가슴으로 밀막으며 착암전투를 벌렸고 하루에도 몇번씩 무너앉는 붕락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가는 열번, 백번 다시 일어나 수십립방메터의 버력들을 밖으로 끌어 내면서 굴뚝기를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은 동지를 위해 무너지는 암반밑에 자기 한몸을 그대로 《동발목》으로 세워 놓군 했으며 장군님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으로 가슴 불 태우며 필요하다면 한몸 그대로 《뢰관》이 되고 《폭약》이 되어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치고나 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것이였다.

발전소건설장은 말그대로 의지의 시험장이였고 이 공사는 적들과의 의지의 대결전이었다. 군인들은 여기서 최대의 의지력을 발휘하였다.

소설에서 감동 깊게 그려 진 100리 물길굴을 뚫

는 최후의 돌격전투, 최후의 관통전투에서 발휘한 군인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준다.

참으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의 승리는 군인들의 의지의 힘의 승리였다. 그들의 이런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속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것이다.

소설에서 우리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인간의 미, 인간의 숭고한 성격적특징을 보게 된다.

어느 순간에 쏟아져 내려 깔리우게 될지 모르는 봉락구간에 서슴없이 뛰어 드는 군인들.

자기의 더운 피와 목숨을 바쳐 숨이 지는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하고 대오를 이끈 지휘관들.

수십미터두께의 굴천정이 삽시에 무너져 앉는 위기일발의 순간 번개같이 몸을 날려 동지를 살려 내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어도 전우들의 손에 《완공》이라고 쓰며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드려 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은 나이런 전사!

앞을 볼수 없는 몸으로 200여일간 막장을 뜨지 않고 초인간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줄곧 광차를 민 불사신의 전투원.

위훈을 세우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땀에 질은 입당청원서를 가슴속에만 소중히 품어 온 전사...

소설이 감동 깊게 펼쳐 보인 이 군인들의 형상은 죽음을 각오하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펼쳐 나 선군정치를 받드는 전사들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 준 선군시대의 참된 영웅의 성격이었다.

소설에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중심으로 받들어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경비함 《101》호 성원들의 영웅적투쟁을 통해서도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사나운 풍랑속에 표류하던 경비함이 간신히 룡지에 상륙한 그 지점은 적구였다. 해상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비함 《101》호가 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었을 때 성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들의 도발을 짓부시며 결사전을 벌린다. 그들은 최후의 순간에 자폭영웅, 육탄영웅으로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기개를 과시한다.

장편소설에 형상된 인민군군인들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모든 군인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전형화된것이다.

소설은 무엇이 평범한 군인에 불과하였던 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영웅적성격의 소유자로 자라나게 하였는가 하는 여기에 예술적담구를 심화시켰다.

《건설전쟁》이라는 비상한 전투적환경인가? 아니면 성격속에 내재하고 있던 영웅적기질의 발현인가?

소설은 장령 심철범, 전호진, 전사 김남철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이에 대관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작품에 형상된바와 같이 그들은 타고 난 영웅들도 아니며 그 어디서나 흔히 만날수 있는 평범한

군인들이다.

물론 발전소건설을 제기한내에 완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려는 각오들은 높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결함도 있으며 영웅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김남철전사만 보아도 알수 있다. 처음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건설에 동원되었는데 점차 일이 힘들게 되자 동요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것을 생각한다. 중학교시절에 한 책상에서 공부하던 딱친구가 민경이 되었는데 얼마전에는 침입하는 간첩일당을 잡고 영웅이 되어 모교에 돌아와서 상봉모임을 하였다는 소식까지 받은 남철은 더욱 《위훈》을 세울수 있는 《빛이 나는》 부대에 갈것을 꿈 꾀다. 그는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자기의 포부를 실현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에는 집에 와서 해군군관으로 일하는 아버지에게 자기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부탁한다. 그에게는 신념과 의지가 약하였다.

이런 실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군인들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인간이기때문에 힘들어 하고 동요도 할것이라고 하시며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인들을 의지의 강자로 키워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서운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사를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동환의 자료를 보시고 새 세대의 교양문제를 깊이 생각하시였고 단련이 부족하고 우리의 혁명력사를 잘 모르는 그들속에서 오늘의 고난에 겁을 먹고 나약해 지는 현상이 앞으로 더 나타날수 있다고 보시면서 새 세대에 대한 교양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남철이와 자리를 같이하시고 일이 무척 힘들것이라고, 나라가 처한 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이 난국을 신념과 의지로 뚫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이 한량 없는 사랑과 믿음은 남철이를 선군시대 참된 인간으로 성장시킨 자양분이 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있어 그는 발전소건설이 모래운반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되며 100리물길굴을 뚫는 최후의 돌격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는것이다. 이 믿음과 사랑이 그를 선군시대영웅으로 키운것이다.

이렇듯 장편소설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하면서 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운것은 바로 선군정치를 펴시고 모든 군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있었다는 생활의 진리를 심오하게 천명하고있다.

작가는 군인들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하면서 선군시대의 진실한 전형으로서의 감화력을 가지도록 개성화하고 있다.

인물들의 개성화에서 작가는 기질적인 측면을 잘

탐구하여 성격적특질을 굴절시키는 수법을 능숙하게 쓰고 있으며 특히는 대조의 수법으로 개성이 강한 인물들의 특질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있다.

심철범과 전호진의 성격적대조는 그 실례로 된다.

소설에서는 작가의 설명으로써가 아니라 이 인물들의 성격을 뚜렷이 대조시킬수 있는 정황들을 탐구하고 생활장면에 대한 구체적이며 극적인 묘사로

인물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안겨 오게 형상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총대철학을 감명 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선군시대 소설문학의 화원에 아름다운 꽃으로 독특한 향기와 색깔을 가지고 피어 있을것이다.

12월아!

박현철

해마다 맞이하며
해마다 12월의 노래를부르건만
해마다 더 좋은 노래를 드리고 싶어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는 다시 쓰며
밤 새워 시어를 고르고 고르나니

그러나 아름다운 시어를 고른다고
인민이 축복 받은 우리의 12월을
어찌 한두절의 노래나
한두마디 이야기로 다 할수 있으랴

물어 보자
허리띠를 두겹세겹 조여 매던
고난과 시련의 그 나날들에
누가 나를 지켜 주고 이끌어 주었던가
누가 나를 오늘에로 떠밀어 주었던가
그때는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
나도 일어 서고 인민이 일어 서고
내 조국이 굳세게 일어 섰나니

오!
그 기적과
번혁의 주인은
12월이 반들어 울린 우리의 최고사령관
나의 운명 내 조국의 운명을
달리는 누구에게 맡길수 없어!
인민이 심장으로 높이 받든 위대한 **김정일**동지

말로나
글로는 다 쓰지 못할
겹쌓이던 그 모진 난관을 이겨 내자고
우리는 그이를 벌써 11년전 그날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던가
조국이 힘겨웁던 그 나날 창공높이 나뭇겨
밝은 빛 되어 주고
뜨거운 열 되어 주고
불굴의 힘 되어 준 최고사령관 기발이여

그 기폭은 12월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12월은 역경으로 흐르던 세월을 이끌어
떠도는 검은 구름 가시여 내며
끝끝내
강성대국 봄노을 머리우에 펼쳤어라

그 나날에
누구도 나의 삶을 지켜 줄수 없었다
그 누구도 인민을 책임질수 없었다
세상에 오직 한분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밖에는

지나온 11년이 나에게 가르쳐 준
이 진리
이 신념
해마다 뜻 깊은 12월의 언덕에 서면
내 다시금 가슴속깊이에 새겨 넣나니

12월아!
내 무슨 말을 더 고르랴
행복했던 날보다 시련의 나날에
더 잘 알게 된 우리의 최고사령관
이제와 오늘만 아닌 먼 태일의 나의 삶까지
그이의 선군총대가 담보하기에
너는 내 한생의 바라던 행복과 념원이 다 있는
오, 12월, 영원한 우리의 세월이여!

장군님과 어머니

전승일

백발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우—우 날뛰는
눈보라의 표호속에,
하늘땅 만물이
쨍—쨍 얼어 터지는
북방의 사나운 12월

북변에서도 천리 한끝
이 엄동의 광란속에 몸을 맡긴
12월의 오산덕이다만
나는 지금
눈 부신 봄언덕에
건듯 올라 선것만 같구나

태질하는 눈보라를
한껏 밀어 던지며
광막한 누리가 온통
빨찌산어머님
해빛 같은 미소로
그득히 차고 넘쳤으니
너는 나의 마음속에
차디찬 겨울이 없는
봄의 오산덕

어머님이시여
이 사나운 계절에도 지지 않는
봄의 진달래를 안으시고
별 같은 안광에
무엇을 가득가득 담아 보시기에
그리도 봄날 같은 미소를
오산덕 하늘 가득
창창히 뿌려 주시는것이옵니까

백살구향기 짙은
여기 덕우에 오르신 아침부터
드넓은 이 세상을
다 굽어 보며 서계신 우리 어머니
추억의 백두산도
발돋움해 보시고
이 강산을 뒤덮은
붉은기의 바다도 굽어 보시며
밤이나 낮이나 지우실줄 모르는
어머님의 미소 그 한끝에
내 마음은 훨훨 날으는 기러기가 되어

뜨거운 서정의 나래를 저어 가노라

X

봄날처럼 웃고 계시는
어머님을 노래하자 하니
이 마음에 먼저 젖어 오는것은
오늘까지도 여기 회령땅으로 오시지 못한
우리 장군님 모습이구나

아아
장군님과 어머니
어머님과 장군님
정녕 장군님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계신 나날
그렇듯 짧은분은 없으리
허나 우리 장군님처럼
또 어머니를 심장속에 길이 모시고
영원토록 살아 가시는분도
이 세상엔 없으리

눈물겨웁도록
열화 같은 효성으로
심장을 꿰이시는분
우리 장군님마음속에는
백년세월도 다치지 못하는
봄날의 젊디젊으신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곱게 웃고 계신다

하건만
수천만 발길에 다 다스려진
어머님의 고향집
작은 토방들에는
애 타게 기다리는 단 한분
장군님의 자옥만이
오늘까지 짙혀 지지 않았구나

무산의 거치른 철산봉에도
불이 서린 관문점
심장이 졸아 드는 그 땅우에도
격랑치는 날바다
갈기 쳐든 그 파도우에도
불멸의 인장인양
꼭꼭 짙혀 있는
장군님의 자옥자옥

때로는 진창에 젖어 들고
 때로는 솟눈에 열이 들면서
 병사들이 있는 곳
 인민들이 사는 곳이면
 하늘끝까지라도 찾아 가시는
 장군님의 자욱자욱이
 어이하여
 아, 어이하여
 어머니의 고향집 토방돌우에만은
 단 한번 짝혀 지지 못했더라 말인가

장군님도
 보통인간으로 태어나시었다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잠을 깨는
 평범한 아들로 태어나시었다면
 어머니 제신 회령땅으로
 열백번도 달려, 오셨으리

달려 와
 쌓이고 쌓인 마음속 이야기
 그 만단사연을
 어머니앞에 풀어 헤치고
 감회속에 낮과 밤을 보내시리라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삼가 장군님의 두손을 잡아 보노라
 오늘까지도 먼먼 래일까지도
 장군님의 두손은
 어머니 힘겹게 부여잡으시던
 수십년전 9월의 그 체온으로
 뜨겁게 달아 있거니

-아버님을 잘 받들어 모셔라
 아버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해 나가야 한다
 어리신 장군님의 심장은
 그날에 벌써
 어머니의 열도로 고동치셨다
 어머니의 깨끗하고 열렬한 붉은 피가
 그날에 벌써
 장군님의것으로 굵이쳐 끓었고
 그날에 마주 잡으신 어머니의 두손이
 일생의 가장 억센 신념이 되어
 오늘까지 단 하루도
 놓아 보신적이 없었다 .

언제인가
 꽃 피는 그 봄날은

어리신 장군님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모란봉 어머니묘소에
 진달래를 심으시던 그날은
 —오빠야,
 이 꽃 심으면 엄마가 오나?

생전에 그리도 어머니 사랑하신
 붉은 진달래
 그 꽃을 그러안고 울먹이는
 아 동생의 가슴 터치는 이 물음에
 마디마디 눈물에 젖어 속삭이시던
 장군님의 맹세를
 력사여 그 누가 들었던가
 —그래 엄마가 오지
 엄마는 영원히
 나의 심장에서 헤여지지 않아

나는 다 모른다 우리 장군님
 인민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북변천리 밤을 지새며 가시는 길에
 내 지금 울며 서있는
 그리움의 고향
 이 회령땅을 지나신적은
 그 몇번이나 되던지

허나 내 오늘 다 말하고 싶구나
 흰 눈 쓴 뽀뿌라우듬지 보이는
 지척의 어머니고향집을 보시면서도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그리도 결연히
 멈추지 말라 하시였는가를

움켜 쥐신 회령쪽 차창의 창가림이
 얼마나 오래도록 내리워 지지 못했는지
 정겨운 어머니의 눈동자 같은
 회령의 밤별들을 바라보시며
 그리움의 걱정을 참지 못하시면서도
 어이 하여 다시금
 속도를 높이 라 하시였는지를

만민의 눈물 젖은 심장들이
 잠시라도 들렸다 가시라
 그리도 애타게 소원한
 바로 그 순간에도
 장군님은 어머니과
 뜨거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어머니 내가 멈춰 서면

수령님의 위엄이 멈춰 서고
어머님의 당부가 멈춰 섭니다

오, 사무치게 그리운 회령땅으로
뜨거이 마음속 인사를 올리시며
이렇게 다시 또다시 떠나가신
우리 장군님의 장장 행군은
동서 천리
남북 만리를 누볐다
선군의 퇴성을 부르며
온 지구를 휘감아 나갔다

했어도 나는 지금
이 오산덕에 서시여
낮이나 밤이나
어머님 발돋움해 바라보시는
장군님 모습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아뢰이노라
천만군 무거운 려장을
잠시라도 풀어 놓으시고
한번만이라도 부디
어머님곁으로 와주셨으면...

우리의 눈물겨운 소원이
하늘땅에 사무친 회령땅
인민이여 우리 알았던가
운명의철령으로
조선의 생나가 실린
야전차를 몰아 가시면서도
그 준엄한 차안에서는
절절한 《사향가》의 선물이
고요히 울리고 있었다는것을

7월의 피눈물이
삼천리 산하에
바다처럼 차넘칠적에
억만갈래 심장이 터져 오시는
장군님마음속으로
제일 먼저 찾아 오신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시였다

태고의 눈이 덮인
백두산뜨락우에
첫 걸음마 떼실적에
옹지 옹지 장하다
백두산을 주름 잡는
아버님의 큰 걸음처럼
어서 커서 빨리 커서
조국을 이끌고 달려 나가거라
두팔벌려 축복해 주시던 그 손길로

오 비통한 장군님의 심장을
뜨겁게 쏘아 안아 주신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시였다

산악 같은 슬픔을 눌러 디디시며
우리 장군님 파악—
총대를 틀어 잡으실 때
백두의 폭풍을 휘몰아 쳐오시는
어머님의 엄숙한 말씀이
장군님심장을 흔들었거니

—장군이여
수령님 한생이 어린 조국이
장군을 지켜 본다
수령님께서 넘겨 주시고
내 한생 손에서 놓지 않은
목숨 같은 총대로
이 난국을 헤쳐 일어 서라!

아아, 밤이나 낮이나 때없이
장군님의 마음속 창문을 여시여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어머님
우리 어머님께서 오늘은
여기 오산덕 만리 하늘가에
고운 무지개웃음을
연연히 띄워 울리고 계시는구나

차랑차랑 샘물처럼 고여 오르신
어머님의 이 행복한 미소가
나에게는 생각되는구나
어쩌면 못 잊을 8월의 그 아침에서부터
곱게 비껴 흐른것이라고
80고령의 우리 수령님
어머님을 찾아
천리 먼 여기 회령땅으로 오셨던
그 행복한 아침에서부터 피여 난것이라고

—정숙동무, 기뻐 하오
이제 우리 젊은 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려고 하오
이젠 백두의 혈맥이
만대로 이어 지게 됐소

아 어머님 바라시던 념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던가
오늘을 위해
수령님께 한생을 다 바치셨고
어리신 아드님앞에
절절히 부탁하신 마지막당부도
바로 오늘을 바라심이 아니었던가

혈전만리 헤쳐 온
수령님의 위업이
새 세기 만년세월로 창창히 이어 지기에
무적의 총대로 조국을 이끌고
승리의 세월을 파도쳐 갈
우리 장군을 세상우에 받들어 올렸기에
어쩌면 어머니의 행복한 눈물이
오산덕 대돌을 다 적신것만 같구나
어머님은 정녕 행복하시다

일망무제 펼쳐 진
동해의 소금밭을 찾으시고
소리치며 천년잠을 깨는
드넓은 옥야천리 걸으실 때에도
장군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머님께서 계셨거니
어머님의 념원이
무지개처럼 꽃 퍼나는
이 세월의 설계도를
어머님귀가에 속삭이시며
어머님의 두손을 잡으시고
장군님은 오늘도 매일도
새 세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1년전 7월의 그날
추억의 두만강을 건느실 때에도
굽이 쳐 흐르는 푸르른 물결이
온통 어머니모습으로 마쳐 와
사무치는 격정에 목 메이시던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던가

저기바루에
어머님 울며 건느시던
망양나루가 있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장군님심중엔
아마도 불이 났었으리

조국을 이끌고
세계의 한복판으로
그날의 두만강을 건느시는
장군님 심중엔
그리운 어머니를 마음속에 부르시며
불의 맹세가 났었으리
거창한 산악이 일어 섰으리

오 전선 천리 굽이굽이
공장을 찾아 농장을 찾아
현신의 만리 또 만리

쉬임없이 달리시는 장군님의 야전차여
백년세월을 꿰질러 폭풍쳐 가는
장군님의 세월이어

이 행성을 두드리며 흘러 가는
격변의 세월속에는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 장군님과 함께
사랑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조국의 만대 철리를 주시는
위대한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님께서 나란히 함께 가신다

아 아
장군님과 어머니
어머님과 장군님

정녕 우리 장군님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와
짧게 사신분은 없으리
하나 우리 장군님처럼
또 어머니를 심장속에 길이 모시고
영원토록 살아 가시는분도
이 세상에 더는 없으리

×

힘차다는 불변의 세월이
추억을 싣고 간다 하라
그리고 그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이
그리움도 함께 싣고 간다 하라
하나 천년만년 세월의 공간도
장군님심장속에 실아 계시는
봄날의 젊으신 어머니머리우에
단 한오리 백발도 없지 못하리
어머님의 고운 미소 단 한줄기도
너는 지우지 못하리

오 12월의 오산덕이다만
그리고 봄날같이 따스한
어머님의 오산덕이어
이 땅 이 하늘가에
그리도 창창히
장군님의 세월을 축복해 주시는
어머님의 미소를 온몸에 함뱍 받으며

나는 그리움의 오산덕
뜨거움의 오산덕을
생각깊이 내리노라

경암에서의 하루

리영환

1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큰별, 애기별 가득한 별바다기슭에 하얀 쪽배처럼 반달이 솟아 오르더니 숨박꼭질이라도 하듯 별들사이를 헤엄쳐간다.

교묘한 달빛이 흘러 내리는 들길로 화물자동차 한대가 달려 갔다.

자동차의 적재함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사색에 잠겨 앉아 계시었다. 그이의 곁에는 흰 저고리를 입은 작달막한 처녀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좀 떨어 저 앉은 키가 늘씬한 경위대원은 차가 들출 때마다 머리를 앞으로 수그리곤 했다.

바다에서 불어 오는 싱그러운 바람결에 베풀기들이 설레이며 가만가만 이삭들을 비벼 댄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을의 훈향을 들이키시며 실내등 불빛에 드러난 처녀의 얼굴을 띄어 보시었다. 곱게 휘여 든 눈썹과 오목 패인 보조개로 하여 복스럽게 안겨 왔지만 어딘가 병색이 짙어 보인다. 처녀를 일별하시자 문득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도자기공장에 나가시어 로동자들을 만나보고 숙소로 돌아 오시던 녀사께서는 개울가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빨래함지를 곁에 놓고 수심에 잠겨 앉아 있는 한 처녀를 보셨기때문이다. 처녀는 빨래가 떠내려 가는것도 모르고 하염없이 물속만 들여다 본다.

《저런… 빨래가 떠내려 가는구만요.》

녀사께서는 제잡담 물속에 들어 서시어 빨래를 건지시었다. 그제서야 그이를 발견한 처녀는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 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이께서는 웅색스러워 하는 처녀의 마음을 풀어 주려고 밝은 웃음을 지으시었다.

《이 마을에 살아요?》

처녀는 왜서인지 대답을 피하였다.

녀사께서는 처녀에게 무슨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는것을 알아 차리시었다.

《난 평양에서 왔는데 저 둔덕우에 있는 2층집에 있었어요. 알고 지내자요.》

그이의 말씀을 듣고 처녀는 자못 놀라와 하며 인사를 드리었다.

《어쩌면… 녀사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알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녀사께서는 처녀의 손을 잡아 주시며 다정히 말

씀하셨다.

《빨래감이 많군요. 우리 같이 빨래를 하자요.》

그이께서는 팔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빨래감을 물에 담그시었다. 처녀는 씨원씨원하게 비누칠을 하는 그이의 솜씨에 탄복을 하며 아미를 숙였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처녀는 기여 들어 가는 소리로 대답 올렸다.

《조복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좋군요.》

녀사께서는 옷가지를 물에 행구며 물으시었다.

《얼굴색이 좋질 않아요. 어디 아픈가요?》

밝아 질사 하던 복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 졌다.

그이께서는 아픈데를 다치는듯 싶어 더 묻지 않으시었다. 썩—썩— 빨래를 비비는 소리만이 강변의 고요를 깨뜨렸다. 한동안 지나 복실은 녀사께 두서없이 가슴속에 쌓인 설문을 말씀 드렸다.

…조복실은 여기서 20리 떨어진 동천면소재지마을에서 나서 자랐다. 집안에 딸 3형제가있었는데 그가 맏이였다. 나이는 스물일곱살, 처녀로서는 파년한 나이이다.

그의 아버지 조용식은 복실이 가 시집을 가지 않는다고 날마다 성화이다.

《이년아, 네년이 시집을 가야 동생들을 살릴게 아니냐? 영?》

조복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동천면인민위원회 위원장 길한덕이다. 그들은 소꿉시절부터 아래 옷집에서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 농사를 짓고 사는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어렸을 때 미리 혼약을 맺어 놓았다. 그리하여 처녀와 총각은 자기들의 결합을 응당한것처럼 여기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두집살림이 꼭 같이 가난한탓에 그들이 다 자랐지만 혼례를 치르어 주지 못했다. 생활이 좀 꺾이면 잔치를 하자하자 한해 두해 미루기만 할뿐이다.

광복되기 두해전에 길한덕은 세금을 내라고 못살게 구는 왜놈순사를 때려 눕히고 류치장에 갇히었다. 류치장에서 풀려 나자 다시 징용이라는 울가미에 걸려 들었다. 그는 만주로 도망쳐 목재관에서 숨어 살다가 광복과 함께 돌아 왔다. 그동안 그의 부모들은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길한덕이 돌아 오자 조용식은 기다렸던듯 잔치를 하자고 했다.

《임자 나이가 이젠 혼기를 지났네…》

하지만 눈에 달이 뜬 길한덕은 잔치는 안중에없는듯 친일파라도에 앞장서 뛰여 다녔다.

《아버님, 한해만 참아 주십시오. 내 우리를 못살게 굴던 놈들을 두들겨 패고… 그 다음 장가들겠어요.》

한해가 지나 길한덕은 면위원장이 되었다.

조응식은 간부가 된 사위감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이들처럼 놀라 났다.

《이보라구… 복실이 가 출가해야 둘째, 셋째도 시집 보내겠는데 어찌면 좋겠나?》

길한덕은 데면데면한 성격 그대로 툭 내쏘았다.

《면위원장이 되자마자 장가부터 들겠어요? 한해 짬 일하고 보지요. 그러니 둘째부터 먼저 시집보냅시다.》

자제력을 잃어 버린 조응식은 자그마한 몸체를 흔들며 노발대발했다.

《굴뚝이 불 때는 법 있다던가? 그렇게는 못해. 임자 혹시 우리 복실이가 싫어 진게 아니야? 싫으면 싫다고 똑똑히 말을 하게…》

길한덕은 팔을 엇걸은 손가락끝으로 코등을 긁으며 피식 웃었다.

《이왕 참던걸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쨌든 복실인 제가 책임지니 올해 농사나 짓고 봅시다.》

조응식은 상고머리를 흔들며 끝장을 볼셈으로 옥다짐을 썼다.

《너는 못 참겠어. 질질 끌면서… 이거야 속이 타서 어디 견디겠나.》

임자들 성례는 내 소임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네. 이번 광복의 날을 겸사해서 잔치를 차릴테니 그리 알게. 온 동네에 소문을 내겠어. 그런즉 이젠 임자 마음대로 하게…》

고집이 센 조응식은 도장이라도 박듯 발까지 구르고 돌아 갔다.

그날은 가가와 왔다. 콩나물도 놓고 떡칠 쌀도 붓으며 잔치준비를 하는데 길한덕이 조응식을 찾아와 정색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잔치를 미루어야 하겠어요. 지금 공장 노동자들은 배를 곯으며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탕치듯 때려 먹어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풍청거릴 쌀이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모아 보내지요. 면위원장이란 사람이 노동자들에게 쌀을 지원하라고 소리치면서 제 잔치를 요란히 차리면 사람들이 길한덕을 뭇로 보겠어요.》

조응식은 억에 막혀 길한덕을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사정조로 말했다.

《우리가 뭐 먹고 남아서 이러는가? 일생 대사이기에 빚을 지면서도 차리는거지… 다 익힌 음식을 이제 어찌라는건가?》

길한덕은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글쎄 안돼요. 제가 몇번이나 말했어요. 올해 농사나 짓고 보자고…》

조응식은 아연하여 입을 벌렸다. 다음 입술을 꾸들꾸들 떨며 침방울을 뿜겨 났다.

《그렇겠구먼? 이제는 임자 속통을 다 알겠네. 우리 복실이가 짝이 기운다고 식량사정을 구실 삼아 거절하는거겠지?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겠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나? 벼슬을 하면 다 그렇게 되나?》

《아버님, 그렇게 아닙니다…》

조응식은 길한덕이 변명하려는것을 단마디로 잘라 버렸다.

《됐어. 더러워 이제부터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치세…》

잔치는 후지부지되고 심장병이 있는 복실이 어머니는 병이 도져 군병원으로 실려 갔다.

조응식은 때없이 술을 퍼마시며 애꿎은 딸에게 행패질을 해댔다.

《…이젠 그 사람과 결별이다. 짝 잊어라… 그리 알고 다른데 시집 가도록 하자…》

참하고 얄전한줄만 알았던 복실이가 울곧게 엇섰다. 《싫어요. 전 그 사람한테 시집 안 가면 혼자 살테어요.》

조응식은 탄식을 터뜨렸다.

《야, 이년아 그러니 우리 집은 어떻게 하란말이나? 그녀석은 너를 차버리지 못해 안달인데 … 네가 머리를 없어야 둘째를 살릴게 아니냐? 어이구, 가슴이야. 이것두 저것두 싫으면 확 사라져라.》

조복실은 정말로 확 사라졌다. 온천마을에 있는 이모네 집에 와서 얹혀 살면서 혼자 살 결심을 한 것이다.

조복실은 가만가만 흐느껴 울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었다. 만나보아야 알겠지만 길한덕이라는 청년이 좋게 생각되지 않았으시었다.

게다가 노동자들에게 무슨 쌀을 모아 바친다는걸가? 설사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모아 보내준다고 해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해서 잔치까지 파탄시키는걸가? 길한덕이 조복실을 때버리려는구실일까?

그이께서는 구체적으로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며 복실을 위로하시었다.

《됐어요. 그만 눈물을 거뒷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 살수야 없지요. 집에 돌아 가서 아버님한테 용서를 빌어요. 아버님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의논하면 새로운 방도를 찾을수 있을거예요.》

…화물차는 가파로운 령길을 뚫아 올랐다.

나지막한 등성이를 넘어 서자 저 멀리 동천마을이 바라보였다. 어둡속에 점점이 불빛들이 박혀있는듯 싶다. 산기슭에 펼쳐진 들판은 잠든듯 고요하다.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시내물소리, 어둡속을 구불구불 헤쳐 간 달구지길,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들꽃이며 나무잎 그리고 시원한 맑은 밤공기는 새로운 삶에 대하여 무언가 다정하게 속삭여 주는것만 같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신비한 자연의 속삭임이 적재함두드리는듯 싶어 귀를 강구시였다.

면소재지가 가까와 올수록 그이의 생각은 깊어만 지시였다. 물론 조복실이네 집에도 들릴 예정이지만 그보다 앞서 동천면 일군들을 만나볼 계획이다. 먼저 그들을 만나 로동자들에게 무슨 쌀을 모아 보내는지 똑똑히 알고 싶으시였다. 그래서 더더구나 밤길을 떠나오시였다.

조복실은 집이 가까와 오건만 그리 달갑지 않은 듯 의기소침하여 앉아 있다.

녀사께서는 그 모습이 측은하게 생각되시였다. 고민은 둘이 나누면 가벼워 진다고 녀맹조직에라도 찾아 가서 속을 터놓고 방조를 받으면 살기가 한결 수월할것인데 왜 혼자서 숨어 살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물으셨다.

《복실인 녀맹에 들었어요?》

복실은 머리를 저었다.

그이께서는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도 그럴것이 조직생활을 안하니 외로와 지고 우울해 지고 소침해 질밖에 더 있겠는가?

《왜 녀맹에는 안들어요?》

《저… 저…》

복실은 입술을 감쌀면서 힘겹게 말씀 드렸다.

《글을 모르다면서… 반질 않습니다.》

(글을 모르다?)

녀사께서는 조용히 입속으로 되뇌이시였다.

《그렇다고 한뼘 까막눈으로 살수야 없지 않는가?》

그이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다.

《복실동무, 글을 모르면 눈 뜬 장님이나 같아요. 그러니 글을 배워야 해요. 글을 알아야 사람대접을 받을수 있고 나라일도 잘할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성인학교에 나가도록 하세요.》

복실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녀사께서는 복실의 손을 꼭 잡아 쥐며 힘 주어 말씀하셨다.

《알아야 옳고 그른것도 가려 보고 옳지 않은것과 투쟁할수 있어요. 그러니 꼭 글을 배우세요. 글을 배우거들랑 나한테 편지하세요. 어때요?》

그이의 당부가 어찌나도 절절하고 뜨거웠던지 조복실은 거절할수가 없었다. 누가 자기 같은 촌뜨기를 다심하게 돌봐 주고 앞날까지 걱정해 주었던가? 그 기대, 그 믿음을 어떻게 저버릴수 있으랴.

《글을 배우겠습니다. 글을 배워 꼭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복실은 어머니품에 안긴 아이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자기를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하려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저 하늘의 날과 별도 처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듯 은은한 빛발을 뿌려 준다.

동천면인민위원회는 《기》자로 꺾어 지은 큰 기와집이었다.

화물차는 면인민위원회마당에 멎어 섰다. 사무실인듯 한 한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차에서 내리신 김정숙동지께서 조복실에게 이르시였다.

《면일군들을 잠깐 만나보고 가겠으니 미담에서 좀 기다려요.》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고 가던 길을 떠나자 사무실문이 열리며 남정들 셋이 나왔다. 불빛이 확 쏟아져 나오며 세사람을 비쳤다.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단정히 맨 안경쟁이, 얼굴이 기름하고 눈꼬리가 치켜진 억대우 같은 청년.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늘그스레한 로인… 그중 교양과 지성이 느껴지는 중년의 안경쟁이가 단정히 서계시는 녀사께 물었다.

《저… 뉘신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세사람을 둘러 보시며 제일나이가 들어 보이는 로인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시였다.

《김정숙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순간 세사람의 눈이 동시에 마주치고 동시에 굳어졌다. 마치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그들의 앞은 딱 얼어 붙었다. 수수한 무명치마저고리를 입고 계시는 그이가 좀처럼 믿어 지지 않는 모양이다. 이어 경위대원을 띄여 본 로인이 모든것을 알아 차린듯 황황히 허리를 굽히었다.

《녀사님을 몰라 봐서 죄송합니다. 늙은게 밤눈이 어둡다나니… 녀사님께서 온천에 와 계신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한번 찾아 가 뵈옵는다는것…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에야 안경쟁이와 젊은이도 황급히 허리를 굽히었다. 로인이 서둘러 두사람을 소개해 드리였다.

《이 사람(젊은이를 가리키며)이 면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서기장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로인의 두손을 잡아 일으키시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여기 좌상분들을 찾아 뵈웠어야 했는데… 이제야 찾아 뵈게되어 미안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던것 같은데 혹시 방해할 끼친게 아닙니까?》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이 성큼 나서며 씨원씨원하게 말씀 드렸다.

《아닙니다. 방금 회의를 끝 마치고 돌아 가려던 참입니다. 루추하지만 안으로 들어 가십시오.》

녀사께서는 사무실로 들어 가시였다. 편수책상두

개를 맞붙여 놓은 넓지 않은 방에는 나무결상들이 빙 둘러 놓여 있었다.

그이께서는 나무결상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둘러 앉은 세 일군을 일별하시었다. 젊은 면위원장이 인상적이다. 다보록이 일어 선 시꺼먼 눈썹, 갈매기날개처럼 쳐들린 두 눈썹, 빗장을 지른듯 꼭 다붙린 입, 이마에 번들거리는 상처자리... 척보기에도 묵중하고 과격해 보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사람이 복실이를 차버렸다는 길한덕임을 알아 차리시었다.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기에 들렀습니다.》

녀사께서는 밤중에 찾아 오신 영문을 알수 없어 하던, 일군들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긴장하게 굳어 지던 표정들을 풀었다.

《그래, 올해 농사형편이 어떻습니까?》

녀사께서는 딱딱한 분위기를 가시려고 얼마간 농사이야기, 생활이야기를 나누시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1947년 첫 인민경제계획수행형, 농촌에서의 《전국사상총동원운동공작반》사업실태 등을 알아 보신후 누구에게라 없이 물으시었다.

《면위원회에서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지식해 보이는 서기장이 말씀 드렸다.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식량이나 공급해 주고 시장에서 장사군들의 세금이나 받아 들이는것이 고작입니다.》

서기장은 솔직하게 말해 놓고도 쑥스러운지 머리를 수그리었다.

길한덕의 눈썹이 못 마땅한듯 종깃 일어 섰다. 그는 성큼 일어 서서 서기상의 말을 부정하듯 거침없이 말씀 드렸다.

《사실 우리 일군들이 일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면일군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호조미운동>때문에 뛰여 다니는데 실적이 꽤 좋습니다.》

길한덕은 큰 일이나 하고 있는것처럼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이 <호조미운동>만 잘하면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도 문제없습니다.》

녀사께서는 자신께서 알고 싶었던 농민들에게서 쌀을 거두어 들이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자 대화를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었다.

《위원장동무, 한가지 물읍시다. <호조미운동>이란 뭐냐요?》

길한덕은 어깨를 으쓱하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분투하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보탬해 주기 위해 농민들의 량곡을 거두어 들입니다. 이것을 <호조미운동>이라고 합니

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시었다.

《그래요. 그런데 농민들의 쌀을 어떤 방법으로 거둬 들이는가요?》

이번에는 서기장이 대답올렸다.

《매 세대당 기준량을 정해 주고 무조건 받아 내는 원칙에서 진행합니다.》

김정숙동지의 안색이 흐려 지었다.

《그러니 그것이 농민들의 자원적운동은 아니구만요.》

(이것이 <호조미운동>구나. 이것때문에 복실이 잔치가 튀었던 말이지. 하다면 길한덕이 잘못 처신한것이 아닌가?)

녀사께서는 다시 물으시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어디에서 지시했어요?》

길한덕은 웅당하듯이 머리를 쳐들었다.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디서나 다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 지고 있다는것을 포착하시었다. 《호조미운동》이란 처음 듣는 말인데다 이렇게 벌써 이 지역을 휩쓸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시었다.

《농민들의 자원적운동이 아니라니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대 농민들이 순순히 량곡을 바치던가요?》

부위원장이 우물우물 대답 올렸다.

《농민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애를 먹습니다. 어떤 집은 몇번 찾아 다녀야 마지 못해 바칩니다.》녀사께서는 알만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그렇거예요. 광복은 됐지만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먹고 남으리만큼 풍족하지는 않아요. 더구나 지금은 가을전이여서 꾀곡식으로 끼니를 예우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려 먹이는 방법으로 진행하니 좋아 할 터이 있어요? 이 운동은 우리 장군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요.》

세 일군은 어리둥절하여 마주보았다. 우에서 지시하기에 한 일인데 녀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잘한것 같질 않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마디한마디 힘을 주어 강조하시었다.

《이 <호조미운동>은 잘못 됐어요. 알아 봅시다. 우에서 지시한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이 장군님의 의도와 나라의 시책에 맞는가 따져 보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거예요.》

세 일군은 무엇인가 깨도되는듯 머리를 수그리었다.

녀사께서는 동천면일군들이 원칙을 놓치고 일하는것이 가슴 아프시었다.

그이께서는 도자기공장을 비롯하여 경암군일대

의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 보시면서 노동자들이 식량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사실을 료해하시였다. 이곳 지구는 농경지가 적은 반면에 공업지구가 많다. 하여 식량의 일부를 멀리 서해 곡창지대에서 실어다 먹군 하였다. 워낙 교통이 불리한데다 철길이 장마피해까지 입어 식량수송이 제때에 되지 않아 쌀공급이 잘 안되고 있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여도 농민들의 식량을 강압적으로 거두어 들이려 한다면 농민들은 이것을 국가의 시책으로 잘못 인식할수 있다.

동천면일군들은 이것을 똑바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왜 옳고 그른것을 가려 보지 못하는가? 단지 실무수준이 낮아서 그럴까? 길한덕이만 놓고 보아도 해방전에 농사꾼이었다고 하니 정치적식견이 빈약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의식정도나 실무수준에 한한 문제이겠는가?

너사께서는 길한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여 물으시였다.

《면위원장동문 그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길한덕은 긴 목을 빼들고 창문 멀리를 내다보았다. 그의 짙은 눈썹이 알릴듯말듯 떨렸다. 이윽하여 그는 자기가 걸어 온 지난 날을 조용히 말씀드렸다.

길한덕이네 집은 지지리도 못 살았다. 아버지, 어머니, 한덕이까지 부지런히 일했지만 한해 농사를 짓고 나면 빚이요, 세금이요 다 뺏기고 북데기만 남는다. 북데기를 털어 모은 낱알마저 군량미공납으로 악착스레 앗아 간다.

공출바람에 집달리만 보아도 신물이 난다.

어느 해 봄날, 당장 끼니를 풀일 쌀이 없는데 집달리가 순사까지 데리고 와서 또 군량미를 내라고 달달 부는다. 고간을 뒤흔드는가 하면 총창으로 천반을 찢러 보고 지어는 토방밀의 땅까지 파제껴본다. 헛물을 켜 순사놈이 울러왔다.

《정말 군량미를 안 내겠는가?》

길한덕은 분노가 치밀어 뻘뻘 맞섰다.

《보구도 그러오? 쌀이 있어야 낼게 아니요,》

《없으면 뚫그릇이라도 팔아... 바치란 말이야.》

《뚫그릇은 커녕 뚫술갈도 없수다. 당신들이 다 털어 가고 남은게 있소?》

《이 자식 말대답하는걸 봐. 대일본제국의 맛이 나 보겠는가?》

《마음대로 하구려... 이 목이나 콧 잘라 가우...》

순사놈은 절걱 칼을 빼들더니 칼등으로 길한덕의 이마를 내리쳤다. 대바람 피가 쪽 내뿜는다. 길한덕은 욕하여 누구도 어쩔사이없이 순사놈을 뺨다치고 사정없이 뺨아 댔다.

그때문에 길한덕은 석달동안 류치장살이를 했으며 정용의 울가미에 걸려 들었다. 빼앗다 빼앗다 못해 이제는 짧은 육체를 마소처럼 끌어 간다.

(이놈의 세상 콧 망해라. 네 놈들을 위해 내 피땀을 짜내?)

길한덕은 도망쳤다. 만주의 목재판에 숨어 살면서 《가갸, 거거...》를 배웠고 《혁명》이라는 낱말들도 귀동냥했다.

광복은 짓눌렀던 길한덕이 일제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껏 터뜨릴수 있게 하였다. 그는 다스려진 무죄주먹으로 친일파들의 대갈통을 무자비하게 두드려 댔다. 하여 혁명성이 강한 청년으로 인정 받았다.

《타도》바람이 한물 지자 도에서는 그에게 면위원장의 직책을 맡겼다. 길한덕은 사양하였다.

《믿어 주는건 고맙습니다만 아는게 있어야 면위원장을 하지요. 난 이제 농사나 짓겠수다.》

도에서 내려 온 일군은 타일렀다.

《누군 뭐 배속에서 벼슬을 타고 나나? 배우면서 하는거지. 임자의 그 짧은 혈기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걸세. 우선은 하자고 하는 열성이 있으면 되는거야.》

길한덕은 그렇게 했다. 무사분주히 뛰여 다녔다. 상부에서 내려 오는 지시는 다 건국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지기의 열성을 다 짜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길한덕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였다.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히 알렸다. 길한덕이 일을 하지는 사람인데 옳고 그른것을 잘 가려 보지 못한다. 어떤것이 나라의 시책에 맞고 어떤것이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는가를 판별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정치적각성이 무딘탓이다. 학습은 하지 않고 독심으로만 일하려 했으니 무엇을 제대로 했겠는가?

길한덕은 주눅이 들어 말씀 드렸다.

《솔직히 전 면위원장이 자신 없습시다. 그런것도 지금껏 열성 하나만을 믿고 일해 왔습시다. 아무래도 전 면위원장 자격이 없는것 같습니다.》

너사께서는 심드렁해 진 길한덕이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 가기 위해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위원장동무가 정색해 지니 우리까지 심각해 지는구만요. 모처럼 마주 앉았는데 우리 생활이야기나 하자요. 위원장동문 장가를 들었습니까?》

길한덕은 정통을 찢린듯 목을 움츠렸다. 그의 얼굴이 실망으로 이지러졌다. 그는 기여드는 소리를 냈다.

《아직...》

《듣자니 길동무가 면위원장이 되었다고 복실이란 처녀와 파혼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길한덕의 눈썹이 쫓깃 일어 섰다.

《아닙니다. 그 집에서 <호조미>를 안냈기에 말쑥했는데 조음식아버님이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전제가 채웠... 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호조미》란것이 이들의 사이를 갈라놓은셈이다.

《그러니 조복실이 아버지때문이란 말이지요? 만약 복실이 아버지가 승인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길한덕을 무겁게 한숨을 내뿜고는 확신성 있게 말씀 드렸다.

《전 그 처녀를 사랑합니다.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녀사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리었다.

《그러면 제가 복실이 아버지를 한번 만나볼까요? 중매를 잘 서면 떡이 서말이라는데 경암에 왔던 김에 국수를 얻어 먹고 가야 할가봐요.》

녀사께서는 즐거우신듯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복실이를 데려 왔으니 한번 만나보세요.》

그이께서는 밤이 깊었다시며 자리에서 일어 서시었다.

3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위원장 로인의 길안내를 받으며 복실이네 집으로 향하시었다. 복실이와 길한덕은 사무실에 펴구어 놓으셨다.

면소재지마을은 어둡속에 잠겨 있었다. 어느 집에선가 고구마 삶는 냄새가 뿜진 풍겨 나왔다. 인기척을 느낀 개들이 몇번 쾅쾅 짖어 대다가는 지나가는 길손임을 알고 입들을 다물어 버린다.

녀사께서는 머리를 들어 밤하늘에 펼쳐진 별무리들을 바라보시었다. 야광주처럼 반짝이는 못별들 중에서 별로 외롭게 떨어져 있는듯 한 직녀성이 아프게 눈을 찌른다. 그 옛날 견우란 총각을 만나지못해 애 태웠다는 전설의 별...

그이께서는 그 별을 보자 다시금 복실이와 길한덕의 결렬이 가슴에 마치시었다. 지금쯤 그 두사람은 결렬의 틈바구니를 메워 가고 있으리라. 어이하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애 타는 가슴들을 쥐여 뜯어야 했던가? 그게 정녕 조웅식의 탓일까?

그이께서 마음 쓰시는것은 비단 그들의 사랑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앞서 《호조미운동》때문에 생각이 더 복잡하다.

어찌하여 유독 함경북도일대에서만 《호조미운동》이 벌이 지고 있는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제원농민이 발기한 《애국미헌납》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때 여기서는 《호조미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알아 보아야 한다. 그러자면 농민들을 만나보아야 한다. 당장... 잡시라도 미룰수 없다. 사태의 긴박성을 절감하시며 그이께서는 밤길을 걸어 가신다. 어떻게 그저스칠수 있으랴. 지금이 어느때인가?

그이의 눈앞에는 불현듯 평양을 떠나올 때 있었던 일이 떠오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에 경암을 비롯한 함경북도일대를 현지도하실 계획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께서 먼저 경암에 내려 갈 결심을 하셨다.

8월 말, 삼복의 더위가 물러갔다고 하지만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께 가더라도 선선히진 9월 중순경에 떠나라고 이르시었다. 하지만 장군님의 안녕을 첫 자리에 놓고 생각하시는 녀사께서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여기 경암으로 오시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앞두고 《호조미운동》과 같은 불미한 사건들이 벌어 지고 있는데 어떻게 발권잡을 잡수 있으랴.

녀사의 생각은 오직 장군님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올해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경제계획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관철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언제 한번 편히 쉬신적이 없으시다. 눈 내리는 정초부터 공장, 농촌, 어촌들을 찾아 다니신다.

3월 8일에는 신천에 가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여 농업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키도록 하시고 4일 10일에는 평양곡산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아 가셨다. 6월 초에는 미림벌에 나가시여 몸소 모내기를 하시였으며 7월에는 강선제강소를 현지도하시었다. 9월에는 함경북도를 찾으시려고 한다.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도 첫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쌓아 올리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러하신 장군님의 새 조국건설위업을 한몸 바쳐 받들어 드리는것이 김정숙동지의 필생의 소원이시다. 하여 8월 말의 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천리길을 달려 경암으로 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에 함경북도를 현지도하시면서 지방할거주의적경향과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고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그런데 함경북도내 일부 일군들은 아직도 장군님의 의도와당의 결정지시를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호조미운동》이다. 단단히 문제를 세우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첫 사업으로서 《호조미운동》의 실패를 료해하기 위해 동천면의 농민들을 만나보러 오신것이다. 조웅식농민도 그래서 꼭 만나려고 하신다.

조웅식이네 집은 마을에서 초간히 떨어져 산기슭에 외파로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었건만 그

집 마당에는 불빛이 환했다.

집앞에 이르자 부위원장이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 갔다. 이어 작달막한 조웅식이 허겁지겁 달려 나오며 김정숙동지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사님, 밤중에 어떻게 저의 집엘 다…》

조웅식은 말끝을 가무리지 못했다. 뒤이어 두딸이 달려 나와 그이께 인사 드렸다.

너사께서는 조웅식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어서 일어 나십시오.》

널찍한 마당에는 모기쭈불이 타고 있었다. 쭈불 옆에 퍼놓은 멍석우에는 두가마니정도의 통강냉이 무지가 쌓여 있다. 강냉이무지둘레에는 알알이 간 강냉이 알들이 수북아 널려있다. 보매 통강냉이를 밟고 있었던것 같다.

토방에서는 복슬강아지가 쿵쿵 짖어 댔다.

조웅식은 너사를 집에 모신 감격과 기쁨, 황송함에 목 메어 떠들떠들 말씀 드렸다.

《루추하지만… 방안으로 들어 갑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위여 가는 모기쭈불을 바라보시며 혼연히 말씀하셨다.

《오래간만에 쭈내를 말으니 심신이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쭈향기도 말을 겸 씨원하게 여기 앉아 이야기를 나눕시다.》

조웅식은 그이를 어떻게 모셨으면 좋을지 몰라 송구스러워 하며 열른 고간으로 달려 가 돛자리를 가지고 나와 퍼드렸다.

너사께서는 스러져 가는 불무지에 몇가치의 쭈을 올려 놓으시었다. 쭈불이 활 타오르며 몽글몽글 현연기를 내뿜었다.

4

식구들은 쭈불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 앉아 이삭 강냉이를 뜯고 있었다. 약간 물기가 있어 그렇지 강냉이알들이 툭툭 여물었다. 재게 놀리는 손끝들에서 또글또글한 강냉이알들이 구울러 내렸다.

토방에서는 복슬강아지가 잠을 청하려고 꿈꾸거린다. 찌르륵거리는 풀벌레소리!...

김정숙동지께서는 강냉이를 밟그시며 생각하시었다. 아직 강냉이가을을 하자면 이르다. 그런데 왜 채 익지도 않은 강냉이를 따들였을가? 식량이 떨어져 그럴가?

《좀 더 있으면 수확이 더 나겠는데 왜 벌써 강냉이를 베였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조웅식은 피롭게 미간을 찌프리었다. 새까맣게 탄 자그마한 얼굴에 세상풍파가 다 지나간듯 한 주름이 팽 엉켰다. 조웅식은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바재이더니 무엇인가 결심한듯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사실은… 면위원회에서 자꾸 식량을 바치라고 하기에… 낱알은 없구 할수없이… 농사꾼이 못할것

을 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서서히 가슴이 조여 드는 압박감을 느끼시었다. 우려와 녀려는 하고 계셨지만 이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 지고 있는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얼마나 내라고 했으면 설익은 강냉이를 베여 밤도와 뜯을 생각을 다 했겠는가? 우리 농민들은 이처럼 고지식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다. 우에서 내라고 하면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꼬박꼬박 섬겨 바친다. 얼마나 소박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인가! 이처럼 가식 없고 진실한 사람들을 누가 부담을 주며 호령하고 들볶아 대는가?

그이께서는 숨 가빠 차오른 의분을 내리누르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다른 집들에서 이렇게 강냉이를 베였는가요?》

조웅식은 그저 입속으로 우물거리었다.

《우에서 하라는 일인데… 하고 봐야지요.》

그말 뒤끝에는 《다른 집이라고 안하고 견디나요?》 하는 은근한 암시가 풍기었다.

(이것이 과연 길한덕이 자랑스레 말하던 《호조미운동》이란 말인가? 농민들은 이것을 국가적인 조치로 알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

과연 이 운동을 통하여 얻은것이 무엇인가? 얻은 것보다 잃은것이 더 많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착잡한 생각을 고누시며 조웅식의 두팔을 둘러보시었다. 불빛에 발강게 물든 하나같이 복스럽고 얌전한 얼굴들이다. 이들도 복순이, 복희… 이제는 활짝 핀 싱싱함은 없고 아물려는 꽃송이처럼 처연함이 어리었다. 비로소 조복실을 책망한 조웅식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신다. 파년한 딸들을 거느린 부모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랴. 오죽하면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 갔겠는가?

너사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조웅식에게 물으시었다.

《아버님, 듣자니 아버님이 복실이와 면위원장과의 관계를 잘라 버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조웅식은 처음 끔찍 놀라는 기색이더니 이어 수궁하는듯 중얼거리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체다. 아무래도 우리 애야 면위원장한테 짝이 기울지요. 바라볼델 바라보아야지… 그래서 물려섰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면부위원장을 바라보시며 의미 있는 웃음을 주고 받으시었다.

《그래두 우리가 알기엔 아버님이 그들의 결함을 반대한다고 하시던데…》

조웅식은 아픈데를 찢리운듯 몸을 흠칫 떨었다. 두손을 비벼 대는 그의 입에서 애매한 소리가 흘러 나왔다.

《글쎄, 둘이 서로 팔세 안하는것 같긴 같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길한덕이 그 사람이 온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안봤는데 점점 별나게 번

저 지더군요. 그 사람한테 딸을 줬다가 신세를 망칠 것 같아서...」

조웅식은 무겁게 한숨을 내뿜었다. 어인 일인지 그의 눈귀에 진득한것이 매달렸다.

《이제 제가 무얼 숨기겠습니까? 죄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며 조웅식은 눈물이 글썽해서 자초지종 말씀 드렸다.

...며칠전에 있는 일이다.

길한덕이 한 청년을 데리고 복실이네 집에 왔다.

마당에서 낫을 갈고 있던 조웅식은 길한덕을 못마땅하게 노려 보며 뺨 돌아 앉았다. 잔치때문에 다투후로는 남남처럼 지내는 그들이다. 조웅식에게는 그날의 그 격분이 다시 살아 나는것 같았다.

그러건말건 길한덕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다.

《그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조웅식의 입에서는 비웃음이 새어 나왔다.

《아버님? 흥.》

길한덕은 무안을 당한것이 멧적었던지 담배를 권하였다.

《지나간 일은 서로 잊읍시다. 복실인 어디 갔습니까?》

조웅식의 강마른 얼굴이 다시 사납게 이지러 졌다.

《복실이? 그랜 왜 찾아? 그랜 없어...》

길한덕은 욕을 탈대신 꺼리낌없이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것이 아니꼬웠던지 조웅식이 꺾 소리 질렀다.

《왜 남의 집에 와서 기신거려? 이젠 우린 남남이야. 그리 알고 돌아 가주게.》

한덕은 부엌문까지 열어 보고야 복실이 가 없는것을 알았는지 심드렁하여 되돌아 나왔다. 그는 찌르듯 쏘아 보는 조웅식의 눈길에 여기가 질렸는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실 저도 이 집에 다시 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복실때문에 온건 더구나 아니군요.》

《?!》

조웅식의 눈이 쾅해 졌다. 그의 새모진 눈에 섬광같은것이 빛발쳤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왔다? 두말 말고 돌아 가주게.》

조웅식이 단호하게 나오자 길한덕은 정색하여 대담했다.

《가겠어요. 그러나 한가지만은 말해야겠어요. 이 집에서 <호조미>를 안 바쳤더군요. 그랜 언제까지 바치겠어요?》

길한덕이도 우락부락하는 성미인지라 자제력을 잃은 탓인지 말이 끊지 않았다. 조웅식은 억이 막힌지 이를 딱딱 마주쳤다. 《그랜 임자... 우리 집을 털어 가자구 왔나? 이젠 그렇게 됐군?》

조웅식의 이짚으로 무서운 말이 새어 나왔다.

《협잡군-》

김한덕은 모욕을 당한것이 분했던지 얼굴이 시뻘개서 씨근거렸다.

《아무렇게 말해도 좋아요. 하지만 <호조미>공납은 어느 세대든 폐외로 되지 않아요. 그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조웅식을 옷설을 제치고 가슴을 두드려 댔다.

《좋을대로 해. 임자네 잔치 차리자구 쌀 다 썩이구 어디 있어?》

길한덕은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다.

《정말 없어요? 제가 이집 사정을 모르는줄 알아요? 창고에 감자 있던걸 다 어쨌어요?》

조웅식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갈고 있던 낫을 들어 처마밑에 꽂 박았다. 시퍼런 낫이 부르르 떨었다. 조웅식의 기상이 어찌나 서슬 푸른지 일이 터질것만 같다. 같이 온 청년이 싸움을 말리려는양 두사람 주위를 빙빙 돌았다.

《흥, 감자? 로친네 약 사오자고 다 팔았어. 보라. 보란 말이야.》

조웅식은 흥- 달려 가 창고문을 열어 제꼈다.

길한덕은 같이 온 청년에게 눈짓을 했다. 씨름군처럼 다부지게 생긴 청년은 고간으로 들어 가 여기저기를 뒤져 보고 손을 털며 나왔다.

《위원장동지, 없습시다.》

김한덕은 헛물을 켜것이 꽤 씁스러운듯 입을 실룩거렸다.

《아버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지금 노동자들이 변변히 먹고 일하는줄 알아요. 그랜두 집에서야 굶지는 않겠지요?》

《...》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이 집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우에서 지시하니까 집행하러 온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을테니 <호조미>를 내도록 하십시오.》

조웅식은 아니꼽게 쏘아 보며 침을 뱉었다.

《좋아. 내 깡대기를 벗겨서라도 <호조미>를 낼테니 다시는 이 집에 얼씬 말게.》

...조웅식의 두눈에는 눈물이 글썽하니 피었다. 그때의 노염이 살아 난듯 후들후들 턱을 댔다.

《열길 물속은 알아두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구 길한덕이 그렇게 변할줄은 몰랐습시다. 한번 한다고 하면 우직스레 벽도 문이라고 내밀지요. 그제 어디 인민정권의 일군이 할 행동이웨까? 인정사정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딸을 주겠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웅식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활랑거려 두손을 움켜 쥐시었다. 길한덕은 정치적각성이 무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탕은 나쁘지 않지만 옳고 그른것을 가려 볼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성이 높아도 정권기관일군들의 영상만 휘손시킨다.

정령 《호조미운동》이란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빚어 내고 있는가? 이것은 처녀와 총각이 갈라진 아픔, 어느 한가정에 국한된 고통만이 아니었다. 무서운것은 인민들이 인민정권기관을 멀리하게 된 것이다. 일군들이 무지하고 정치적식견이 없으면 본의든, 본의아니든 당과 인민을 리탈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일군들을 보고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 아니라 호령군이 되었다.

녀사께서는 길한덕을 만나 《호조미운동》의 해독성을 까뵈히고 그를 깨우쳐 주고 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용식의 갈퀴진 두손을 꼭 잡아 주며 위로하시였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여기 일군들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제 장군님께 보고 드리고 바로 잡읍시다.》

조용식은 그 말씀이 고마운지 코 멘 소리를 하며 눈물을 흘리였다.

《고맙습니다. 우리 길한덕이 그 녀석을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밍진 하지만 길러 준 정이 있어서... 막상 인연을 끊자니... 속이 알찌근 합니다.》

이때 얼굴이 컴컴하게 죽은 길한덕이 걸어 들어왔다. 그뒤에는 조복실이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물으시였다.

《면위원장동무, 왜 그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요?》

길한덕은 맥이 빠진 소리로 대답 올렸다.

《도에서 검열성원이 내려 왔습니다. <호조미>수집이 왜 늦어 지는가고... 한바탕 욕을 먹었습니다. 추궁을 받으면서도 속이 내려 가지 않아 좀 다투었습니다.》

《그래요? 그 검열 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면위원회에 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면위원장동무와 조용히 할 얘기도 있는데 면위원회로 갑시다. 가서 그 검열 내려왔다는 사람을 만나봅시다.》

그이께서는 헤어지기 아쉬워 하는 조용식과 딸들에게 정이 넘치는 말씀을 하시였다.

《아무래도 강냉이 뜯어 준 값을 받아야 할것 같아요. 래일 아침에 강냉이묵 한사발 신세 질수 있겠어요?》

조용식의 입가에 흐무진 미소가 피어 났다.

《정말이웬까? 꼭 오십시오. 우리 복실이 묵 만드는 솜씨가 괜찮습니다. 청포가 울고 갈 정도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길한덕과 함께 문을 나서며 거듭 약속하시였다.

《오겠어요. 그런데 혼자 오지 않겠어요. 면위원

장동무가 햇강냉이묵을 좋아 한다는데 같이 오겠어요.》

잠 들었던 복슬강아지가 언제 깨여 났는지 쪼르르 달려 나와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래우듯 재롱스럽게 발치를 뻗돌아 친다.

5

개울물이 주절주절 흘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방축우에 서 있는 버드나무에 한손을 얹으시고 나직하나 준절하게 책망하시였다.

《어디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농민들의 고간까지 뒤흔들며 란동을 부릴수 있는가 말이에요. 면위원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길한덕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자책에 잠겼다.

이 순간에는 바람도 불기 저어하고 하늘을 헤엄치던 달도 멎어 내린듯 싶었다. 도굴도굴한 별들도 그이의 말씀에 귀를 강구는듯 싶었다.

《아주 잘못했습니다. 농민들에게 해설설복하여 자원적으로 여유랑곡을 내게 했으면 몰라도 집집마다 골고루 무조건 받아 내려 했으니 이게 어디 될 말이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길한덕의 소행을 참을수 없으시여 사무실로 가던 도중 방축우에서 꾸지람하시는데

《있는 집들은 몰라도 없는 집들에서야 쌀을 내지 못해 얼마나 속 썩이겠어요?》

우리 농민들은 내라면 다 내는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자꾸 내라고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동문 알기나 해요?》

멀리서 쓰르륵거리던 풀벌레마저 입을 다물어버렸다.

강변에 피여 오르는 물안개, 물결우에 부서지는 푸르른 달빛, 훈향을 머금은 끝 없는 고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참으로 생각이 많으시였다.

여기서는 지난해 장군님께서 현지도하시면서 비판하신 지방할거주의 관료주의작풍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시책과는 어긋나게 <호조미운동>이란것을 벌려 놓고 제멋대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우에 올라서서 호령을 하며 내려먹이기를 즐겨 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가?

일군들이 지난 날의 처지를 망각하고 직위를 타고난 벼슬처럼 생각하기때문이다. 저도 모르게 교만해 저서 인민들을 해설설복할 대신 욕설하고 추궁하고 따지고 호령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식견이 부족할수록 더 혹심하게 나타난다. 나아가서 관료주의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반혁명적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것을 길한덕에게 똑똑히 깨

우쳐 주고 싶으시었다.

《난 오늘 면위원장동무에게 인간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길한덕동무는 왜놈세월에 놈들의 세금단련에 견디다 못해 목이라도 배여 가라고 항거했지요. 그러한 동무가 어떻게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폭군처럼 놀수 있어요?》

저 멀리 별찌 하나가 긴꼬리를 끌며 떨어 저 내려왔다.

그이의 말쑥은 후려치는 채찍처럼 길한덕의 어깨며 허리며 종아리에 날아 와 휘감기는듯 했다.

《오늘은 비록 길한덕동무가 애인 한명을 잃었지만 래일은 백, 천의 군중을 잃게 돼요. 한사람이라도 더 당의 두리에 묶어 세워야 하는 오늘에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파오예요.》

흐-흑- 울음소리가 터졌다.

억대우 같은 길한덕이 온몸을 부르르 떨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황소의 영각소리 같은 사나이의 울음이 연등이같이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다.

길한덕은 이 순간 심상이 터져 나갈듯 한 아픔속에 자신을 모질게 돌켜 보고 있었다. 그는 우의 지시라면 덮어 놓고 옳은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호조미》를 받아 들이는것도 건국을 위한 국가적 시책으로 여기면서 열성스레 뛰여 다녔다. 건국을 위한 일은 국사이며 이보다 선차적인 일은 없다. 때문에 복실이와의 결혼이 중해도 이보다 급할수는 없다. 그러니 조아버님의 노염은 사더라도 《호조미》를 먼저 바치고 잔치는 천천히 하자, 내가 좀 지나친데는 있지만 조아버님도 이해할 때가 있겠지?

길한덕은 이렇게 자신을 위안하며 살아 왔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복실이와 조웅식의 원망을 사듯 농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졌다. 과연 농민들의 생활형편은 안중에도 없이 부담을 주는 일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김일성**장군님의 건국사상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시야가 좁은탓에 분별을 잃어 버렸다.

정녕 김정숙동지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떤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질번 했던가? 자기가 무엇이기에 그이께서 밤이슬을 맞으시며 타이르는것인가? 부모없이 살아 오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그이의 사랑속에 가뭇없이 녹아 버리고 따뜻한 품안에 정신도 육체도 새롭게 부활되는듯 가슴이 벅차오른다.

길한덕이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의 얼굴이 불기에 젖어 번들거린다. 그는 고민과 자책, 반성과 결의가 뒤엉킨 음성으로 끝없이 자기를 질책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지난 날의 처지를 잊어버

리고... 농민들의 아픈 심정은 알고조차 하지않고 우의 지시라면은 다 옳은것으로만 여겼습니다. 눈 먼 송아지 워낭소리 듣고 쫓아 간다더니... 제가 무슨 면위원장이겠습니까?》

그는 두손으로 옷섶을 거머쥐고 전신을 비틀어짜듯 안타까이 몸부림쳤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저 같은 놈은 땅이나 뚜저야 마땅할 놈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길한덕이 진심으로 뉘우치는것을 보고 마음이 가벼워 지는것을 느끼시었다.

그이께서는 갈한덕이 다시는 결함을 범하지 않도록 그루를 박아 강조하셨다.

《앞으로는 우에서 내려 오는 지시라고 하여도 그것이 장군님의 의도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를 잘 따져 보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는 면위원장동무가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길한덕은 알았다. 인민에게 호령하는것은 관료주의이기에 앞서 장군님의 사상으로 살며 싸워 나가는 투철한 신념이 없을 때 생겨 나는 유해로운 독소임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는 뼈저리게 자신을 뉘우치며 절절하게 심정을 터놓았다.

《전 자신이 저지른 파오를 농민들한테 사죄하겠습니다. 조아버님한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버드나무가 설레인다. 달은 더 빨리 헤엄쳐 가고 푸르른 달빛은 울며 웃으며 자기를 뉘우치는 사나이의 얼굴을 부드럽이 어루만진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밤 또 한명의 일군을 바른길에 들어 세웠다는 기쁨에 조금도 피곤함을 모르시었다.

그이께서는 길한덕의 앞날을 그려 보셨다. 그가 인민의 총복으로 돌아 온다면 조웅식은 그를 사위로 삼을것이다. 그날이 보이는듯 싶으시다. 그들의 잔치에 참가하여 축하라도 한마디 하고 싶으시다. 사람들이 게 잘못을 깨닫고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결합되는것만큼 아름다운 생활이 어디 있으랴. 그 아름다운 생활을 가꾸기 위해서라면 천리를 가도 힘겹지 않고 몇밤을 패도 곤하지 않을것같으시다.

어디선가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달빛도 희미하게 사그러져 간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밤이슬이 내려앉은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휘연히 밝아 오는 지평선을 바라보시었다.

멀리 동이 터온다.

처녀의 꿈

지인철

태양에 솟는다! 광휘로운 빛발이 온 누리에 차넘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렬차에서 내리신것이다.

끝없는 자신심과 정력에 넘치신 모습,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태양의 미소...

《아! 장군님!》

처녀는 기쁨과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손에는 소담한 벼묵음이 들려 있다.

처녀는 한달음에 달려가려 하였다. 그런데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아무리 모지름을 써도 두다리는 땅에 뿌리라도 내린듯 꿈쩍하지 않는다.

처녀는 너무 안타까와 소리치다 못해 두발을 동동 굴렀다.

이때였다.

갑자기 나타난 한 처녀가 앞질러 달려 간다.

치렁치렁한 금발머리, 늘씬한 키, 불깃한 살색, 깊은 눈확이 분명 로씨야처녀였다. 그 처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달려 가 향기 그윽한 장미꽃다발을 드리고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처녀의 손을 꼭 잡아 주신다.

《장군님! 장군님!》

처녀는 애타게 부르짖었으나 목소리는 입안에서 맴돌뿐이다.

처녀는 하도 분하고 억울하여 자기의 두다리를 꼬집다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왈각 울음을 터뜨렸다...

이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도 나는 다감한 농장원 처녀와 만났던 일이 삼삼히 그려 진다.

《작가선생님, 난 글씨 왜 달려 갈수 없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난 엉엉 울었어요.》

처녀는 내가 마치 그 아쉬움을 조장한 장본인이기라도 한듯 마구 대들다싶이 하였다.

머리위에 단정히 올려 놓는 농립모, 땀발이 뽀얗게 서린 가름한 얼굴, 진주라도 쪼아 박은듯 유난히 정기 도는 두눈...

마을에서 흔히 《들새》라고 부르는 논물관리공 처녀다. 현지체험기간 딸처럼 정이 들었다.

이름은 영심 나이는 열아홉...

그 처녀가 언제 잠을 자고 언제 포전으로 나오는지 누구도 모른다. 저녁에도 이른 새벽에도 들판에 나오면 언제나 쿵당쿵당 뛰여 다니며 논고를 돌보는 처녀를 볼수 있다. 장군님께서 머나먼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르신 이즈음에는 잠자리도 들판으로 옮긴 처녀다.

들에서 자고 들에서 사는 《들새》...

《전 정말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장군님 가시는 곳마다 훨훨 따라 설수 있지 않겠어요.》

처녀가 매일마다 싶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세심하고 간진 일숨씨에 들판은 꽃밭처럼 알뜰하다. 그래도 처녀는 설새없이 뛰여 다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에 돌아 오시는 날 벼꽃향기로 맞이하겠다는 처녀다.

나는 처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영심이가 참 신통한 꿈을 꾸었구나. 그 로씨야 처녀처럼 영심의 소원이 이루어 지게 될것다.》

《난 그 처녀가 막 부러웠어요. 또 고마웠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녔으니 그 로씨야처녀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처녀로 되었거든요.》

처녀의 그윽한 눈가에 물기가 어리었다.

사람이 한가지 생각에 음하면 그것이 꿈에 나타나는것은 생리적현상이다. 하지만 나는 처녀의 꿈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영심이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그런 꿈속에 살고 있는것이다.

어디선가 구성진 노래소리가 울려 왔다.

미명의 안개발을 헤치며 사람들이 일터로 나오고 있었다. 출근시간을 스스로 당겼고 퇴근시간을 스스로 늘인 사람들이었다. 조직한 사람도 없었고 지시한 사람도 더구나 없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서둘러 일손을 잡았다.

풀베기전투다. 농장원들 모두가 실적이 한배반이나 넘어 섰다. 전에 없던 실적이다. 실적은 자꾸 오른다. 그 끝을 누구도 알수 없다.

풀베기는 의연 경쟁으로 번져 진다.

하루에 두번은 면도칼을 댄다는 구레나룻령감이 제일 앞섰다. 그 뒤로 세쌍둥이손자 자랑에 입이 더 커졌다는 풍보로친이 앙증스레 따라 섰다.

일이 한창 고조에 올랐을 때 논머리 전주대에 매달린 확성기에서 방송원의 격동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하바롭스크시를 방문하시였습니다...》

약속이나 한듯 일손들을 멈추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경건한 빛이 어렸다.

《하바롭스크》란 도시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파문처럼 번져 갔다.

《하바롭스크는 원동의 어디쯤 됩니까?》

고수머리청년이 목덜미의 땀을 훔치며 나를 건너다 보았다.

나는 광활한 원동의 령토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아니 그렇게 넓은 땅을 일일이 돌아 보신단 말이요?!》

구레나룻령감이 놀라움과 감심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는 여기보다 기온이 썩 떨어 지겠는데요...》

똥보로친이 근심스러운 기색이다.

나는 가슴이 쩡 하니 젖어 들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들인가.

바로 이것이 장군님과 떨어 저 한시도 못 사는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인것이다.

아버이에 대한 그리움, 아버이에 대한 충성, 아버이에 대한 숭배...

일을 해도 장군님생각으로 일을 하고 꿈을 꾸어도 장군님 꿈을 꾸는 인민...

시컨하늘에 주홍빛노을이 불타는 저녁녘에 나는 《들새》 처녀와 다시 만났다.

처녀는 논두렁에 그린듯 앉아 있었다.

《선생님. 벼꽃이 또 폈어요. 장군님 오시기전에 벼꽃이 다 지면 난... 난 어쩌면 좋아요?》

처녀의 새별 같은 두눈은 그리움에 함뿔 젖어 들고 있었다.

《걱정말아. 영심이는 오늘밤 꿈에 또 장군님을 만나뵈지 않나.》

《어마나! 선생님도...》

처녀는 수줍게 웃었다.

《영심아! 마음껏 꿈을 꾸어라. 오늘은 장군님께서 너의 소원을 꼭 풀어 주실게다.》

《그렇가요...》

처녀는 멀리 북녘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쪽에 원동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것이다.

무엇을 생각할가? 처녀는 저렇게 앓은채로 또 꿈

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감히 처녀의 꿈을 상상해 보았다.

태양이 솟는다! 광휘로운 빛발이 온 누리에 차넘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포전길을 걸어 오신다.

《들새》는 나는듯이 달려 간다.

《아버지장군님! 먼 길에 안녕하셧습니까? 전 장군님이 그리워 막 울었습니다.》

처녀의 눈에 눈물이 반짝인다.

《오! 우기 영심이로구나. 나도 영심이가 보고 싶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애로운 품에 처녀를 꼭 안아 주신다.

《저런, 벌써 벼꽃이 폈구나. 이젠 영심이가 피웠겠지?》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조국에 돌아 오시니 약속이나 한듯 피었습니다. 그러니 이 꽃은 장군님께서 피우신 꽃입니다.》

《고맙소, 고마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뒤짐을 지시고 무연하게 펼쳐진 풍년벌을 대견하게 바라보신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구수한 낱알향기에 온갖 시름이 풀린다고 말씀하셨지... 오늘 영심이가 가꾼 벼꽃향기를 맡으니 원동방문에서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것만 같구나.》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신다.

처녀의 얼굴이 기쁨과 행복으로 붉게 물든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언젠가는 꼭 《들새》 처녀가 가꾸는 여기 드넓은 포전들에도 찾아 오실것이다. 그러면 처녀의 꿈은 이루어 질것이다.

인민의 간절한 소원은 이렇게 꽃 피날것이다!

수령님추억속에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동무를 미래의 령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 앞에 내세워 준것입니다.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동무를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이 쌓아놓은것입니다. 그가 혁명앞에 남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숙동무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에도 **김정일**동무를 불러왔히고 그에게 아버지를 잘 받들라는 것과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해야 한다는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김정일**동무에게 남긴 유언으로 되였습니다.》

생일상이야기

박세일

알수 없었네
어이하여 자신을 저택으로 부르셨는지
그 영문 정말 알수 없었네

4월련석회의는 끝났으나
태양의 인력에 끌린 별과도 같이
평양에 아예 남기로 한
남조선의 《민주독립당》 당수

조심조심 저택에 들어 서는데
현관밖에까지 나와 반겨 맞아 주시는
아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다심하신 손길에 끌려 들어 선 방안엔
요란한 상이 차려 저 있었네
상에 오른 음식들은 모두 서울음식
《포육》 《수정과》, 《약과》...
틀림 없는 서울식큰상이었네

깜짝 놀라는 그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말씀
-오늘이 바로
선생의 생일날이기에
상을 좀 차리느라 했는데
변변치 않은것 같습니다

뒤따라 올리는 어머님말씀
가슴 축축이 적서 주네
-만일 선생님이
서울에서 이날을 맞이하셨으면
아들, 며느리, 일가친척들이
얼마나 훌륭한 상을 차려 드렸겠습니까

제가 서울음식을 잘 알지 못하다보니
구미에 맞지 않을텐데
성의로 아시고 많이 드시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거나
서울에서 자식들이 차려 주는

아무리 큰 상과 큰 절을 받는데도
이 영광의 좌석에 어이 비길거나

꿈인듯
생시인듯
행복의 무아경에 흠뻑 빠진
지난 날의 《민주독립당》 당수

마실줄 모르는 술이지만
단숨에 쭉쭉 잔을 비웠네
수령님과 어머님
변갈아 부어 주신 생일축배잔

한잔술에 가슴에 불이 당기고
두잔술에 심장이 끓어 올랐다
감격의 분출인듯
눈자엔 뜨거운 눈물이 솟았건만

정녕 알수 없었네
혈육의 이 자리 마련하고자
수령님분부대로 어머님
머칠씩이나 고심하신줄
남쪽출신 사림들을 찾아 다니며
서울풍습 자상히 익혀 두신줄...

허나 감동의 그날로부터
5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
오늘은 온 겨레가 다 알고 있네
어머님은 고향이 북쪽이여도
통일의 인사들을 위압이라면
민족의 통일을 위함이라면
서울음식도 맛나게 만들어 내시는
서울음식상도 번듯하게 차릴줄 아시는
아, 통일의 어머니이심을...

겨레사랑 충충 고인 그 상에서
통일의지 충충 쌓인 그 상에서
인민은 목 메여 바라보았네
통일의 어머니 성의껏 차려 주신
통일의 잔치상을 보았네

시인의 한생에 내려진 눈송이

홍철진

눈, 눈이 내린다.

인류를 격동시키며 찾아 왔던 21세기 첫해도 어 느덧 저물어 작별의 시각에 이른 아쉬움에 하늘에서 내려 보내는 하얀 꽃잎인가, 흰눈은 고적의 대동문추녀밀을 거니는 한 시인의 어깨며 백발머리우에도 하염없이 내리고 또 내린다.

눈은 소리없이 내리건만 생각 많은 시인에겐 결코 조용한 눈이 아니었다.

너는 무엇을 속삭이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늘 가득 땅에 가득

소곤소곤 서로서로 찾고 부르며

하늘중천에서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송년시 《눈송이》 중에서)

한해를 바래우는 송년시의 서두를 시인을 이렇게 뻗었다. 아니 한해만을 바래울수 없는 한생에 대한 추억의 대문을 시인은 이렇게 열었다.

그리고나서 시인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공간을 메우며 내려 지는 눈송이들은 마치 지나온 날과 달이 그리고 흘러 간 년대와 년대들이 서로서로 어깨 결고 내리는 자기의 한생같이 생각되었다. 시인은 눈을 찔렀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도 습관처럼 쓸어 만지던 수염볼에도 눈은 간지럽히며 내려 앉았다.

소담한 눈송이들이 무엇을 서로 찾고 부른다는 걸가.

시인 박호범, 내가 그를 안지는 몇해밖에 되지 않는다.

시인에 대해 이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다.

허나 그의 총화작이라고 할수 있는 《눈송이》의 편집자로서 그리고 시인의 마지막편집원으로서 나는 누구보다 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물론 내가 아니어도 말해 줄 사람이 많을것이다. 시인에겐 《제대군인 시인 내 동무》도 한돌이 아니다.

내가 시인 박호범을 꽤 그려 낼수 있겠는지...

위구심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머리로 세지 않았고 등도 굽지 않았는데...

허나 추억할 권리는 함께 생활해 온 오랜 년조에 만 부여되는것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편집자로서 누구보다 《눈송이》를 사랑하기에 혈기왕성한것뿐인 젊은 손에 이렇게 추억의 붓을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나도 아는것이 적은

게 안타까울뿐이다.

1. 아픈 눈송이

내려 다오

뿌려 다보

이제는 한생을 살아 온 나도

정들은 대동강반의 창작실을

떠나야 하는 그런 때가 왔으니

내지 않았던 책상우에도

한잎 눈꽃을 엮어 다오

(송년시 《눈송이》 중에서)

너무도 가벼운 눈송이가, 아플레야 아플수 없는 눈송이가 왜 시인에겐 그렇게도 아프게만 느껴 졌던가.

걸어 온 길 뒤돌아 보니 시인은 《서글픈》 생각이 미여지게 가슴을 파고 들었다.

잘 못 먹고 잘 입지 못한 후회라면 이다지 《슬프》지 않을것이다.

다름아닌 작가이기에 시대앞에 인민앞에 몇몇한 작품을 많이 《못》 쓴 후회가 그토록 늙은이를 울게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만 한 훌륭한 시를 더 많이 창작해 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시인은 생각이 많았다.

고백하건대

나에게 아픔이 있다면

사람이면서

사람의 인격을 다 갖추지 못한 그것이고

시인이면서도

시인다운 인격을 다 갖추지 못한

그 아픔이더라

(송년시 《눈송이》 중에서)

결국 박호범선생은 한생 인격을 다 《못》 갖춘 시인이였다.

그 《못》 갖춘 인격때문에 누구보다 피로왔고 누구보다 가슴 아픈 시인이 한생이였다.

돈 주고 살수 없는게 인격이였고 광석처럼 땅속에서 캐낼수 없는게 인격이였다.

《인격자》가 된다는게 얼마나 힘든것인지 시인은 말년에 이르러 뼈저리게 절감했다.

눈이 내린다.

눈송이들은 자기들의 고향의 시인에게 얼마나 아픈 매를 드는지 아는듯 마는듯 그저 들까불며 내린다.

탓할수 없는 눈송이였고 탓해서도 안되는 눈송이였다.

한 인간이 맞은 눈이 《아프》다고 다른 사람까지 《아플》수는 없었다.

런광정앞에서 아이들이 눈송이를 맞으며 좋아라고 떠들고 있다.

어떤 애들은 웃옷까지 횡횡 집어 던지며 눈송이와 교감을 한다.

생각 깊은 《할아버지》는 눈송이와 가슴 아픈 말을 주고 받는데 아이들은 《소란스런 웃음》으로 눈송이와 이야기한다.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가.

좋은 시대를 만나 복 받은 아이들이니 내리는 눈조차 따스해 보였다.

시인은 부러웠다.

다시 태어나 저런 눈을 처음부터 맞아 봤으면...

눈 내리는 계절에 태어난 시인이고 보면 감출수 없는 부러움이였다.

주체21(1932)년 12월 27일 평북도 회천군 신평면(현재 자강도 동신군 문화리) 매바위골에서 시인은 식솔 많은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새해를 앞두고 한 인간의 출생을 축복하여 눈은 내렸으나 시인에게 몸시도 《아픈》눈이였다.

당시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모 셋과 누이들해서 9명의 《어머어마》한 식솔들이 있었다.

집안이 깨지게 가난한 때 태어난 출생아다보니 기쁨보다 밥술이 더 늘어 난 걱정 많은 근심아였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살리자고 아픈 뼈마디를 짜쥐고 택계실이(우차몰이)를 하였고 아버지는 산판을 떠돌아 다니며 닥치는대로 육신을 팔았다.

할아버지는 젊어 한때 처서판에서 한다하는 힘군이었는데 어느해인가 왜놈감독에게 대들었다는 《죄》로 못매를 당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던 호주가 덜컥하고 쓰러지자 집식구들은 애고데고 울기만 하였다.

신음소리도 마음 놓고 낼수 없는 세상이다보니 할아버지는 하는수없이 왜놈감독을 찾아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자 왜놈감독은 할아버지를 돌판에 자빠뜨려 놓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반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주자는 것이였다.

왜놈감독은 제가 먼저 할아버지의 잔등을 힘껏 내리밟더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밟으라고 강요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것을 거

부하자 왜놈감독은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표본처럼 눕적 엎드려 있던 할아버지는 마침내 돌을 불안고 일어 섰다.

돌은 들었으나 할아버지는 왜놈상통을 견주지 못하였다.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기다리는 집식구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금시 바라보는것만 같아 그는 다른 곳으로 돌을 내던지였다.

그 일로 하여 할아버지는 명줄처럼 걸고 살던 처서판에서 쫓겨 나게 되었다.

한지에 나앉게 된 가족을 끌고 할아버지는 부대기라도 뿌지자고 산골로 들어 오게 되었다.

그러나 산골이라고 그들을 반겨 맞아 주리 만무하였다. 왜놈세상에서 《조선의 산골》이란 없었다. 이렇게 눌러 앉은 곳이 시인의 고향이 되었다.

집식구들이 그 아무리 피가 지게 일을 해도 가난은 물러 갈념 않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연약》한 산골판자집을 사정없이 위협했다.

온 가족이 굶어서 앓았고 장질부사에 걸려 몇달씩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복막염을 앓아 내내 누워 있었고 송기로 연명하는 집식구들의 얼굴은 퉁퉁 부어 올라 물결이 말이 아니였다.

그래도 드물게 나온 《고투리》만은 공부시켜 보자고 누이들은 때 이르게 머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었고 어머니는 달여 먹던 약마저도 끊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리하여 시인은 피방울 같은 훈전으로 대화공립국민학교 6학년을 마칠수 있었다.

가정의 비참한 현실을 본 때마다 매바우골이 불우한 소년은 자주 골막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손바닥만 한 하늘아래서 척박한 산에 《뭍이》위 한숨만을 퍼내는 《내집》의 래일이 아득하여 어린 마음에도 가난이라는 아픔을 어른스럽게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마저도 늦장을 부리며 왔다가는 일찍 가버리는 고향, 어린 소년은 자연이 《못마땅》한 《행동거지》마저 다 가난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린 마음속에 가난에 대하여 또박또박 써나갔다.

가난이란

해 짧은 내 고향

왔다가는 인츰 가는

저 빨간 해

가난이란

궤진 내 바지주머니

우리 할멈 채 못기운

누더기이불

가난이란

앓는 우리 엄마

밤마다 나 죽어
소리치는 고향
...

(시 《가난》 중에서)

끝날것 같지 않은 가난에 대한 풀이었다.
허나 그 가난을 나라 없는 설움이 낳은 슬픔으로
간직하기에는 시인의 가슴이 아직은 작았다.
돈 없는 가난, 쌀 없는 가난해도 해도 견딜수 없
는것이 나라 없는 《가난》이었다.
이무렵 옆친데 덮친격으로 아버지는 징용으로 일
본 규슈 후쿠오카의 탄부로 끌려 갔다.

그러다가 밀선을 타고 도망쳐 온것이 주체34(19
45)년 5월이 였는데 어머니는 살아 돌아온 아버지
를 붙어 잡고 울다가 그만 이틀후에 한 많은 세상
을 떠났다.

이런 불우한 어린 시절이, 아픈 《눈송이》 시절
이 시인의 백발속에 감추어 져 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두번째 아픈 《눈송이》 시절은
1980년대 초엽이었다.

시인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신임에 의하여 주체
57(1968)년 7월부터 주체71(982)년 9월까지 작가
동맹 시문과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해도 잘 들지 않는 십산유곡의 《산골놈》이 나
라의 시문학을 책임진 일군으로 되었으니 그야말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어불성실》이었다.

우리 당은 언어가 닿지 않을 정도로 이렇듯 인간
을 눈 부시게 닦아 놓았다.

이 하늘 같은 사랑에 다른 심장이 한번 펄 때 열
번, 스무번을 고통쳐서라도 보답해야 할 시인이 사
업에서 자유주의, 생활에서 절제없이 술을 좋아한
탓에 해임되어 어느 제철소로 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인은 어제날을 잊고 살았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맞은 아픈 《눈송이》가 아직
뼈에, 살에 박히지 않았던것이다.

훈장과 메달이 열개나 넘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존
함이 모셔 져 있는 손목시계를 수여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열번을 고쳐 죽어도 보답못할 시
인이 파오를 범했으니 이런 배은망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시인은 자신을 두고 두고 저주하며 대오를 떠나
자신을 단련할 새로운 초소로 갔다.

이때가 주체71(1982)년 9월이었다.

그해 12월 27일 시인은 함숙 온돌방에서 생일50
뫼를 맞게 되었다.

의의 깊은 날이였고 또한 가슴 아픈 날이었다.

눈이 내렸다. 무슨 연고로인지 눈은 시인의 뒤를
아프게만 따라 다녔다.

그래도 부인이 성의껏 생일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

언제나 무거운 짐의 절반은 안해에게 얹혀 져 있

음을 모르는바 아닌 시인이었다.

그런데 수저를 들기전에 진행하는 공정 하나가
빠졌다.

《오늘은 구냥 자시우다. 어떻게 내려 온 몸이라
는걸 잊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좋아 하는 술을, 그리도 달게 들이키던 술
을 이 뜻 깊은 날조차 권하지 못하는 부인의 가슴
은 미여 지게 아팠다.

뒤에 감춰 둔 보자기안에서는 술잔과 소주 한병
이 울고 있었다.

《겉이 나오? 할수 없지.》

시인은 자리에서 일어 서더니 책상밑에서 꾸레미
하나를 가져 왔다.

《그건 뭐예요?》

부인은 의아하여 남편과 꾸레미를 번갈아 쳐다보
았다.

뜻밖에도 꾸레미안에는 술 한병과 메추리알들이 들
어 있었다.

《이건 웬거요?》

부인은 많은 말을 묻고 싶었다. 혹시...

《아까 부문당비서가 주고 가더군. 자기가 내는
헌법절 술이라나.》

술을 주의하라고 늘 오금을 박던 부문당비서가
술때문에 내려 온 령감에게 술을 준다는게 무슨 감
투꾼인지 부인은 리해가 안 갔다.

《여보, 그 메추리알을 좀 세보우.》

《그건 왜요?》

《얼마 췌는지 알아야 인사를 해도 똑똑히 할게
아니요.》

부인은 어이가 없이 웃었다.

《당신 그새 좀스러워 졌수.》

부인은 하는수없이 메추리알을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50알이었다.

부인은 눈물이 나게 고마왔다.

령감은 분명 술도깨비가 아니라 시인으로 이런
고마움의 울타리속에 살고 있었다.

시인은 술병마개를 열었다.

《자, 어서 감춰 둔 술잔이나 내놓소. 술은 안달렐
테니.》

부인은 하는수없이 술잔을 꺼내놓았다.

《당신은 술에 대해선 귀신이요.》

《무슨 소릴, 당신을 아는데서 귀신이지.》

내외는 오래간만에 마주 보며 웃었다.

부인이 부어 준 첫잔을 달게 들이킨 시인은 창밖
을 바라보았다.

눈이 참 소담스레 내렸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이지. 설...》

시인의 눈시울이 경련 일듯 떨었다.

시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부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해마다 설날이면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신년축하장을 받아 안고 감격에 겨워 하던 시인.

전사가 올리는 설인사 받으시기도전에 먼저 전사들에게 인사를 보내시는 그 하해 같은 사랑을 시인은 너무나도 잊고 살았다.

주체67(1978)년부터 주체71(1982)년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신년축하장이 시인의 가정에는 가보처럼 간수되어 있다.

1983년부터는...

두번째 잔을 들었으나 시인은 차마 넘길념을 못했다.

눈이 내린다. 티없이 깨끗한 흰 눈이...

누구보다 많이 맞아야 할 자책 많은 한 인간의 머리우에 눈은 그칠줄 모르고 내렸다.

자식에게 매든 어머니는 잠 못드는 법이다.

매 맞은 자식은 자고 속 썩인 부모는 잠들지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간 시인의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6개월만에 다시 그를 우리 당의 시문학대오에 불러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믿음을 또다시 받아 안은 시인은 《곰팡이》 껴던 붓을 다시 털고 먹이 아니라 심장의 피를 찍어 나갔다.

시인은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장군님앞에 몇몇한 시》, 《민족앞에 책임지는 시》라는 글줄을 그는 여러 책갈피마다 엄숙히 써놓았다.

시인의 인격을 이앞에서 총화 짓고 싶었다.

인격이라는 《언덕》을 향해 시인은 자기 인생을 꾸준히 채찍질했다.

그런데 어느덧 숨이 차고 힘이 진했다.

속일수 없는게 나이였고 감출수 없는게 기력이었다.

인격을 《못》 갖추고 이렇게 주저 앉는다고 생각하니 70나이가 한스럽기 그지없었다.

동민에게는 그 소박한 인격

로동자에게는 그 강인한 인격

애국이라는 이 하나에 목숨을 두고 사는

이 정 깊은 사람들기에

변변한 시 한편을 못 드린다면

내리는 눈이여

아예 흔적없이 나를 묻어 다오

내 살아도 살아도 더 살고 싶은것은

시의 날개를 타고 훨훨 날아 오르는것

나는 가도 시를 남겨 두는 그 소망이나니

(송년시 《눈송이》 중에서)

시인은 누구보다 오래 살고 싶었다.

민족앞에 진 《빛》을 갚기 위해서도 그는 백살이라도 더 살고 싶었다.

시인 박호범은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재능 있는 시인이다.

그는 한생에 700여편에 달하는 시작품을 창작하

여 우리 인민들을 힘 있게 고무해 준 공로 있는 시인이다.

그는 《빛》을 진것이 아니라 《빛》을 뿌린 사람이다.

그런 시인이 왜서 인생의 마지막 눈마저도 그렇듯 아프게 맞았던가.

송년시 《눈송이》에서 첫번째 부분이 시인과 인격이라면 두번째 부분은 인민과 인격, 세번째 부분은 장군님과 인격이다.

시인은 세번째 부분을 봉우리로 정해 놓고 자신을 세관제 채찍질했다,

《한해 삼백 예순다섯날 // 우리 장군님 걸으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걸음걸음 따라 설수록 그리고 《점점 오만해 지는 원썬들을// 그냥 내버려 둘수는 없어// 자주의 행군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를수록 시인의 인격은 점점 더 아득히 거리가 멀어 졌다.

절대적인 승배는 매혹으로부터 출발된다.

장군님께 매혹될수록 시인은 덧없이 내리 앉은 백발이 부끄러웠다.

우리 장군님의 인격이 하도 높아 장군님 바라시는 그 높이에 오르기 위해 한생 모지름을 써왔다면 결국 그는 인격을 《못》 갖춘 시인이 되고 말았다.

위인의 완성된 인격앞에 갓출래야 갓출수 없는 시인의 인격이었다.

아프지 않을래야 아프지 않을수 없는 12월의 눈송이었다.

그래서 그 《백발》이 더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2. 서정시처럼 깨끗한 눈송이

눈이여 눈이여 내리는 눈이여

너야말로 정 깊은 서정시와 같구나

끝없이 깨끗한

끝없이 애뜻한

끝없이 부드러운

끝없이 생각 깊은 서정 그자체가 아니냐

내려 다오

뿌려 다오

온 한해 불같이 달리며 불같이 산

우리 장군님의 동행자

이 나라 시인들의 머리우에

눈을 뿌려 다오

시를 뿌려 다오

...

(송년시 《눈송이》 중에서)

시인은 허리 굽혀 눈을 한웅큼 집어 들었다.

세상에 눈보다 더 티 없고 깨끗한것은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갈한것은 서정시 같았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인간이 다름

아닌 서정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시인의 손에서 하얀 《서정시》들이 녹고 있었다.
손가락짚으로 물방울들이 흘러 내렸다.
그것은 하얀 《서정시》에서 녹아 내린 시인의
어제날들이었다.

(1) 초빙강의

내가 작가양성반에 다니던 때 였다.
시인 박호범선생이 초빙강의를 한다는 희한한 소
식이 날아 왔다.
누구보다 으쓱한것은 나를 비롯하여 시를 전공하
는 동무들이었다.
소설과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동무들은 우리 《시
인》들을 붙들고 나이며 생김새까지 물어보았다.
이름난 시인이니 호기심부터 대단했다.
우리는 시인의 대표작과 성격, 취미까지 아는것
대답해 주었다.
드디어 백발의 시인이 교실에 들어섰다.
우리는 일제히 일어 서서 선배작가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다.
시인은 몸돌바를 물리 두손을 뻗뻗 내저으며 빨
리 앉으라고 했다.
이름난 시인이면서도 너무도 소박한 인간이었다.
교탁앞에 선 시인은 몹시 어색해 하였다.
부자연스러워 하는게 눈에 띄이게 알렸다.
서론다섯쌍이 눈동자들이 시인의 일거일동을 지
켜 보았다.
무슨 말부터 할것인가.
뜻밖에도 《교육자들이 용키는 용수다. 이렇게 뻗
히 쳐다보는 속에서 강의를 하니... 난 입이 떡 굳
어 지는게...》하고 시인은 작가양성반 12기와 첫
통성을 하였다.
와-하고 우리가 웃는 동안에도 시인은 다음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이러이러한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그 경위
에 대해 일사천리로 이야기하리라는 기대속에 우리
는 웃음도 순간에 잘라 버리고 시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시인은 작가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물음
을 제기하는것이였다.
어이가 없었다. 글 쓰는 사람이 작자라는걸 몰라
서 우리에게 묻는가?
《이 물음에 진짜 대답할수 있는 사람이 작가입니
다.》
시인은 진짜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시인은 마지크로 칠판에 《작가란 세상에 모든것
을 남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 모든것을
남에게 배워 주는 사람》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아홉살에 이 물음을 제기하고
머리 갓하얀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 답을 찾았다고
했다.
시인은 계속하여 작가는 체험의 산물이며 지식의

창고라고 했다.

《아는 시인한테는 못 견뎌니다. 그런데 요즘 일
부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칠판을 가리키며)
앞부분을 중요시하지 않고 뒤부분을 중시하는 경우
가 빈번합니다. 작가가 인민의 선생으로 불리우는
것은 백을 쥐여 짠 하나를 가르치기때문입니다.》
시인은 장시간에 걸쳐 작가로 준비해 가는 우리
들에게 교훈으로 된 귀중한 말들을 많이 해주었다.
그중에서도 력점을 짚은 말이 있었다.
《소설가이건 아동문학작가이건 서정시를 알아야
합니다. 서정시는 문학의 중추라고 말할수 있습니
다. 서정시를 모르고서는 진짜 문학을 할수 없습니
다.》
이때 소설을 전공하는 한 동무가 일어 섰다.
《선생님, 한가지 물어 봐도 좋겠습니까... 저는
소설을 전공합니다. 형상수단에 의해 문학의 종류
가 규정 지어 지는 조건에서 성격과 묘사를 전제로
하는 소설에 서정이 절실한 필요로 되는 그 요인이
라고 할지 그에 대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
다.》
시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물음을 제기한 《소설가》는 공연히 딱한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하여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마디로 짚어 말하기 어렵군요. 오직 동무가
빠 저리게 받아 들일 때만이 그것이 훌륭한 답으로
될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동무에게 내주는 숙제랍
합니다. 꼭 답을 찾길 바라오.》
후날 작가동맹 소설분과 작가로 된 그 동무는 나
에게 찾아 와 그때 박호범선생이 왜 서정시를 알아
야 한다고 말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자기 심정
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결국 그는 시인이 준 《숙제》를 푼셈이였다.
정말이지 잊을수 없는 초빙강의였고 다시 그리워
지는 그날의 《작가수업》이였다.

(2) 《큰》 머리, 《작은》 머리

작가양성반 졸업때였다.
졸업작품을 위해 우리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
장한 창작전투를 벌리였다.
우리 《시인》들의 작품지도는 박호범선생이 맡
았다.
나는 오래동안 준비해 온 장시를 졸업작품으로
박호범선생에게 보였다.
나도 《큰 머리》가 되고 싶었다.
시를 훑어 보던 시인의 눈이 쏘르르 지더니 좋다
는건지 나쁜다는건지 손바닥으로 수염볼만 쓸어만
지는것이였다.
《장시를 쓸래기 수고했겠구만.》
나는 뜻밖의 《과분》한 칭찬에 너무도 황송하여
끓어 앓은 두무릎을 손으로 슬슬 문다졌다.

시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서정시를 쓴게 있으면 보자고 하였다.

나는 장시에 힘을 넣다보니 다른 작품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서정시를 쓰라. 시의 본도는 서정시야. 서정시 한편 똑똑히 못 써가지고 무슨 장시야? 남들이 장시를 쓰니 나도 해본다는 식이야? 넌 그만한 준비를 갖추자면 아직 멀었어.》

시인의 말은 준절하였다.

나는 역시 《작은 머리》였다.

자기가 자기를 뒤늦게나마 안다는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언젠가 편집부에서 박호범선생에게 작품을 청탁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 하여 나는 그의 집에 찾아 간 일이 있었다.

시인의 방에 들어선 나는 깜짝 놀랐다.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한 시인이 배개를 무릎에 고이고 무엇인가 쓰고 있었는데 그결에는 술한 책들이 쌓여 있었다.

미술, 음악, 건축, 역사...

나는 놀람기도 하고 한편 회한하여 시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선생님.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제야 원고지에 흰 머리카락을 한오리한오리 뽑아만 놓아도 시가 될텐데요.》

《모르는게 많아 그래. 모르고 쓴 시는 엉터리라는게 땡짱나거든.》

나는 머리가 숙여 졌다.

시인은 나에게 쓰던걸 마저 쓰고 작품을 토론하자고 양해를 구하였다.

나는 오히려 시인에게 방해가 될것 같아 미안스러웠다.

무심결에 책을 한권 집어 들었는데 책갈피에는 《문장훈련13》이라는 시인의 지필이 써여져 있었다. 나는 보지 말아야 할것을 보는것 같아 책장을 덮었다가 선배들의 문학수련이 나에게 좋은 경험으로 될것 같아 《주인》 모르게 다시 펼쳐 들었다.

문학을 위해 자기를 태운 흔적이 력력한 시인의 귀중한 재산이었다.

-나라를 잃을 때는 눈물을 뿌렸건만

나라를 찾을 때는 피를 뿌려야 했던

-머리를 들면

하늘에는 온통 기발의 바다

그 하늘에 열려진 무수한 창문들

그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주체의 화불

-백두산은 수령님의 그 자옥을

두팔 벌려 만세를 부르나니

-백두여, 누가 너에게

인간의 첫 온기를 주었더냐

-망설이다가

모대기다가

한밤중에 일어 나
감히 붓을 들었습니다.

몸은 누워도
마음만은 잠 재울수 없어

이제는 버릇이 되었나 봅니다
자리에 누울 때
잠에서 깬 때
내 집의 창문을 넘어
조용히
당중앙청사를 바라다봄은

이것은 《문장훈련13》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문장훈련13》의 앞선 번호가 새겨진 책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시인이 서정시 한편한편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만은 알수 있었다.

역시 《큰 머리》는 《큰 머리》였다.

내가 편집부에 갓 배치되어 왔을 때 시인이 편집부에 작품을 써가지고 온 일이 있었다.

시인은 몹시 조심스레 작품을 꺼내놓았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시인앞에 작품을 내보이기조차 두려워 하던 내가 《큰》 시인의 작품을 받아들자니 손이 무거웠다.

시인은 가방에서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편집원의 《의견》을 적자는것이였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황해 하자 시인은 《문학앞에서는 흰 머리가 따로 없지.》 하며 어서 의견을 달라는것이였다.

나는 의견이라기보다 작품이 빠져 나가는 곱이 이러이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향을 물어보았다.

시인은 좋은 의견을 주면서 왜 빙빙 에도는 식으로 말하는가고 나를 나무람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편집부에서 우리 늙은이들의 작품을 덮어 놓고 좋다는 식으로 내보내면 시대에 뒤떨어 지기가 십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시인은 나에게 작품은 관록으로 쓰는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여 강조하였다.

발전하는 문학운동에 자기를 따라 세우기 위해 그렇듯 요구성을 높이는 시인앞에 나는 자신을 비취 보았다.

누가 《큰 머리》이고 누가 《작은 머리》인가를.

(3) 《악습》

시인에겐 고질적인 《악습》이 있었다.

술과 담배를 몹시 《사랑》한것 이였다.

창작실에서나 집에서나 그의 손에는 언제나 모락 모락 연기 오르는 담배대가 쥐여져 있었다.

언제인가 시인이 편집부에 들렀는데 그때 그는

몹시 기침을 짓고 있었다.

그런속에서도 시인은 담배를 꺼내는것만은 잊지 않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기침하면서 무슨 담배를 또 태웁니까?》

나는 시인의 건강이 넘려되어 한마디 했다.

《요새 기관지가 덜컹덜컹한게 밤에 잠두 제대로 못 자겠다니까.》 시인은 또 기침을 했다.

원인은 불 보듯 뻔했으나 그는 기관지를 욱하면서 담배는 욱하지 않았다.

지독한 애연가였다.

그만큼 담배 《덕》도 톡톡히 보았다.

그에게는 담배불로 하여 성한 옷이 별로 없었다. 여름옷이건 겨울옷이건 개미굴처럼 담배불구멍이 숭숭했다.

그 담배불구멍은 금방 사입은 새옷도 가릴줄몰랐다.

부인이 시인에게 와이샤쓰를 사준 일이 있었는데 그는 하루도 못 넘기고 앞자락에 담배불구멍을 냈다.

아침에 입은 새옷을 이 지경 만들어 놓고 집에 들어 서자니 애들처럼 《욕》먹을 일이 아득하여 시인은 걸음이 무거웠다.

로친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

이리하여 그날만은 늘 손에 들던 가방을 보물처럼 가슴에 안고 집에 들어 갔다.

저녁에는 몰래 말썽 많은 그 담배불구멍을 밥알로 슬쩍 문져서 메워 놓았다.

이튿날 아침 출근하려고 샤쓰를 입는데 부인이 《령감 애들처럼 옷에 밥알은 왜 달구 다니우?》 하며 사연 많은 밥알을 떼주려 하였다.

시인은 얼른 돌아 서며 밥알을 떼는 시늉을 하더니 가방을 들고 손살갈이 달아났다.

다음날에도 그 자리에 밥알이 또 붙은것을 보고 부인은 밥알 떼기 꽤 힘들어 한다 하며 떨어 지기 힘들어 하는 꾀꼬리한 밥알을 애써 비벼 떼놓았다.

그랬더니...

이야기해 주는 시인도 웃었고 우리도 웃었다. 우리 작가들의 생활은 그 하나하나가 작품처럼 재미 있었다.

시인에게 담배처럼 가까운 《딱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술이었다.

그래서 늘 부인의 통제속에 살았다.

나쁜 애들과 놀지 말라고 타이르는 어머니처럼 부인은 늘 시인에게 오금을 막곤 하였다.

내가 시인이 부탁한 책을 가지고 갔을때였다.

시인에게 책을 쥐여 주고 돌아 서려는데 시인은 내 손을 붙들고 놓아 주질 않았다.

《그렇게 그냥 가면 못 써. 다른 사람들이 날 욱하거든.》

나를 놀려 앉힌 시인은 웃방과 아래방을 살살이 뒤지며 무엇인가 찾고 있었다.

술병을 찾는게 험등히 알렸다.

아마 부인의 통제가 실천으로 옮겨 지는 때 같았다.

《분명 있었겠는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면서도 시인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

지어 텔레비존전압소전기함까지 열어 보았다.

황소 잃고 단지뚜껑까지 여러 본다더니 손이 닿는데는 다 뒤져 보았다.

끝내 술병을 찾지 못한 시인은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로친네 손님이 왔는데 뭘 좀 올려 오라고요.》

부인이 방에 들어 서자 《흐흐》 하며 어린애처럼 웃던 시인의 모습이 잊혀 지기 않는다.

《저 령감 제가 술 자시구 싶으니까 선생을 꺼들이는거라우.》

부인은 웃으며 시인이 알지 못할 곳에서 술 한병을 꺼내놓았다.

시인은 술을 참 달게 들었다.

입술을 감쌀며 술잔을 비우는 시인을 보는것이 마시는것보다 더 좋았다.

부인이 김이 문문 나는 모두부에 양념을 무쳐 들여 왔다.

《령감, 쓴 술이 그렇게두 달우?》 하고 부인이 물자 《막 달아.》 하며 시인은 부인의 잔등을 두드려 주었다.

술보다도 주인의 정이 더 달다는 뜻일것이다.

다정한 오누이 같은 늙은 내외를 보며 나는 즐겁게 웃었다.

부인은 나에게 령감이 술만은 정말 깨끗하게 배웠다고 하면서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게 탈이라고 웃음 절반 걱정 절반 섞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시인이 백리밖에서 술을 자셨다 해두 꼭 제 집에 와서 늙는 성미라고 자랑에 가깝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아마 자신이 엄격한 통제자라는걸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그러나 그 말에는 술에 끌려 다니지 않는 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주어져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시인이고 작가였다.

시인이 고질적인 《악습》만은 끝내 고치지 못했으나 인간은 무척 순박하고 솔직했다.

그래서 그의 서정시도 그렇듯 꾸밈이 없고 솔직했을것이다.

(4) 깨끗한 《백발》

시인과 함께 오래 생활해 온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해준적이 있다.

《박호범선생은 문학앞에서 확실히 성실하고 량심적인 사람이요. 하얀것은 하얗다고 하고 검은것은 검다고 하는 순직한 시인이거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오?)

…시인의 집에 지방에서 올라 온 낯 선 문학통신원이 찾아 왔다.

마흔살가량 돼보이는 통신원은 시인과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구면처럼 아주 삼삼하게 행동했다.

방에 들어 선 그는 묵직한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마련하려고 웃음도 해볼 정도로 마구 랑비하였다.

시인이 찾아 온 용건을 묻자 그는 가방에서 문건 봉투 같은것을 꺼내놓는 것이었다.

작가동맹 《가맹신청서》였다.

그가 펼친것은 《가맹보증인》란이었다.

이름난 시인의 보증이 필요한 것이었다.

시인은 그의 창작카드를 훑어 보았다.

그러는 동안 《손님》은 가방에서 구렁지에 싼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이었다.

시인앞에는 《뗏》있는 담배도 한팩 내놓으며…

창작카드를 다 보고 난 시인은 그에게 물었다.

《동문 50권을 창작했는데 작가동맹기관지에 발표된건 12편밖에 안되누만. 20편을 도방송에 냈다고 썼는데 그걸 어떻게 보증하오?

그리고 난 동무가 쓴 작품을 한편도 기억한 것이 없소.》

문학통신원은 지긋게 달라붙었다.

《선생님,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테니 수표만 줘…》

《임잔 안되겠네. 시작을 그렇게 뻗으니 앞으로도 안될거요. 돌아 가오.》

시인은 단호히 잘라 버렸다.

《손님》은 황황히 달아나버렸다.

이때 부인이 방에 들어 와 시인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온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먹을거라면 먹어야지. 내가 말해 주는건 뭐 공판줄 아오?》

《욕 먹는것두 갖다 바쳐야 하우?》

《제 정신없이 다니는걸 정신 차리게 해줬는데 두…》

시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깨끗한 《백발》앞에 다시금 머리가 숙여 졌다.

불현듯 얼마전에 그가 쓴 《수류탄 두알》이란 시가 생각났다.

물기둥이 길길이 솟구치던

락동강도하전투의 밤

나는 그만 물결에 떠밀리우며

허리에 찼던 수류탄 두알을 잃어 버렸다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수십년

내 오늘에야 고백하노니

나는 그날 수류탄을 잃어 버렸다고

분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내 언제면

락동강에 뛰어 들어

그날의 수류탄을 찾아 들고

옛 분대장앞에 나설것이나

오, 오늘도

가슴속에

수류탄 두알

매달려 떨어 지지를 앓네

터치지 못한 수류탄, 터치지 못한 량심이

수십년세월 시인의 가슴속에 시한탄처럼 매달려 있던 수류탄 두알이 마침내 터졌다.

량심의 폭발소리를 우리는 들었다. 이런 시인이기에 독자들은 그의 시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여기에 그가 남긴 일기장의 한토막을 찍는다.

《…최영화가 입원해 있는줄 알면서도 준비한 것이 없다고 하루하루 미루고 있다. 난 작가의 의리가 정말 없는 놈이다. 꼭 가보겠다. 로친이 좀 힘들어 할거다.…”》

《…각혈로 자리에 눕다나니 오늘 당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정신이 흐려 질 때마다 내가 빛을 남기고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까지 당생활을 잘 해야겠는데…》

그는 한생을 서정시처럼 산 시인이었다.

3. 영원한 행군길에 내려 지는 눈송이

흰 눈우에 시인의 발자욱이 무수히 찍혀 졌다.

눈 덮인 대동강반을 그 몇번 오갔는지 모른다.

힘에 부쳤는지 시인은 눈이 한벌 깔린 돌결상에 털썩 주저 앉았다.

숨을 돌리며 눈우에 찍힌 발자욱을 보니 불현듯 처녀작이 발표되던 때가 생각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6월2일부 《승리에로》라는 전선신문에는 시인이 난생 처음 쓴 《행군》이란 시가 실렸다.

그때 온 중대가 경사난듯이 시인을 둘러쌌다.

중대장이 시인에게 다짜고짜 물은 말이 걸작이었다.

《호범이, 이 시를 동무가 쓴게 맞아? 신무사에 물어 보니 다른 박호범이라던데…》

《절대 그럴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나라에 무슨 박호범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온 중대가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중대장은 신문 권 손을 머리에 쳐들며 다 들으란듯이 소리쳤다.

《호범동무는 오늘 혼자서 적 한개 중대를 잡아 치웠소. 그보다 더 많으면 많소. 이 시는 중대의 자랑이며 영예요.》

토지개혁때 땅을 안 내놓겠다고 뺨대는 자기 마

을 지주를 골반기루 넘어뜨렸다는 중대장이다. 그런데 그놈이 거품을 물고 버드리지가 죽은줄 알고 마을뒤산에 숨었더랬는데 밤새 남으로 술가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풀이로 지주집 사랑방에 놓여 있던 커다란 도자기(물독크기만 한것 같다.)를 다시 골반기로 깨버렸다는 사람이다.

이마가 흰칠한 그는 아무때건 지주놈의 골통이 자기 이마에 닿을 때가 있다고 욱욱 버르고 있다.

중대장은 시인에게 어떻게 시를 쓰게 됐는가고 물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시인은 망설였다.

눈우에 찍혀 진 전우들의 발자욱, 진격의 길에 찍혀 진 부대의 발자욱을 보며 승리의 《행군》을 생각한 시인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앞에서는 《연설》을 해야겠는데 그로서는 아무래도 자기 생각이 《멋》진 말 같지 않았다.

시인은 끝내 《연설》을 못했다.

그러나 전사들은 머리를 수그린채 말 못하고 서있는 시인에게서 많은 말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눈을 맞으며 흥안의 시절을 돌이켜 보는 것이 시인에게 즐거운 일처럼 생각되었다.

늙은 육체는 멈추어 섰어도 추억은 조금도 힘든 내색없이 시인의 젊은 시절로 또다시 《행군》해갔다.

...주체39(1950)년 8월 중순경에 시인은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다. 조국이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군복 입은 세대였다.

어찌 보면 사랑과 증오가 최고의 경지에서 표현되는 이 조국해방전쟁이 인간 박호범을 시인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38° 선 소양강계선에서 방어전투를 하던 때였다.

폭격에 도로들이 끊어 지는 바람에 식량이 닿지 못해 몇끼씩 굶으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통강냉이알도 총알처럼 세여 먹으며 싸웠다.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에 부대에서는 훈장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시인에게 군공메달이 수여된것이었다.

시인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화전민의 아들이 훈장을 받았다는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꿈 아닌 현실이었다.

시인은 잠자리에도 군공메달을 달고 누웠다.

그런데 왜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군공메달 받은 《값》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인은 자기와 함께 군공메달을 수여 받은 중대의 천하렬이라는 병사와 《도적》전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군공메달을 타고 가만 있으면야 우리가 무슨 도리가 됐느냐 하는 시인의 말에 선뜻 응해 나선 정주래생의 《수훈자》였다.

전투의 목적은 중대의 긴장한 식량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군공》을 위해 그들은 어둠을 타고 은밀히 현지로 떠났다.

달도 없는 밤이지만 두사람의 가슴에서는 군공메달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하기도전에 적들에게 발각되어 사격권안에 들게 되었다.

생명을 집어 삼키는 불줄기들이 두사람의 머리에 사정없이 쏟아 졌다.

날이 푸름히 밝을무렵에 그들은 부대로 돌아 왔다. 시인의 잔등에는 식량배낭이 아니라 부상당한 전우가 업혀 저 있었다.

부상병은 곧 군의소로 후송되었다.

이튿날 대대군무자총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시인의 무규률적인 행동을 두고 심각히 토론되었다.

누군가는 때가 때이니만치 전시법이 적용돼야 하다고까지 했다.

맨나중에 김상갑이라고 하는 특무장이 토론했는데 그는 시인에게서 군공메달을 박탈하자고 제기했다.

시인은 눈앞이 아찔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특무장이 그렇게까지 나울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누구보다 자기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주던 그가 그런 못 박힌 말을 할줄이야...

《난 못 내놓겠습니다. 특무장동지가 뭐길래 나라에서 준 훈장을 내놓으라 말라하는겁니까.》

시인의 말이 떨어지기도전에 비판의 《포화력》이 우박처럼 쏟아 졌다.

엇그제 뿜고 온 포화력보나 더 맵짠것이였다.

김상갑특무장은 머리를 숙인채 묵묵히 서 있었다. 허나 시인은 이것만을 물랐다.

김상갑특무장이 군무자총회가 열리기전에 정치부에 찾아가 자기가 받은 군공메달을 먼저 바쳤다는것을...

특무장으로서, 당원으로서 자기가 구실을 못한 탓에 박호범동무가 그 지경이 되었다고 스스로 책벌을 청한 미더운 상관이었다.

이때가 주체40(1951)년 3월이었다.

그로부터 다섯달후 김상갑특무장은 854.1고지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후날 시인이 시에서 표현한것처럼 그가 메달을 달아 본것은 해가 뜨던 그 한순간과 같았다.

이렇게 돌격전에 나갔다가 돌아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산 사람들의 가슴에 단 훈장과 메달이 그렇듯 눈 부신것이였다.

오늘은 명절

그래서 나는 가슴에 훈장을 단다

크고 작은 훈장마다에

내 인생이 비껴 있지만
나는 군공메달을 제일 사랑한다
...

가슴에 다는 훈장마다
명절의 기쁨이 실려 있지만
이 작은 군공메달에서만은
그날의 포연내가 물씬 거린다

(시 《군공메달》 중에서)

곳은 일 마른 가리지 않고 돌격전에서 언제나 용감했던 소설의 주인공과도 같은 김상갑특무장은 시인이 한생토록 잊지 못한 추억속의 전우였다.

김상갑특무장은 시인에게 당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우쳐 준 첫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시인의 가슴에선 당원에 대한 열망이 새싹처럼 움 트기 시작했다.

쌍무령계선에서 적들과 싸울 때도 이 생각이었고 미25사놈들과 조우한 최전선에서 지뢰를 매설할 때도 이 생각이었다.

언제면 나도 당원이 될수 있을가.

주체41(1952)년 4월 3일 드디어 시인은 것처럼 소망하던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때를 회고하여 시인은 자기의 작가수집에 이렇게 썼다.

《...입당청원서를 읽어야겠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게 막 안타까웠다. 나는 내자신이 입술을 깨물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나는 울음을 한입 물고 있었다.

지난 날 실음 그리고 오늘의 고마움과 기쁨이 한데 엉켜 꼭 다문 나의 입술을 힘내기로 밀고 있었다.

끝내 그 입술사이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정치부대대장이 진정하라는 권고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입당청원서를 읽었다.

아마 희생된 김상갑특무장이 생각나 더 운것 같았다. 그다음은 돌아 가신 어머니생각이 나서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이렇듯 시인을 민청원으로부터 조선로동당원으로 성장시켰다.

그로부터 두달후인 주체41(1952)년 6월부터 시인은 제대될 때까지 1211고지에서 싸웠다. 당원으로서 그는 민청원때보다 더 용감했고 원쑤앞에서는 보다 무자비했다.

각성된 무비의 용감성은 그를 새로운 군공수훈자로 도약시켰다.

나라에서는 그의 전투공로를 평가하여 전사영예훈장 2급과 군공메달을 수여하였다.

이리하여 조국해방전쟁기간에 그가 받은 훈장과 메달은 3개에 달하였다.

공로 있는 전쟁참가자였다.

그가 받은 훈장과 메달은 곧 그의 서정시였다.

그는 결코 책에서 시를 배우지 않았다.

나는 책에서 시를 배우지 않았다.
전호에서 배웠고
전호에서 시를 썼다

포연이 훑날리는 고지에서
최후를 앞둔 우리 중대장이
피 젖은 가슴에서 꺼내들던
아, 아들애의 그 첫돌사진

타다 남은 길가의 집
주인을 잃은 감나무에서
파편 널린 마당에 떨어 저
피갈이 터지던 아, 그 감알들

이래서 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언제나 보병삽주머니엔 작은 수첩 하나
시라기보다
울분을 토했다

...

시의 뜨거움은
피의 뜨거움
피와 땀과 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시를 써낼수 있다거나

나는 가리라
나는 쓰리라
방울방울 병사들의 그 피와 땀으로
붓을 적시며

(시 《병사와 시》 중에서)

그는 명실공히 병사시인이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호에서 시를 배웠고 총탄이 우박치는 고지에서 원쑤를 노려 보며 시를 쓴 화선시인이었다.

시인은 《기름진 땅》이라고 쓴 자기 책의 첫 갈피에 이렇게 썼다.

《우리 집안에서 소학교 문앞에 가본 사람은 내가 첫 사람이다.

나는 군대에서 시를 배웠다.

광복되는 해에 즉 열세살때에 레배당, 공회당 교서점에 굴러 다니는 우리 고전문학들과 세계문학선집들을 탐독하게 되었다.

...정전이 되면서 사단정치부 도서주임을 하였는데 이때 많은 책을 읽었다.

내가 문학신문사 국제부장으로 있을 때 보다 많은 서적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때 아마 우리 나라에서 출판한 문학책은 거의 다 읽은것 같다.

여기애다 젊은 시절 군대에 나가 있으면서 체험한 생활이 합쳐 저서 일생 문학의 길을 걸어 올수 있었다.

그런 연고로 나는 나 자신이 병사시인이라는 자부를 가지고 있다.》

하기에 주체64(1975)년에 출판된 그의 시집제목도 《영원히 행군길에서》였다.

병사의 《행군》으로 시작된 그의 서정시는 병사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시집에 올라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1, 2, 3)는 시인의 산 체험으로 하여 독자들속에 깊은 여운을 남긴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42(1953)년 6월호 전선신문 《승리로》에는 시인이 쓴 서정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 전선과 후방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사실 본래 그 시의 제목은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나이를 대폭 줄িয়ে 어머니가 되었는가.

설악산계선에서 싸울 때인지 어느 날 중대장은 전사들에게 편지를 한통씩 쓰라고 명령했다.

2시간후에 후방차가 떠난다는것이다.

《편지를 쓰오. 어머니와 안해에게 눈이 번쩍 뜨이게 말이요.》

중대장은 어머니와 안해라는 말에 그루를 박았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신통히 없는 대상들이었다.

하는수없이 시인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가는 또 쓰고...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인은 《힘들게》 쓴 편지를 북북 지우고 이번에는 시로 쓰기 시작했다.

시로 쓰니 글줄이 명주실 풀려 나오듯이 슬슬 쏟아져 나왔다.

확실히 나에게는 시적재간이 있구나 하는 은근한 자부도 가지며...

그런데 이때 《통천어죽》이라고 하는 전사가 시인을 찾아 왔다.

통천에서 태어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죽자랑을 늘어 놓아 그런 별명이 붙었다 한다.

입대한지 1년도 채 안되는 《꼬마》를 시인은 늘 사랑해 주었다.

《분대장동지, 편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써야 할지...》

《안돼. 편지만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는 비밀이란 말야. 군사비밀만 있는줄 알아?》

시인은 단호히 거절했다.

《인사말은 다 썼는데 내용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꼬마》는 시인에게 편지를 내보였다.

편지에는 뜻밖에 두줄밖에 써여 있지 않았다.

《누이, 귀채만강하,

립신 문안공배수》

시인은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무슨 편질 이렇게 썼어?》

《우리 마을에서는 다 그렇게 씁니다.》

리해하기 힘든 한자투성이 옛 문투를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편지의 《고급》한 인사말로 그대로 따로 외웠던 통천전사였다.

시인은 편지의 고유단 생리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지 않아?》

《꼬마》는 갑자기 웃음을 거두더니 고개를 푹 숙이였다.

《어머니는 내가 군대에 나오기 한달전에 미국놈 폭격에 돌아 가시고 누이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때 미국놈들에 게 생매장... 흑... 남은건 초등학교에 있는 누이동생뿐인데... 전 주소도 잘 모릅니다.》

시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할수도 없었다.

기다려 줄 사람이 없는 고향, 보낼 곳도 없고 받아 줄이도 없는 이 편지...

시인은 자기가 쓴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어쩐지 통천《꼬마》앞에서 여간 죄스럽지 않았다.

아니야, 고향에 기다려 줄 사람이 없고 편지 한장 받아 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 너의 고향사람들이 바로 너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누이들이다. 우리 편지를 쓰자. 미국놈들 보란듯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자.

시인은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북북 지우고 다시 써나갔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것은 전선의 아들들이 이 나라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또 어느 한집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집집을 두드리는 싸우는 전선의 소식이었다.

어머니! 제가 편지를 씁니다

공을 세우기전에는

문턱을 넘어 서지 말라던 어머니에게

오늘은 훈장을 탄 기쁨에 못 이겨

이 아들이 편지를 씁니다

언제 가면 철이 들겠느냐고

강에 가면 물이 깊다 근심이지시켰고

산에 가면 산이 험하다 걱정이지시켰고

나를 늘 《첫째야》하고 불러 주시더니

입대하는 날 아침에야

처음으로 내 이름 부러 주시던 어머니

제가 여섯번째로 습격에서 돌아 온 아침

나도 놀라게 큰 훈장을 받고 보니

그 기쁨은 자꾸만 어머니에게로 달려 가고

그렇건만 아직도

첫째로만 외우고 계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끝이 믿어 주실는지요

생각나시나요 어머니
 제가 월사금을 달라고 조르다가는
 구리동전위에 백로지를 놓고 연필을 문다쳐
 백개도 넘는 돈을 그려 내던 그때를,
 그럴 때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부엌으로 나가시여 소리없이 우시었지요

어머니, 편지를 자세히 보세요
 혼장우에 종이를 눌러
 혼장자리를 낸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더 보아 주십시오

어머니가 기뻐 하실 이 혼장
 온 마을이 떠들썩할 이 혼장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께서
 평범한 이 전사의 군공을 치하시여
 전선으로 보내주신 이 혼장

오늘은 하나의 혼장을 달았지만
 고향으로 돌아 가는 그날에는
 누이를 생매장한 그 원쑤,
 고향을 불 태운 미제원쑤를
 이 땅에서 모조리 쓸어 버리고
 돌아 가는 그날에는
 이 넓어 진 가슴을 혼장으로 채우고
 이 아들은 돌아 가리라
 어머니, 나의 어머니시여
 (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1))

전호벽에 기대여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던 옛 시절이 그리워 시인은 머리에 흰 서리를
 엮고서도 자주 부대를 찾곤 하였다.

새파란 젊은이들이, 조국수호의 교대자들이 어제
 날 자기 세대들이 피로써 사수한 조국의 고지를 믿
 음직하게 지켜 가고 있었다.

총 잡은 그들의 청춘시절이 부러웠다.

총을 쏜 병사여
 나도 병사였다
 그대가 서 있는 이 험준한 산마루에
 총 잡고 내가 서 있었다
 멀리 흘러 간 그 피 끓던 시절에

그래서 감회는 이리도 뜨거운것인가
 내가 파 올린 저기 저 전호
 내가 묻은 저 골짜기의 지뢰원
 이 산마루에 목숨을 맡겼던
 그 젊은 시절처럼
 내 다시 총 잡고 여기에 설수는 없는가
 그대를 찾아 온 이 로병에게
 그 총을 메워 다오

이 백발에 그 철갑모를 얹어 다오
 (시 《청춘시절은 병사시절》중에서)

언제인가 편집부에 왔던 시인과 함께 뺨스를 탄
 적이 있었다. 내결에는 편집부에 왔던 소설가도 있
 었다.

뺨스가 어느 정류소에서 몇자 우리앞에 빨간령장
 의 애송이병사가 서는것이였다.

코밑에 숨털이 보시시한게 군대에 나온지 얼마
 안되는 풋병사였다.

시인은 《규정위반》으로 병사의 군모를 벗기더
 니 자기 머리에 올려 놓는것이였다.

군모를 벗기우자 병사는 부끄러웠던지 손바닥으
 로 머리를 가리웠다.

시인은 뽀독뽀독란 허연 수염볼을 쓸어 만지며
 어린애처럼 웃었다.

병사도 따라 웃었다.

아마 백발우에 군모를 올려 놓은게 여간 우습지
 않은 모양이다.

《할아버지, 멋 있는데요.》

진짜 《멋》있었다.

잠시 없어 본 그 《오각별지붕》아래서 한생토록
 붓을 버린 시인 《할아버지》라는걸 병사는 알리
 없었다.

군모를 썼던 젊은이는 더 팔팔해 보였고 군모아
 래 《백발》은 류달리 젊어 보였다....

시인은 대동강반의 돌결상에서 일어 나 다시 눈
 발속을 걸었다.

추억 많은 눈송이, 시인이 한생을 불러 맞은 눈송
 이는 새 세기 첫 해와 작별하는 《조선문학》(주체
 90(2001)년 12호)지면에 그대로 찍혀 졌다.

송년시 《눈송이》가 지면에 발표되자 작가들과
 독자들속에서 그 반향이 대단했다.

지방에 있는 작가들은 편집부에 전화로 축하의
 인사를 연방 보내여 왔다.

그 인사를 전해야했기에 설날아침에 나는 시인의
 집을 찾아 갔다.

그런데 이 기쁜날조차 시인은 자리에서 일어 나
 지 못하고 있었다.

《선생님, 부디 앓지 마시고 우리 <조선문학>을
 계속 도와 주십시오.》

나는 고마운 시인에게 술 한잔 부어 드렸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좋아 하던 술도 한잔 입에
 대지 못하였다.

얼굴은 몹시 흘쭉해 졌고 꺼꺼부정한 허리는 더
 굽어 보였다.

대신 허연 수염만이 잔디처럼 돌아 얼굴을 덮었
 다. 시인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썩 석싹했다.

《새해에도 좋은 글 많이 쓰라구.》

이것이 내가 들은 시인의 마지막말이였다.

그로부터 보름남짓한 어느날 편집부에 작가동맹

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박호범선생이 돌아 가셨다는 뜻밖의 비보였다.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렇게 가다니? 70나이가 뭐가 그리 많다고...
 이제는 우리 독자들이 박호범선생의 시를 다시는
 볼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무거운 걸음으로 빈소를 찾으니 낮 익은 작가들
 이 많이 와 있었다.
 부인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 갔다.
 보름전만 해도 글을 잘 쓰라고 당부하던 시인이
 고인이 되어 누워 있는것이였다.
 저 누워 있는 자리에서 아픔에 신고하며 송년시
 를 썼던 시인이였다.
 잔을 받쳐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선생님, 한해를 보내우라고 했지 한생을 보내우
 라고 했습니까? 어쩌서 대답이 없습니까.》
 나는 물었다. 재주를 받쳐 든채 울고 또 울었다.
 조객들은 그칠줄 몰랐다.
 나라의 재사를 또 한명 잃은것으로 하여 그들은
 진심으로 슬퍼 했다.
 이날은 주체91(2002)년 1월19일 가슴 아픈 날이
 면서도 너무나도 레사로운 날이였다.
 시인의 령구가 발인되는 날 아침에 신기하게도
 눈이 내렸다.
 《눈송이》를 쓴 시인의 마지막길을 보내주라고
 하늘에서 내려 보낸 눈송이는 아닌지...
 시인들은 한결같이 이 눈은 박호범선생의 눈이라
 고 했다.
 눈을 맞으며 세상에 왔던 시인은 눈을 맞으며 갔
 다.
 그러나 그의 서정시는 가지 않았다.

선군혁명문학의 영원한 행군길에 깨끗한 《눈송
 이》는 언제나 대오와 함께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기억속에, 우리 인민의 기억속
 에 그의 서정시는 퍼덕이며 살아 숨 쉬고 있다.
 병사들이 리용하는 중대교양실 책상위에 놓여있
 는 탁상교양자료에도 시인이 쓴 《마지막 한발》이
 오늘도 군인들의 심장을 세차게 끓여 주고있다.
 영생이란 결코 멀리 있는 말이 아니였다.
 백발우에 군모를 엮고 어린애처럼 기뻐 하던 시
 인 박호범, 이것이 내가 아는것 그대 본 시인의 모
 습이다.

추억은 가버린 시절의 고향집
 어머니 여닫던 키 낮은 쪽문이나
 만나고 헤어지며 나는 우정
 사진첩에 남겨 둔 그리움이나

가슴에 주렁주렁 매여 달린 혼장
 조국에 기쁨될 아들의 권리이나
 몸과 마음 못다 바친 안타까움 있어
 한생을 다시 살고 싶은 아픔이나

추억은 제 혼자 울고 웃다 생을 마치는
 이것이 목숨 가진 인간의 추억이라면
 조국에 남는것이 무엇이라

내 어머니 내 이름 옹하다 불러 주었듯
 내 조국이 내 이름 장하다 불러 주는
 아, 이 한마디에 다 있었구나
 몸은 가도 두고 갈 나의 추억아

(시 《추억》)

가사

3 대장군의 군대

계정균

일당백 인민군대 우리 군대는
김일성대원수님 창건해 주신 군대
 위대한 백두전법 이 땅에 펼치는
 세상에 다시 없는 3대장군의 군대
 영광 빛나라 3대장군의 군대

강철의 인민군대 우리 군대는
 김정숙녀장군의 높은 뜻 이은 군대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지키는

세상에 다시 없는 3대장군의 군대
 영광 빛나라 3대장군의 군대

백승의 인민군대 우리 군대는
김정일장군님 령도하시는 군대
 선군의 붉은 기치 펄펄 날리는
 세상에 다시 없는 3대장군의 군대
 영광 빛나라 3대장군의 군대

극적정황의 설정과 심리묘사

리순철

인간과 그의 생활을 묘사를 기본으로 하여 반영하는 소설문학에서 인물들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심리묘사이다.》

등장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보여 주는 영화나 연극작품들에서는 작가들이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들어가 그것을 펼쳐 보일수 없으며 인물들의 정신세계의 움직임을 표정이나 행동, 대화를 통하여서만 표현할수 있다.

소설은 심리묘사로써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고 성격형상의 위력과 수단인 여러가지 심리묘사수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데 따라 형상의 질적수준에서는 많은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조국해방전쟁주제 장편소설들인 《50년여름》, 《조선의 힘》은 논의하여 볼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 주며 주제사상의 총적해명을 위하여 이야기를 꾸미고 여러가지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활용하는데서 노리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대목을 어떻게 설정하고 묘사하는가 하는것은 작가들의 창작적의도를 응당한 수준에서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장편소설 《50년여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서울에 자리 잡은 전선사령부에 찾아 오시여 하루밤을 꼬박 지새우시며 대전포위작전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장면에 대한 감동 깊은 묘사가 있다.

작가는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깊이있는 내면세계의 개방을 위해 첨예한 극적정황을 설정하였다.

미제침략군의 우리 전선에 대한 로골적인 전면개입, 이로부터 인물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긴장과 초조, 불안감 등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매우 긴박한 극적정황이 제시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사령부에서 사령관 김책과 참모장 강건이 주도세밀

하게 작성한 대전작전안을 검토하신다.

어디엔가 빈 구석이 있는것 같으시고 마음에 꼭 두시지 않으신다. 왜, 무엇때문일까?...

전선사령부일군들과 강부관마저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수령님께서서는 대전포위에 대한 사색을 무르익히신다.

그이의 사색세계에는 언젠가 외국기록영화에서 보신 미드웨이해전과 사이판도상륙작전의 몇개 장면도 비쳐 들면서 맥아더의 작전적안목과 특기, 기질적약점... 등이 파악되신다.

그렇다면 맥아더가 떠나보낸 미1기병사단의 상륙작전지점은 어디로 설정될것인가? 끊임 없는 사색을 이으시는 수령님의 깊으신 심연속에는 우린 전선의 전반적형성과 자연지리적환경, 부두들의 상태까지도 가늠되시여 마침내 맥아더의 작전안을 명철하게 꿰뚫게 되신다.

사색을 이어 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 오시여 너무도 엄청난 대비속에서 치렬한 전투를 치르게 될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모습도 어제날의 인연속에서 감명 깊게 그려 보신다. 그러시면서 우리 전사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고야 말것이라는 철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드디여 대전해방작전안을 세우신다.

참으로 대전해방작전을 앞둔 긴박하고 첨예한 환경속에서 일어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복집다단한 내면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심리세계의 부단한 엇바뀔을 따라 가면서 생동하게 묘사한 이 장면은 몇개의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시말하여 작품의 전반적형상체계에서 이 기를진 화폭이 차지하는 위치와 뒹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상을 집대성하여 립체식으로 보여 주었다는데 있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갈래, 만갈래로 움직이는 내면심리세계의 부단한 엇바뀔, 즉 예측과 타산, 희망과 현실, 추억과 환영, 탐도와 결심 등에 대하여 해부학적으로 분석묘사하였다.

하여 작품에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 그 누구도 따를래야 따를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로서의 탁월한 명군술, 우리 전사들의 자애로우신 어버이로서의 걸출한 위인적품모를 깊은 정서속에 감동 깊게 펼쳐 보여주게 되었다.

또한 이 심리묘사의 예술적화폭은 작품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제1계단에서 불패의 힘으로 미제를 타승한 위대한 승리의 요인과 비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품모와 탁월한 력도, 수령님의 두리에 철옹성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에 그 비결이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대전해방전투는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단계에서 보면 절정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작품이 제시한 기본문제를 완전히 결론 지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이미 여러 정확과 계기들에서 강조되어 온 문제들을 총적으로 결론하기 위하여 작가는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대전해방전투의 구체적이며 생동한 화폭이 창조한 묘사의 초점을 집중한것이 아니라 긴박하고 첨예한 환경속에서 일어 나는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깊이 펼쳐 보이는데로 지향하였다.

따라서 작가는 그 어떤 거대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전투의 구체적인 묘사로서도 실현할수 없는것을 심오한 풍부한 내부체험세계의 묘사를 통하여 작품이 주제사상해명에서 자기의 사상미학적무를 훌륭히 달성하였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에서 극적정황의 서정과 심리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추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의 창작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도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이 일시적후퇴시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제분들과 작별하시는 극적정황속에 펼쳐 진 위대한분들의 뜨거운 인정세계를 녀성인 문화선전상 허정숙의 체험세계에 비쳐 묘사한 눈물없이 볼수 없는 장면이 있다.

몇명의 일군들과 함께 방송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들어 서던 허정숙. 그는 뜻밖에도 수령님께서 자제분들과 작별하고 계신다는 부관의 말을 듣고 조용히 결상에 자리를 잡았다.

가슴 터지는 그의 침묵속에 수령님의 집무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 나온 뒤끝에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조용해 진다.

누가 자제분들을 모시고 가는가고 묻자 부관은 어린 영실이 혼자서 간다고 대답한다.

허정숙은 크게 후려 맞은듯 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로는 벅찬 경련이 줄달음쳐 갔다.

무슨 말인가 하려는 그였으나 혀가 돌지 않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양복설을 구겨대기만 하는데 방안에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노래소리가 울려 나온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것처럼 좋아 하시던 노래였다.

수령님께서 작별에 앞서 자제분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신다.

가슴이 미여 질듯 한 아픈 마음을 안고 조용히 밖으로 나온 허정숙은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소녀들의 모습을 보

면서 그래도 저애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더욱 가슴은 저릿저릿해졌다.

그토록 멀어 지기 아쉬워 하는 자제분들의 마음을 노래로 녹찾혀 주시고 멀고도 험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호위대조차 없이 어린 영실에게 붙여 떠나보내시면서 자제분들에게 김정숙어머님의 사진을 꼭 쥐여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자제분들이 떠나간 쪽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자신도 모르는새에 손 가까이에 드리운 버드나무줄기를 뜯고 계신다.

이윽하여 방송연설로써 전체 군대와 인민을 전인민적항쟁으로 호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야말로 눈물이 없이는 볼수 없는 이 모든 정경을 허정숙이 녀성다운 섬세한 내적체험세계속에 굴절시켜 질은 정서속에 감동깊게 펼쳐 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 녀자들은 남자들에 비하여 다정다감하며 섬세한 인정세계에 살고 있으며 더우기 모성애가 강한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대한분들의 뜨거운 인정심리적 화폭을 부관이나 그 어떤 다른 측근인물들의 심리세계에 굴절시켜 보여 주었다라면 아마도 현재의 작품에서처럼 강렬한 정서적여운을 남기지 못하였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가정의 아버지이시기전에 온 나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하기에 소설의 이 생동한 예술적화폭은 자신의 마음속 고충을 억센 의지로 이겨 가시며 그것을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전민항쟁을 호소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세계를 보여 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심리묘사의 예술적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밖에도 작품들에서는 심리묘사수법들의 활용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많다.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에 충격을 주는 극적정황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격렬하고 예리한 심리적파동을 일으키게 된다. 극적정황의 실정은 인간의 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 작품의 전반적형상의 질을 높이게 하는데서 전제조건으로 된다.

인간의 내면세계는 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는것만 큼 인간의 심리활동세계는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50년여름》과 《조선의 힘》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첨예한 극적정황, 수령님과 자제분들의 작별이라는 극적정황의 실정으로부터 오는 심리묘사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품격과 품모의 위대성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형상적 화폭으로 펼쳐 보여 준 귀중한 경험을 보여 주었다.

우리 작가들은 이 귀중한 경험을 살려 극적정황속에서 일어 나는 인물들의 내면세계에 대담하게 침투하여 묘사 하나를 해도 작품에 없어서는 안될 기름진 화폭으로 창작해야 할것이다.

광부들에게 바치는 노래

김덕선

굴진공의 마음

그는 땅우를 걸어 가도
생각은 늘 막장길을 걷는다
땅우의 길을 물으면 몰라도
막장길 손금처럼 꿰뚫고 있는
그는 굴진공!

안해의 목소리처럼
착암기소리에 정들었고
아버지를 찾는 자식들의 부름말처럼
발파소리 귀에 익은
그는 굴진공!

착암기소리 멎으면
들었던 밥술도 놓는 그 마음

발파소리 못 들으면
밤새 뒤척이며 잠 못 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21세기의 강철기둥이 되어
조국의 대지에 뿌리 내리고
그 마음이
내 나라 강성대국건설을
억척같이 떠밀고 있나니

우리 생각했던가
이를 위해 그가 미처 즐기지 못한
생활의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 채워 지는줄-

발파소리 기다리는 때

발파소리 기다리는 때는
광부들의 침묵이 쇠돌처럼 무겁게 흘러도
축포가 터져오를 시각을 기다리듯
광부의 기쁨이 한치두치 고이는 때

발파소리 기다리는 때는
제 심장에 뛰는 맥박을 채여 보듯
달아 놓은 폭약을 한발두발 세여 보며
광부의 량심을 팽정히 검토해 보는 때

하고 싶은 말

땅속에서 일을 해도
땅우의 삶을 빛내이는 굴진공
그가 하루일 마치고
땅우를 걸어 가나니

내게는 생각되더라
새로 일떠서는 거리 저 눈 부신 지붕도
그대의 발걸음에서 시작되는듯
저 유치원프락에 넘치는 아이들의 웃음도
그대 안아 낸 쇠돌에서 피어 나는듯

생각되더라
숲속의 고운 새들도

이들을 위해 노래하고
살뜰한 처녀들도 이들을 위해
사랑을 고이 간직하는듯

그렇더라
굴진공 이는
땅속에서 땅우의 길을 열며
강성대국을 세워 가는 사람들

우리 땅우의 길을 걸을 때
땅속의 길을 가는 이들을 잊지 말자
땅우에서의 위훈을 이야기할 때
땅속의 광부, 그 이름을 떼어 놓고 생각지 말자

들꽃향기

-비전향장기수의 수기 중에서-

석유균

1

《썩-아》 찬바람은 사흘째 불어 엔다.

거칠게 불어 치는 삭풍에 날려 온 누런 락엽이 철창에 매달려 바르르 떠다. 쥐면 바스라질것 같은 누런 잎사귀를 나는 조심히 쥐여 손바닥위에 놓았다. 어찌면 메마르고 찢긴 내 인생과 그리도 흡사한 지 차디찬 감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외로운 인생을 찾아 15척 높은 담장을 넘어 온 락엽에 래일을 가늠해 본다.

참담한 고행길을 좁은 감방에서 나 홀로 수십년을 헤매이면서도 믿음속에 의지는 더욱 버려 진다. 하긴 그 믿음이 내 심혼만이 아닌 스러져 가는 육체도 지평이처럼 받쳐 주는지 모른다.

그래도 가혹한 내 인생을 별처럼 변함없이 지켜보이는 있으니 그는 바로 나의 반려였던 경아다.

동지달 보름날,(바로 오늘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내 생일을 잊지 않고 차입품을 들여 보내준 한다. 차라리 나를 깨갓이 있어주었으면 마음 편하면만... 생각과는 달리 오늘 오후에도 차입품이 또 들어 왔다.

어느 차입품과는 다른 류별난것이 더 들어 있어 나를 기쁘게 한다. 한것은 내 고향 명남땅의 향취를 안고 온 밤과 대추이다.

철부지 그 시절 손목이 메달라는 동생 순희의 소꿉동무 경아도 함께 고향 뒤산에 올라 가 저마다 주머니가 볼록하게 주어 넣던 추억 깊은 열매이다.

고향의 향취만이 아닌 가슴속에 스며 드는 정을 감미하며 알알이 윤기 흐르는 그 한알한알을 떨리는 손으로 세여 본다.

밤도 신아홉, 대추도... 틀림없이 내 나이 수만큼 신아홉알이다.

무성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세고패 돌고도 남은 길고도 험악한 세월에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온 정을 부어 주니 그의 생각이 새로와 진다. 한결 두껍 망각의 장막이 벗겨 질수록 우리 서로 헤여지던 때의 일이 가슴 아프게 새겨 진다.

×

엇갈리는 총성, 땅크의 굉음.

삶과 죽음이 시계추처럼 오가던 동란의 그 시절,

우리 중대는 서울 XX구역의 거리 곳곳에 바리케트를 쌓아 놓고 시민들과 함께 방어전을 련일 벌리었다.

땅크를 앞세운 미군의 공격을 그날도 네차례나 물리쳤을 때 중대전투인원은 한개 소대 인원밖에 남지 않았다. 나의 총탄주머니도 비었다.

목타게 고대하는 증원부대와 탄약이 한시가 새롭다. 반땅크수류탄 투척 거리가 놀랍게도 남들보다 거의 곱절이나 되는 2분대 광산내기상등병도 쓰러졌다. 바리케트위에 올라 서서 몸을 솟구치면서 반땅크수류탄을 힘껏 던져 땅크를 명중시켰으니 그 순간 왼쪽 견갑골에 관통상을 입었다. 벌건살이 헤쳐 진 총상부위를 면내의를 찢어 감싸땀으나 피는 몇지 않았다. 지혈시키려고 다시금 줄라매자 그는 모진 아픔을 참으며 입술을 앙다문채 불 타는 땅크를 응시하며 신음소리 한번 없었다. 상처를 다 땀을 때 그는 불현듯 외마디소리를 쳤다.

《저런... 엉? 어쩔려구...》

갈퀴 같은 손으로 제 무릎을 안타까이 움켜 쥔다. 그러자 군복을 적신 벌건 피자박이 넓게 퍼져간다. 양갈진 카빙총소리에 놀라와 하는 그의 눈길을 따라 바리케트째므로 내다보니 경아의 모습이 언뜻인다. 그는 적십자표식을 한 하얀 위생가방을 멘채 넓은 길우에 너저분히 간린 미군시체에서 개인봉대를 들춰 내고 있다. 맞은편 《행림사진관》 2층에서 울리는 총성이 그를 목표로 한것이 분명했다. 총성이 자지러지자 이리저리 뛰어 다니던 경아가 그만 고개를 묻고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것을 보는 순간 나도 숨이 꺾 막혔다.

바리케트에서 자동총의 련발사격이 옆에서 울리었다. 분대장의 엄호사격에 놈들의 총성이 숨을 죽인 순간 경아는 몸을 솟구치며 달리었다.

《담벽으로...》

내 목소리는 다급했으나 총성에 잦아 들고 말았다. 그래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순식간에 경아는 벽돌담벽에 가붙었다. 놈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경아가 벽돌담벽을 따라 바리케트로 다가올 때까지 나는 물론 상등병도 숨을 죽이고 주시하였다. 벽돌담벽에 짓쫓으며 가까스로 바리케트를 넘어 온 경아의 이마엔 땀과 먼지만이 아닌 빨간 피가 가늘게 내뿜고 있었다.

동생 순희라면 결코 가만 두지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우리 부대가 서울로 올라 와 다시 만난 이 며

칠사이 경아와의 숨은 관계가 내비칠가봐 서로 약간만 조심하느터였다. 하기에 한껏 좋아 들었던 마음을 노성으로도 터칠수 없었던 나로서는 혼자분을 삭일수밖에 없었다.

세차게 내뿜리는 내 숨소리에 놀리워서인지 경아는 새초롬히 눈을 내리간채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는 두 부상병의 상처를 처치하였다.

그제야 세모눈을 짓고 쏘아 보던 나의 눈총도 어연듯 풀리었다.

이윽하여 상등병에게로 다가간 경아가 봉대를 꺼내들자 그는 한손으로 밀막으며 돌아 앉았다.

《싫소.》

《소독부터 해야지 안돼요. 시간이 다르게 상처가 화농되는데 관통상을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맏고 끊는듯 한 그의 말소리는 사뭇 차거웠다. 하지만 상등병은 거만한 아래턱을 저으며 한본새로 자세를 풀지 않았다.

《위험하기야 매일반이지. 차라리 내 혼자 아픔을 참는게 낫지. 처녀가 목숨을 내대고 구해 온 봉대는 감지 않겠소.》

다시 돌아 앉으며 흘겨 보는 그의 눈빛에는 불이 이는것 같았다. 그를 마주 보던 경아는 아래입술을 감쌀때 고개를 숙이였다.

《다신 바리케트를 넘어 가지 않겠다는걸 약속해요...》

《약속? 흠 어제밤일을 모를줄 알구, 가만 있었더니 이젠 시퍼런 대낮에까지...》

나는 그들의 싱갱이를 더 듣지 못했다. 중대장이 급히 나를 불렀던것이다.

세개밖에 안되는 반땅크수류탄(중대에 남은 전부였다.)을 근엄한 눈길로 지켜 보던 중대장은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리었다. 나의 보고가 끝나기전에 손을 잡아 내리우는 그의 낫색은 자못 현현해졌다.

《<미술가선생>의 목측이 정확하지. 저기 코 박은 땅크까지 거리가 얼마지? 모두 듣게 큰 소리로...》

선두땅크를 명중시킨 첫날 전투때처럼 룡조로 물을것만 같았다.

하지만 쪽지편지를 내어 민 그의 말투는 짝어 낸듯 단호했다.

《여기서 대학을 다녔으니 서울골목을 잘 알겠지. 자, 명심하오.

이제부터 사민들을 부민관까지 안전하게 인솔할것. 그 길로 이걸 대대참모부에 전하시오. 명령이요.》

복창하고 돌아 서는 나의 어깨를 봉대한 팔로 다독이는 중대장의 그윽한 눈길에는 한줄기련민의 정이 어리였다.

내가 팔을 저으며 사민들을 골목길로 부르는데 키가 흰칠한 분대장이 불쑥 나타나 헤쳐 진 옷자락을 잡았다.

《이건 뭐요? 사민들을 인솔하는 군인이...》

그의 말보다 질책하는 눈빛에 나는 그만 기가 질렸다. 풀어 헤친 목단추, 꾸겨 지고 흠랑이 게발린 바지에 그의 눈길이 갔다.

시민들과 어울려 싸우는 시가전에서 매일밤 무기, 탄약점검끝에 외모상태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주곤 하는 그의 눈길은 각별했다.

《시민들이 보는데 군인답게 단정해야지. 10분내로 퇴치하고 보고하시요.》

단추 하나 떨어 진것도 엄하게 추궁하던 그였다. 내가 급히 옷매무시를 바로 하는 사이 분대장은 나의 보병총을 받아 쥐고 점검하였다.

《네알/ 안되겠소 이걸 가지고 가오.》

나의 혁띠에 매달린 수류탄은 떼어 놓으며 자기의 기관단총을 내밀었다.

소대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기관단총의 총성이 곧 일제사격 신호로 되곤 했다. 작열하는 폭음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 소대 아니 중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던 기관단총이었다. 은근히 욕심내던 기관단총을 덱석 받아 쥐는 나를 보던 분대장은 모를 세웠던 술진 한쪽 눈을 쫓긋하였다.

그 후더운 모습을 보자 시가전이 격렬해 저 어느 골목에서 불시에 적들이 밀려 들지 모르는 위급한정황을 각오해야 하는 그속에서도 분대장이 나를 지켜 볼것만 같아 마음이 든든해 졌다.

사민들을 인솔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누구도 바리케트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몇번 큰소리를 쳤으나 그때까지도 경아는 떠날 기색이 아니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등병의 어깨에 봉대를 꼼꼼히 매주고도 안심치 않는지 위생가방을 뒤지였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중대장이 서늘한 음성에 나는 흠칫했다.

《명령을 잊었어? 아직도... 시간이 없다는데...》

격한듯 말을 채 맺지 못한 그는 무서운 눈길로 나를 보았다. 불이 확확 이는듯 한 눈길에 놀리운 경아는 그때야 위생가방을 통채로 분대장에게 맡기고 일어 섰다. 보병총에 총창을 꽂던 분대장은 위생가방을 받으며 빨리 가라고 손짓으로 재촉하였다.

빨리... 시간의 촉박감이 나의 뇌리를 쳤다.

놈들이 밀려 들기전에 증원부대를... 아니 탄약이라도 급히 보충해야 한다.

피어린 전투를 치르어야 할 중대의 운명이 나의 어깨에 무겁게 실리는것만 같았다.

성난 중대장의 눈길, 노기찬 그의 음성이 나의 걸음을 재촉했다.

골목길을 에돌면서 뒤를 돌아 보니 인솔대오의 뒤권에 선 경아가 숨이 턱에 닿게 따라 서는 녀인

들을 이끌어 주면서도 사위를 살핀다. 그제야 나도 한결 마음이 놓이었다.

락오자가 없이 사민들을 부민관까지 인솔해 간 나는 그달음으로 대대부로 달리였다.

눈 여겨 새겨두었던 골목길을 빠져 나와 지름길로 나서던 나는 그만 세 종목에서 불시에 나타난 적들과 조우했다.

수류탄을 때놓던 분대장의 말 없는 행동을 단신으로 절대로 적들을 접근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시로 깨우친 나로서는 불의의 정황을 침착하게 판단하고 위험에서 벗어 날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책방담벽에 바싹 붙어 근거리련발사격으로 두놈을 쏘어 눕히고 도로를 횡단하여 맞은편 목조건물로 달려 가던 바로 그때였다.

평곳! 익측 큰길에 나타난 땅크의 포신에서 화광처럼 불덩어리를 내뿜고 있는것을 눈 아프게 보았으나 포성도 먼 메아리처럼 들릴뿐 원다리에 강한 타격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드넓은 풀밭 싱그러운 풀냄새대신 이상하게도 들크무례한 향기가 풍긴다. 귀청이 터질듯 한 총포성은 숲 죽이고 온 세상이 잠든듯 고요가 깃들었다. 왼쪽다리가 점점 더 아파 났으나 나는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었다. 힘겹게 걷느라니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린다. 걸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그 소리는 껍 귀에 익었다.

(누굴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수 없다 풀냄새대신 들크무례한 꽃향기가 풍긴다. 정신을 모으고 가늠해보니 동생 순희의 하숙집 작은 프락에서 가꾸던 꽃향기가 분명하다.

(그애는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부모님들을 찾아 대구로 갔는데...)

한뼘으로 뚫아 보던 생각에 정신이 팔려 돌부리에 걸터 찬듯 한 모진 아픔에 왼발을 휘청거리다가 끝내 몸을 가누지 못한채 쓰러졌다...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 벌거우리한 초불이 안겨온다. 그다음 벽에 걸린 낫 익은 다도해풍경화가 어슴프레 보인 순간 놀라움이 앞선다.

지난 봄 스무살되는 순희에게 기념으로 그려 준 것인데 그럼 그의 하숙집인가?

그제야 애젊은 울음소리가 그와 어린 시절부터 자매처럼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 와 하숙도 함께 하며 자별하게 지내던 경아가 숨 죽여 가며 흐느끼는 목소리라라는것을 알아 챘다.

《어마, 정신을 차리셨네...》

반가움에 젖은 목소리에 끌려 나도 입을 열었으나 말소리는 새여 나오지 않는다. 가슴이 타는듯한 갈증에 못 이겨 입술만 감빨았다.

《안돼요. 물은... 피를 얼마나 흘렸대구요.》

경아의 애원하는 말이었지만 나는 정신이 들수록

더해 지는 갈증에 못 이겨 안타까운 눈길로 물을 찾았다. 경아는 약숨에 젖은 물기로 입술만 겨우 추겨 줄뿐이었다. 허끝으로 물기를 감빨던 나는 스스로 눈을 감았다.

(너그러운줄 알았던 그 마음이 그리도 야속하단 말인가. 역빠른 순희 몰래 서라벌에까지 찾아 와 밀회장소에서 만날 때에는 그가 사리에 밝고 퍼그나 다감한줄 알았는데 한모금 몰마져 저어하다니...)

자포자기에 지쳐 가물거리는 정신이 자꾸 흐려지는데 입안으로 감미하기 어려운 액체가 흘러 든다. 한방울 또 한방울... 눈을 감은채 걸탐스레 삼키었다. 그 생명수가 식어 가던 내 몸으로 따스히 스며들자 흐릿해 지던 안개발이 벗겨 지듯이 점차 정신이 트이였다.

첫 순간 부대에서 받은 명령이 생각키웠다. 자리에서 일어 나려고 몸은 뒤채기며 모지름을 켜다.

《안돼요. 움직이면...》

경아는 나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눌렀다.

《중대자-ㅇ...》(밤침달 소리내기가 그리도 힘든지)

《알아요. 중대장동지랑... 전우들을 이틀째 찾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만나지 못했어요...》

경아의 말이 더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이틀이던 명령 받은 시간이 퍼그나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사려 물고 일어 나려 손을 뻗었다.

《안된대두요. 미군이 서울을 점령했어요.》

놀라운 그 말에 항변이라도 하듯 불쑥 상반신을 일으켜 세운 나는 안주머니에서 종이쪽지를 꺼냈다. 온 중대가 지켜 보는것만 같아 종이쪽지를 펼치는 손은 떨리였다. 제 성미처럼 활달한 필치로 쓴 중대장의 글씨가 어슴프레한 초불에도 또렷이 보였다.

《18시까지 촛지구를 불허함.》

나는 그만 신음소리를 내며 종이를 떨구었다.

(18시라면 내가 명령 받은 때로부터 30분후다. 부대는 그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무너지듯 자리에 쓰러졌다.

방바닥에 떨어 진 종이를 보던 경아도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흐느끼였다. 그때 나는 유표나게 흰 봉대를 감은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그의 단지의 피로 소생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바리케트로 밀려 드는 땅크, 3개의 반땅크수류탄, 최후를 각오하고 맞받아 나가는 전우들의 모습이 환각처럼 눈앞에 얼른거렸다.

《어쩌면... 그 처럼 의로운 용사들이... 우리만 올...》

몸부림치듯 안타까이 뇌이는 경아의 말을 들으며 다시금 침대에서 일어 서던 나는 왼발의 모진 동통에 못 이겨 방바닥에 쓰러졌다... 경아는 피가 짙게 내뻗는 다리의 봉대를 풀었다.

《다리를 수술해야겠어요.》

나리의 험한 상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어두워 졌으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빨리 몸을 추세워 한시바삐 부대를 찾아 가야 한다는 한가지 욕망뿐이었다. 그래서 경아가 떠넣어 주는것이라면 억지로 삼켰다. 원기를 돋구려는 불 같은 모지름으로 회복은 빨랐다. 그래도 푸르죽죽하게 죽어 가는 원다리의 아픔만은 점점 더 참기 어려워 졌다. 사흘만에 경아도 더는 참지 못해 또 같은 소리를 했다.

《정말이에요. 수술해야지. 시간을 끌면 큰 일나요. 제가 의사를 데려 오겠어요.》

《아니, 정 수술해야겠으면 경아가 메스(수술칼)를 쥐요.》

나의 결연한 태도에 놀란 경아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요? 어쩔... 내 손으로... 그건 안돼요.》

《그래두 그런 아픔만은 참을수 있소.》

《그러시 마세요. 순희 오빠! 제발 그것만은...》

두손을 모아 쥐고 애 타게 사정하는 그의 크고 시원한 두눈에는 맑은 눈물이 서서히 고이였다.

《놈들이 수색전을 벌리고 있을텐데 인적기미를 보여선 안되오. 누구든 불러 들이면 더구나 위험해...》

내 말이 굳어 진듯 서 있는 그를 조용히 타일렀다.

《이 일은 경아만이 할수 있소. 난 믿어...》

《그러지 마세요. 전 녀자예요.》

그의 연약한 어깨 어루쓰다듬던 나는 그만 아픈 말로 채찍질했다.

시간을 끝다가 다리를 잘라야 좋겠는가고... 부대를 찾아 가야 할 내 마음을 그리도 매정하게 몰라주는가고...

《순희 오빠가 그건... 너무도 가혹해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전 너무도 연약해요. 그러지 마세요.》

몸을 빼며 고개를 흔드는 그에게 나는 그만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노성을 질렀다. 그 다음... 피발이 선 눈으로 나를 지켜 보던 경아는 뒤걸음질 치다가 홀연 문을 열고 뛰쳐 나갔다.

그날 밤 경아는 종시 면식 있는 외과의사를 데려왔다. 두대의 초불을 켜 거울로 반사시켜 놓자 한결 밝아 졌다. 상처를 헤쳐 본 중년의 의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지독하군... 안으로 썩고 있는데 어떻게 참았소. 미련하게스리...》

제풀에 투덜거리던 의사는 국소마취주사를 석대 놓았다. 그리고도 집도조수로 나신 경아에게 두다리를 잡으라고 눈짓으로 지시했다.

아픔이 모여 든 상처부위에 수술칼을 대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튀어 나오는 비명을 막으려고 백프로 입을 막았다.

모진 아픔으로 정신이 흐리마리해 질수록 나는

하나의 생각에 쏠리었다.

상등병! 내 우직한 손으로 마취제도 없이 험악한 총상을 지렬시킬 때 고통이 어떠했으랴, 허나 내 손이 떨릴가봐 신음소리도 없이 모진 아픔을 참던 그, 소리없이 이를 갈며 고통을 이겨 내던 그 의지를 나도 지켜야 한다.

접시우에 파편조각이 하나 둘... 삐쪼각도 두개 떨어 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까스레 정신을 모두었다. 아픔에 못 이겨 정신을 잃으면 저도 모르게 소리칠수 있다는 위구때문에... 언듯 상등병의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다.

《참게. 좀 더 참으라구. 지금 자네 아픔보다도 경아가 참는 고통히 크다는걸 잊지 말게...》

《음-음-음-》

이새로 새여 나오는 신음소리를 삼키려고 몸을 뒤틀자 영악스레 감싸누르는 경아의 체온을 피부로 느끼며 녀자란 결코 연약한 존재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왜 이라도 느린지...

봉합을 끝낸 의사의 화락하게 젖은 잔등에 경아가 얼굴을 묻으며 흐느끼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용하세요.》

《용한건 저 젊은이요. 차라리 소리라도 쳤으면 나으련만... 정말 지독하군, 저런 힘을 가졌으니 회복도 빠를게구. 잘만 하면 다리를 절지 않을수 있소. 이런 젊은이들을 아껴야 할텐데...》

위안어린 의사의 말을 들으며 런던의 정이 담백 어린 눈길로 나를 쳐다보는 경아의 얼굴은 그제야 밝아 졌다.

새벽에 의사를 배웅하러 따라 나섰던 경아는 거처를 옮기려 했다.

날이 흐를수록 아픔을 씻어 내리면서 육신의 기력이 점차 퍼져 가고 있음을 느끼었다.

내 입맛과 회복에 신경을 쓰며 이 살판에서 어떻게 찹쌀과 록두를 구해 오는지 경아의 성의가 송구스러웠다. 아침마다 봉대를 갈아 댈 때마다 아픔을 덜어 주려 애 쓰는 경아의 다심한 손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잠시나마 제 감정을 누르다못해 그를 타매했던 후회가 새로와 저 용서를 빌고 싶었다.

말로써는 다 번질수 없는 애끓는 사연을 그대로 그림에 담아 사파하려 먹필을 들었다.

다감한 정이 투명하게 내비친 그의 그윽한 눈길에 초점을 두고 경건한 의지가 비친 오희한 코날에 짙은 음영을 주면서 될수록 섬세한 감정색갈까지 살리려고 했다.

상처가 아물자 나는 경아가 구해 온 상이군인(부상병)증명서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차도 얻어 타지 못하고 걸어서 사흘만에 명학산 기슭에 이른 나는 헤어지기 싫어 하는 그에게 그림을 쥐여 주며 위안하였다.

삼포막로인의 도움으로 명학산땀찌산에 들어 간

나는 다리도 완쾌되고 이곳 지형을 잘 아는 덕에 (풍경화그림을 그리려 여러번 오군 했었다.) 자주 정찰을 나가곤 했다.

잊혀 지지 않는 그름밤. 적들의 매복에 걸려 적들을 유인하던 끝에 치명상을 입고 정신을 잃고말았다. ... 정신이 들고 보니 감방이었다.

이듬해 본 뜻밖에도 면회실에 나타난 경아를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제가 그때 뿌리치고라도 따라서야 하는건데...》

그는 울곧은 마음을 풀지 못해 눈물만 흘렸다.

나는 따뜻한 말로 그를 위안해 주고 나서 다시는 찾아 오지 말라고 심심히 당부했다.

한해 두해 세월이 흐를수록 고귀한 청춘을 바쳐 싸운 전우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갖은 악형과 가혹한 공갈속에서도 나는 전우들이 나를 지켜 보는 것만 같아 의지의 힘을 가다듬곤 했다.

그래도 무정한 세월속에 그들의 모습이 삭막하게 흐려 질것만 같은 조바심에 싸여 나는 잊을수 없는 전우들의 모색을 하나하나 그려 나갔다.

기대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워 주던 중대장과 자기의 기관단총을 나에게 싣듯 주고 나서 나의 보병총에 총창을 꽂던 분대장만이 아닌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던 전우들의 모습까지로 그렸다.

불 타고 있는 두대의 적땅크는 별로 개의치 않은 채 폭파요리를 열심히 설명해 주면서 전쟁이 끝나면 자기 광산에도 꼭 찾아 오라고, 그러면 굉장한 발파를 보여 주겠으니 장쾌한 그 모습을 그림에 담아 보라고 슬며시 둔장질하던 땅크잡이에 《호랑이》인 2분대의 광산내기상등병의 턱밑이 기묘한 인상적인 모습까지도 그려 갈수록 절절한 그리움이 작은 내 가슴을 《파악-》 움켜 잡은채 놓을줄 몰랐다.

기나긴 10년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한모습으로 해마다 찾아 오는 경아를 만류하다 못해 지쳐 버린 나는 아픈 말로 그의 어린 마음을 후벼 내려했다.

서로 만나는 고통을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고, 피마르는 피로움을 주지 않으려거든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내가 잊게 해달라고 했다.

앞으로 면회를 일체 사절하겠다고 얼굴 붉히며 말하는 나를 정 깊은 눈으로 말없이 지켜 보는 경아가 안타깝게만 생각되어 또 진정을 터놓았다.

《전향문 한장이면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건 나도 알지만 결코 동지들의 고결한 넋을 욕되게 할수없소.》

《순회 오빠 마음을 저두 아세요. 그래서 저두 따르고 싶어요.》

한숨처럼 가늘게 새어 나오는 그 소리가 나의 마음을 쿵- 하니 울려 주었다. 오랜 생각끝에 나는 길

이 간수해 두었던 전우들을 그린 그림을 넣은 봉투를 꺼내주었다.

《이것이 마지막이요... 더는 만날 생각 마오.》

말없이 봉투를 받아 품속에 간직하는 경아의 두 눈에는 놀라움이 눈물속에 얼른거려였다.

또 한해가 지나 마가울이 오자 마음이 초조해 진 나는 마음속으로 시퍼런 칼처럼 날이 선 말들을 고르고 골라 보았다.

《고약한 사람만큼 외로운 인간이 없다더니... 또 나를 찾아 와 나를 배반으로 유혹하려 한다는걸 알기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서리찬 말 한마디 남기고 돌아 서리라고 마음 다졌다.

하지만 서로 얼굴 붉히며 가슴 맺힐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더는 면회를 오지 않았던것이다. 이제 그의 마음도 변색되었으리라고 생각했다. 허나 지금까지도 흐려 지지 않은 그의 애뜻한 마음이 담긴 차입품을 지켜보는 나의 눈굽은 뜨거워 진다.

2

출옥후 나는 달포나마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다. 쇠약해 진 몸보다도 흥분때문인지 혈압이 올라 안정치료를 받아야 했다. 차츰 흥분이 잦아 들면서 혈압이 안정되자 나는 누이(순희)의 권고대로 경인지구 안침한 곳에 자리 잡은 그의 집에서 보양하였다.

병원에 있는 때조차 기자들이며 친척, 친우들은 물론 《××회》, 《××협회》 등 민주운동인사들, 지어 중학생, 대학생까지 위문 오는 바람에 손님방문이 그칠줄 몰랐다. 그새 시일이 퍼그나 흘렀는데도 경아가 나타나지 않아 혼자속으로 바재이었다. 이따금 나는 문득 누이와 조카인 현이에게 묻고 싶었으나 무엇인가 조심하는 눈치여서 기회를 미루게 되었다. 병약한 나를 극진히 보살펴주는 현이는 (어언듯 30나이에 들어 선 경건한 지성미가 흐르는 부인이 되었다.) 준수한 옷매무시며 단아한 행동거지, 지어는 청 맑은 부드러운 음성에 이르기까지 신통히도 나를 찾아 오곤 하던 그 나이에 경아와 방불하여 문득 나를 놀라게하곤 하였다.

그의 손길에 이끌려 매일 산보길이 멀어져 이제는 나도 집안에서는 치료체육에서 《최우수생》으로 평을 받았다.

한시도 내결을 떠나지 않던 현이는 부인회일로 불가피하게 며칠동안 호남으로 떠나면서도 무엇인가 안심치 않는지 몹시 아쉬워 했다.

《얼른 일 보고 내 인차 돌아 서겠어요. 그새 매일 열보씩만 더 늘이세요. 약속했어요.》

멀어 저 가는 차안에서도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이 정겹게 안겨 온다. 그래서 나도 문득 한마디했다.

《현이가 저 나이에 경아와 신통한것 같구나.》

《글쎄, 어렸을 때부터 제 이모가 제일이라구 노

상 물어 다녔으니까요. 하긴 언니가 그렇게 키웠는지도 모르지요.》

《그래-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

스스럼없이 묻는 내 말에 잠시 대답이 없던 누이는 내 손을 모두어 잡는다.

《오라버님, 마음을 크게 먹으세요. 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이 껍 막히는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아유, 오라버님이 이렇게 놀라시니... 그러지 않아도 현이가 제 온 다음에 건강을 봐가며 천천히 알려 드리라구 당부한걸 그만 내 실언이...》

나는 귀안이 멍멍해 지며 손발이 저려 들었다.

누이가 황황히 가져다 주는 진정제와 빙수를 마시고 나니 가슴이 좀 열리는것 같았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이것저것 물었으나 내 손발을 주물러 주던 누이는 단마디로 대답하고 나서 《오라버님, 이젠 생각을 좀 돌리세요.》 하는 말만을 날말처럼 되뇌이였다.

병으로 정양지에서 사망했다는것도 세네번 되물어서야 동에 닿지 않는 말로 겨우 알려 줄뿐 앞뒤사연이 좀처럼 이어 지지 않았다.

이튿날 저녁 소슬바람이 부는 로대에 앉아 어두운 하늘에 돋는 별을 지켜 보며 혼자 생각에 움해 있는데 누이가 방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초가을인데 감기에라도 들면 어찌겠어요. 생각이 깊어 지면 마음 아픔도 커지겠는데... 그러시네.》

《마음 아픈게 대수냐.》 나는 고개를 외로 틀었다.

《이젠 그만해요. 아무리 가슴 허빈들 저세상사람이 살아 오겠나요.》

말은 천연스러웠으나 누이의 음성도 퍼그나 젖어 있었다. 마른 기침을 돋구면서 서러운 마음을 감추던 나는 그에게 침중한 눈길을 보내었다.

《아서라. 세월이 아무리 모질고 무정한들 우리정 이야 가르겠나. 인생에 처음 간직했던 순정인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생각을 깊이 더듬던 누이는 한참만에야 무겁게 입을 연다.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보다는 언니(경아)의 마음을 난 더 잘 알아요.》

머리를 비다듬으며 초연히 앉아 있던 누이는 제 마음을 스스로 터놓았다.

《우리 현이가 일곱살되는 해 봄이였어요. 내가 저자를 봐가지고 돌아 오니까 글썽 경아언니네 아버님이 가다리는게 아니겠어요. 나이 칠순이 넘은 로인이 그즈음 환절기에 로환으로 시달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팡이에 의지해서 찾아 온걸 보고 전격 놀랐어요.》

로인의 가공한 정상을 바라보며 나는 요즘 치과

병원이 (두 딸을 내세워 개인병원을 운영하였다.) 불경기여서 속 태우는가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긴 한숨부터 내쉬였어요.

<현이 예미야, 한집안이나 다름 없으니 이제 와서 우리 집 허물을 숨겨 뭘하겠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 가면서두 손톱이 닳게 아득바득 육신을 눌러 자식들 공부시켜 주고 성가시켜 여한을 사려하지 않았는데 급게 기른 저 막내딸년이 수절인지 뭔지 청승 맞게 외기러기 신세를 하고 있으니 내 편히 눈 감을것 같지 못하이.>

제 설움에 겨워 한참 푸념을 늘어 놓던 로인은 내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어찌겠나. 좀 도와 주게. 좋은 혼처가 나섰는데 이번에두 몸을 사리니 처녀나이 지난 저게 화단이 아닌가.>

나도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일이여서 혼처가 어떤가고 물었어요. 로인은 제 오빠 다니는 회사의 전무라는데 재산두 남 부럽지 않구 학식도 있다는 것, 설명절에 세배하러 온걸 보니 인격이 좋은데두 서로 만나보기는커녕 그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않는 벽창호이니 제 딸이긴 해두 이젠 아예 맞서고 싶지도 않다고 탄식만 했어요.

<어찌겠나. 부모 팔아서 동무 사고 동무 따라 남 가는게 짧은인데 이런 때 현이 예미가 나서면 옥 맺힌 마음이 풀릴게야.>

내 힘껏 해보겠노라는 장담으로 로인을 가까스레 안심시켜 돌려 보낸후 생각이 깊어 졌어요.

며칠째 생각을 굴리며 애를 태우던 끝에 나는 현이부터 꼬드기였어요.

말을 배울 때부터 이모라고 부르는 우리 현이를 언니가 얼마나 고와 했는지 나보다 더 따랐었으니까요.》

추연한 눈길로 나를 지켜 보면서 누이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

《이모하구 같이 창경원에 갈가. 벚꽃구경 좋지.》 순회는 어린 현이를 꼬드기였다.

《응, 같이 갈래.》

손뼉을 치며 좋아 하던 현이는 경아가 들어 서자 대뜸 매달리였다. 현이 말이라면 오금을 못 쓰는 경아였지만 이번만은 서거픈 미소를 지으며 달랬다.

《우리 현이 곱지. 내 약과 사줄게.》

《싫어, 약과두 창경원 가서 사줘.》

현이는 웃음을 비튼다.

《그럼 재미난 만화영화 보러 가자.》

《싫어 싫어, 꽃구경 갈래.》

《이모는 바빠. 이번엔 엄마하구 가거라.》

《아니야, 나두 두손 다 잡구 갈래. 명희두 엄마, 아빠 손 잡구 갔는데. 잉잉-》

엄마 신척만이 아닌 제 마음 내키는 그대로 현이

는 발버등까지 치면서 마른 울음을 울었다.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꽃이 다 떨어 지겠는데 난 몰라.》

현이 눈물에는 꿈쩍 못하는 경아였다.

《그래 함께 가자. 현이가 섭섭치 않게.》

얼굴이 빨가우레 달아 오른 경아는 현이의 생투 집에 지고 말았다. 정작 옷차림을 하고 나섰을 때 이번에는 순희가 트집을 건다.

《난 안 가겠어요. 고운 꽃구경 가면서 언니차림 새가 그게 뭐예요.》

순희는 《옥잉목저고리에 검은 목세루치마는 시골에 나들이 갈 때나 입으세요.》 하는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돌았다. 허나 사려 깊은 눈길로 그의 마음을 알아챈 경아는 오히려 미소를 짓는다.

《이건 진솔인데 나한텐 어울려.》

《글쎄 안돼요. 창경원에야 꽃구경 절반 옷구경 절반인데 몸맵시 고운 언니가 궁상스래... 난 싫어요.》

순희의 계정에 못 이겨 겨우 고른것이 연두색깃을 한 진초록색 달린옷이다. 화장한 봄날에는 너무도 색이 짙고 침침해 보인다고 순희는 은근히 걱정을 했지만 정작 그의 차림새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있다.

너자의 지혜는 그 아름다움에 있다는 참뜻이 새삼스레 새겨 지며 언니의 지성이 어찌면 저리도 고상한 미로 번져 졌는지... 그것도 연분홍색깨끼저고리에 다문다문 함박꽃이 박힌 화려한 치마로 성당한 자기보다 못시선이 경아에게만 쏠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보면 상큼하게 들린 흰 목과 호리호리한 경아의 몸매가 진초록색으로 해서 더 유연해지고 품위가 고상하게 돋보인다는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깨우쳐 진 순희는 스스로 놀라기만 했다.

부러움에 찬 시선들만이 아닌 시샘어린 녀인들의 눈길도 좋지만 천연스레 흘려 보다 못해 뒤돌아 다시 보는 남자들의 경이에 찬 눈길이 쏠리자 순희는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멋도 모르고 흥에 겨워 까치걸음을 하는 현이를 얼른 앞세우며 앞일을 가늠해 보았다.

석탑아래 가면 줄이 간 회색양복을 입은 키가 웅장한 《부드러운 호남아》(경아 부친의 말을 빌면)가 서성거리고 있을것이다. 천연스레 그앞을 지나며 처음엔 언니가 눈치 채지 못하게 선을 잘 보아야 할텐데 하기가 인물맵시 쪽 빠지고 마음씨 또한 고운데다 사리화녀대 수석생이었으니 지성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그 인품에 끌리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오늘 내가 향단이 역을 잘해야 할텐데... 저도 모르게 새여 나오는 미소를 머금으며 혼자속으로 즐거운 생각을 굴리던 순희는 오빠생각에 자연 걸음이 떠지었다.

고운 새를 남의 등지로 날려 보낸것만 같아 속이

알찌근했지만 무정한 세월을 잡아 둘수도 없고 기약없이 오빠만 기다리게 할수 없는 일이었다.

전번 면회 갔을 때 경아일을 너에게 부탁한다고 얼굴이 벌개서 당부하던 오빠였지만 왜서인지 죄책감을 금할수 없다. 이번 차례진 좋은 혼치를 놓치면 인생도 놓칠수 있으니까 이번엔 꼭 마련을 보아야 할것이다. 옴니암니 제 생각에 쫓기우던 순희는 한걸음 뒤따라 오는 경아의 눈치를 슬며시 살피었다.

천연스레 따라 나신 그였으나 해맑은 얼굴엔 베일(그물)이 드리운듯 한줄기 우수가 비껴 있는것을 보고 은근히 놀란 순희는 부러 밝은 웃음을 띠었다.

《언니 이 꽃망을 보세요.》

《음, 꽃보다두 더 예쁘구나... 난 피곤해.》

못시신들을 피하며 경아는 걸상을 찾았다. 어느 때 같으면 마음이 들떠 그와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향기 그윽한 꽃나무아래서 종일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순희였으나 조급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순희의 손을 이끌며 경아는 너그럽게 말했다.

《현이 엄마, 이리 와 앉아 좀 쉬고 가.》

《현이 엄마라니, 언니두 참 생똥같이 구네.》

순희의 눈에 비친 경아는 섬약찬 제 마음이 비칠가봐 저어하는 수줍은 모습이 아니라 자못 심중한 자세였다.

《현이가 저렇게 클 때까지 아이적 부름대로 찾곤 했으니 참 안됐어.》

《싫어요. 언니가 그러면 난 더 웅색해요.》

《나두 언니라는 말보담 현이 이모라구 불러 주면 마음이 편하겠어.》

기여 들어 가는 음성에 그의 서러운 마음이 진하게 배여 있었다. 그럴수록 활달한 채 성미처럼 어성을 돌구면서 순희는 그를 농치려고 했다.

《그럼 나두 댄 말루 불러 볼가. 내 말을 꼭 들어 준다면 말이에요.》

《내 여적 네 말을 어진적이 있니?》

《그럼 됐어요. 난 언니의 곧은 마음을 알아요.》

벌써부터 심각해 지는 경아에게 매달리듯 순희는 그의 허리를 휘여 안으며 응석기어린 어조로 달래인다.

《언니, 이젠 오빠를 잊어- 응.》

대답이 없다. 굳어 진듯 미동도 없지만 숨소리는 예없이 높아 졌다. 숨 가쁜 침묵속에 순희는 조용히 한마디 더 보냈다.

《오빠두 그걸 바래요. 언니마음도 리해해요.》

파랗게 질린 경아의 얼굴을 보다 못해 순희는 진지한 자세로 대들듯 한술 더 뜬다.

《흘러 가는 인생이야 어떻게 붙잡구 있겠어. 꽃두 한철 청춘두 한철인데 언니 벌써 막물이야.》

그래도 말없이 고개만 져는 경아가 민망스러워

순희는 두손 잡고 안타까이 혼든다.

《언니두 너무해. 얼른 잠깐 인생이 가는데 노상 혼자 살겠어. 어서 짝을 무어야지.》

《아니 그것만은 싫어.》

경아는 눈을 내리칸채 조용히 뇌인다.

《남자가 오빠뿐이야? 오빠두 언니가 행복하길 바래요...》

다음말이 나올세라 급기야 손바닥으로 순희의 입을 막는 경아의 눈빛은 진지하였다.

《아니, 난 그이한테 다시 두벌죄를 지을수 없어.》

《언닌 공연히 속죄하려고만 하네. 그런 생각은 털어 버려.》

《아니 지금만 같아서도 난 그이가 줘여 주는 메스를 들었을거야. 뼈를 깎아 낼 때의 모진 아픔에도 신음소리 한번 없었으니까. 그런 억센이가 뒷인들 참고 견디지 못할라구. 난 그런줄 몰랐댔어. 내가 수술하고 부대를 따라 나섰더라면...》

《아이 말도 말어. 아무려문 너자의 손으로 제사 람 다리에 칼을 댄단 말이야. 공연한 일루 속죄만하 다나면 견디겠어? 질겨죽지.》

순희는 노여움을 풀지 못한듯 눈을 흘겼다. 그럴 수록 경아의 맑은 얼굴에는 강인한 기색이 점점 더 짙게 어리였다.

《이건 속죄가 아니야. 인생이 찢기면서두 굽히지 않는 그 장한 뜻을 나두 따르고 싶어.》

결연한 그의 말에 마음이 켕긴 순희는 애써 웃음을 피우며 판전을 댔다.

《됐어요. 언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모든것이 깨질수 있어요. 너자의 가냘픈 인생까지두 말이에요. 매정한 세상을 여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해서는 안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좋은 꽃계절에 고운 꽃이나 구경하면 됐지. 치마 두른 너자가 인생 철학에 물리면 암탉이 운다고 하겠어요. 호호...》

《그래... 꽃구경도 그만큼 했으면 인젠 돌아 가자. 난 네가 무엇때문에 여기로 끌고 나왔는지 짐작이 가.

너두 내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을거야.》

그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순희는 눈이 둥그레졌다. 그를 마주보며 주춤거리던 경아는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여 편지를 뽑아 주었다.

첫눈에도 비껴 쓴 오빠의 글체가 분명했다.

《...경아!

십년세월 변함없이 지켜 주는 가룩한 그 마음에 끌려 나 혼자 안고 몸부림치던 무거운 마음을 터놓겠소.

명학산빨찌산에 들어 간 나는 거기서 우리 중대 동무를 만났소. 그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마지막 결사전에서 중대장도 우리 분대장도 그리고 상동병아바이와 다른 전우들이 땅크를 맞받아 나가 장렬하

게 전사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소.

결전을 눈앞에 둔 시각 나를 삶의 제전으로 보낸 전우들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내 가슴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소. 그것을 지켜 내지 못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남겠소.

모진 고문도 회유도 두렵지 않소.

허나 철창속에 갇힌 나에게는 세월이 흐를수록 한가지 아픔이 자나깨나 괴롭히고 있소. 전우들이 청춘을 바쳐 싸운 이 땅이 지금도 분렬의 고통을 겪고 있으니 아픈 마음 참을수 없소.

나를 진정 위한다면 나만이 아닌 그네들의 고결한 뜻을 이어 주기 바라오.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주오. 그보다 통일성전에 나선 그 모습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될것ियो.

부디 행복하길 바라오.》

순희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싼채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모처럼 마련한 일이 빛도 보이지 못한채 꼭지가 물려 져 떨어 지자 성이 독같이 난 경아의 부친은 자식들을 다 불러 들이였다.

《나두 모르겠다. 이꼴 보자구 너를 애지중지 키워 대학공부까지 시킨줄 아느냐. 소박맞은년처럼 궁상을 떨면서...》

그 주제에 파란한 혼처를 마다해? 네 뒷에 흘리웠는지 말이나 해봐라.》

경아는 다소곳이 앉아 입술만 아프게 깨물며 한 곳만 응시할뿐 대책이 없다. 곁에서 보기가 딱해 난 오빠도 언니도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 놓으며 그를 다물아 세웠다.

《내 소리없이 친구의 뺨을 친셈인데. 너두 생각이 있을테지.》 오빠의 말에 언니도 다가왔다.

《어디 말해 봐라. 속 깊은 네가 외곶으로만 생각하니 옆에서두 보기가 딱하구나.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도 대책이 없는 경아를 보다 못해 부친은 그만 노성을 터뜨렸다.

《이년아, 씨원히 말이라도 하려무나. 여긴 다 네 살붙이들만이니 꺼릴게 있느냐. 그 알량한 수절인지 요절인지 하는 그 내막을 알아야지 내 복통이 다 터칠것 같다. 네 웅진 마음을 알아야 풀어두 주구 나두 편하게 눈을 감을게 아니냐.》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부친의 가공한 모습을 지켜 보던 경아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 섰다. 제방으로 올라 갔다 내려 온 그는 엽서만 한 봉투를 내놓았다. 편지와 함께 그안에는 먹필로 그린 그림 몇장이 있을뿐이었다.

...손을 들어 절박한 당부를 웨치는듯 한 인민군 군관, 총창을 꽃으며 최후를 각오하듯 근엄한 눈길로 지켜 보는 석죽박이 인민군군인, 두손 모아 반딧크수류탄을 움켜 쥔채 원썩을 겨냥하는 아래턱이

거짓한 인민군전사... 인민군군인들의 모습만을 생생하게 그린 그림은 재능보다도 진지한 필치와 절절한 심혼이 깃들어 있음을 누구나 첫눈에도 쉽게 알아 볼수 있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서울을 지켜 싸운 용사들이에요. 우리 겨레 하나되려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네들에게도 남 다른 희망과 꿈이 있었지만 조국 위한 성전에 바쳤어요. 우릴 위해서...》

전후사연을 자상하게 뇌이는 경아의 절절한 말은 피를 쏘는듯 했다.

숙연해 진 방안에서는 숨소리만 높아 졌다.

《지금도 감방에서 갇은 옥고를 치르며 그네들의 고결한 넋을 지켜 가는 그이를 나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뭐길래 그 장한 뜻을 버리겠나요. 난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아직두 미국이<신사>행세를 하는 이 땅에서 분렬로 몸부림치는 우리 겨레의 아픔이 더해만 가는데 세상이 아무리 가혹한들 어찌 외면하겠나요...》

흐느낌속에 모진 마음을 터놓는 경아의 애 끓는 진정을 들으며 말없이 담배만 깊이 빨던 부친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원, 네 팔자두 지독은 하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감히 경아에게 혼사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해 가을 로환에 지쳐 자리에 눕게 된 부친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식들을 둘러 보며 깊이 묻어 두었던 진정을 털어 놓았다.

《옛날에 사람 인(人)자를 지은 현자는 서로 믿고 사는것이 인간이라는 뜻을 의미해서 두 획을 번디더 놓았다. 큰것이 넘어 지면 작은것도 넘어지고 작은것이 넘어지면 큰것마저 넘어지는... 고로 오로지 서로 믿고 의지해야만 장하게 서 있는 인생철리를 그대로 새겨 놓은게다.

그래서 짝을 무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인생길을 헤쳐 가는게 료리인데 외토리인생이 얼마나 쉽겠냐.》

경아는 그만 설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쳐라. 외기러기 네 신세가 가엾기는 하다만 큰 뜻을 따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 전쟁때 가산을 다 잃고 서울에 올라 와 이날 이때까지 애쓰며 마련한것이 자그마한 이 병원뿐이다. 어진 그 마음 기록해서 내 한생 기울여 모은 이 병원도 재산도 다 경아에게 남기려다. 너희들은 어떠냐?》

오빠와 언니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들도 따라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내 보나마나 저 애는 제 하나의 안락이 아니라 우리 겨레의 아픔을 씻고저 모든걸 통일성전에 바칠게다. 하긴 그래야지. 내 마음을 대신해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잘 돕거라.》

오빠, 언니가 경아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돈도 생활도 걱정 없는 경아였다. 하지만 누구보다 바빴다. 《XX회》성원으로 후일에는 그 운동의 주역을 맡아 나서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분망하였다.

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여 운동권의 요시찰 인물로 지목된대도 경아의 영향이 다분하였다. 하기에 류치장에서 풀려 나온 현이가 피명진것을 보고 눈물부터 앞세우면서 순희는 경아에게 원망의 눈길을 보냈다. 했으나 경아는 이전과는 달랐다.

《우리 현이가 얼마나 의로우냐. 그걸 지켜 줘야지. 눈물을 거두어라.》

타이르는 말보다 경아의 진지한 낮빛에 질려 순희는 얼른 눈물을 흘렸다.

광주봉기가 터지자 경아는 병원일을 언니에게나 남기고 다음날 불시에 남행길에 올랐다. 두달만에 돌아 온 경아는 어깨에 부상을 입은데다가 천식에 시달리었다. 병원에서는 최류탄가스중독 후유증이라고 하면서 약물치료와 함께 정양을 권고하였다. (그가 말은 안했지만 도청옥상에까지 올라 가서 부상자들을 날라 오다 공수병의 대검에 찔리었다. 상처가 좀 낫자 봉대한채 한팔로 낮과 밤을 이어 밀려 드는 부상자들을 치료한 그의 희생적인 투쟁이 봉기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고 하였다.)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한두해 시름시름 앓던 경아는 폐에 생긴 농양이 붕괴된다는 진단을 받고 서야 형제들과 친지들의 권고에 못 이겨 현이와 함께 다도해로 떠났다. 했으나 정양계선이 좋은데도 한달만에 급기야 되돌아 왔다.

《북덕동포들이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준다는 소식을 들으니 잠들수 없어. 동포의 뜨거운 정 담긴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 그래.》

그의 절절한 마음에 모두가 가슴이 뭉클해 졌다.

이듬해 봄 정양을 떠나기에 앞서 그는 병원도 재산도 다 정리하고 그 목돈을 순희에게 내놓았다.

《언재이건 그이가 풀려 나오면 내 대신 드러줘.》

놀라는 순희의 두손을 꼭 쥐며 당부했다.

《내가 그이를 나처럼 믿는다는걸 알지. 그이는 통일성업에 마지막존까지 아껴 가며 쓸거야. 난 알아.》

돈 없이는 한걸음도 내디디기 힘든 세상에 큰 돈을 말끔히 내놓으면 어찌겠는가고 하면서 순희는 뿌리치려 했다. 허나 경아는 고박한 부친의 뜻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종시 그 말을 듣지 않고 홀로 떠나갔다. 그것이 마지막같이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누이의 말은 마디마디 내 가슴을 훑어 내리었다.

《인생이 고행이라지만 그래도 이성의 따뜻한 정으로 서로 찬바람 막아 주며 회로애락을 맛보는데 언니만은...》

누이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삼키려는데 입을 감쌌으나 서럽게 새어 나오는 흐느낌안은 막지 못했다.

《그만해라. 가혹한 이 세상에 제물처럼 바쳐 진이가 그 한사람뿐이냐. 그래도 끝은 뜻을 끝까지 세웠으니 한이 없지.》

누이의 마음을 늦추어 주려 나는 애써 대범하려 했으나 자연히 목이 메어 더 말을 할수 없었다.

방안에 침중히 흐르는 침묵속에 간간히 새어 나오는 누이의 흐느낌을 들으며 나는 로대로 나갔다. 어느새 뒤따라 나온 누이가 모세타를 씌워 주었다.

《필적이라도 남긴게 없나?》

《일기두 편지두 있긴 한데 현이가 다 간수했으니 기다려야지요.》

내 건강이 안심치 않아 누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 기색이었다.

(생각만 있으면 현이의 서랍을 열고 찾아 보련만 내 걱정이 덧쌓일가봐 넘려하는것 같았다.)

천지에 드리운 어둠처럼 내 마음은 답답해 졌다.

이 땅에 숙명처럼 드리운 암흑은 장장 반세기 고통과 죄악만을 뿌리며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피와 눈물만 자아내는데 새날을 불러 올 려명은 과연 언제 비낄것인지...

《아무래도 내 다도해를 찾아 봐야겠다.》

《아니 그 몸으로요? 몸두 추서지 않았는데... 그 건 안돼요.》

내 건강을 아이처럼 보살펴 주는 누이는 대뜸 놀라와 했다. 내가 묵묵부답으로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피워 물자 그도 조용히 다가섰다.

《저두 그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호남에 갔던 현이가 며칠새루 오겠는데 그때 상론해 보세요.》

누이는 어째서인지 못내 안심치 않은 기색이었다.

3

호남지방에 내려 갔던 현이는 예정보다 이틀이나 늦어 돌아 왔다. 현숙한 중년부인의 경건한 자세가 완연했지만 나에게만은 20대 처녀시절로 돌아 간듯 다감한 정을 다 쏟아 부으며 무척 반가워했다. 했으나 제 어머니한테 내 부탁을 듣자마자 웃음발이 어리였던 눈이 커졌다.

《다도해라고요? 먼 차길에 또 배길까지 그 몸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큰아버님, 고쳐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라면 쌍수를 들고 나설줄 알았던 그였기에 어느덧 허거운 생각이 서서히 고여 올랐다.

《아무리 멀다 해두 마음까지 멀어 저서야 되겠냐.》

현이와 함께라면 천리도 마음을 놓겠다고 하자 그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다.

《실은 래달 초에 경인지구에서 벌리게 되는 <통일연구회>준비때문에 시간이 막급해서... 그러지요.》

참 거기서 비전향장기수송환을 요구하는 문제도 나서는데 큰아버님이 참가하셔야지요》

《래달 초라면야 아직 시일이 있는데 며칠 짬을 내도 되지 않겠냐.》

《참 공연히 그러시네. 몸이 완쾌될 때까지는 그 일을 미루세요.》

서늘한 눈길에 미소를 피우며 내 두손을 다정히 잡아 흔들었으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조심히 나를 지켜 보던 현이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내려 갔다.

그가 짜준 일과대로 점심후에 서정가요를 들으며 반시간 낮잠을 자고 나니 뜻밖에도 머리맡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보니 정양지에서 경아가 순희에게 보낸 편지였다.

경아의 채취가 스민 속지를 뽑아 드는 나의 가슴은 벌써부터 떨리었다.

제 모습처럼 둥글둥글하게 곱게 박아 쓴 편지의 글줄을 보느라니 나의 눈앞이 자연히 흐려 진다.

《...순희,

내 인생의 마지막굽이에서 우리 서로 철부지시절에 애어린 목소리로 찾던 그대로 정다웁게 불러보자-용서해...

손 잡고 뛰어 놀던 동요시절이 그림구나. 아니, 너와 나 둘이서 순희 오빠의 손을 하나씩 갈라 쥐고 숨차게 달려 가던 유년시절보다도 <순희 오빠!> 불러 놓고도 숫저워 얼굴 붉히던 때가 더 그리워!

정말 몰랐잖어.

그이와 정을 나눈것이 내 한생 짐이 될줄은...

그래두 난 좋아. 또 부러운것두 없구. 그이를 사랑했는지? 존경했는지? 답을 찾기 어려워.

지금 와서 오랜세월 서리서리 엉키다 못해 내 가슴에 응어리진 갈피를 하나둘 헤쳐 보니 뜨거운 사랑이나 사심 없는 존경으로 이름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한 믿음이었어.

믿음이 인생의 힘인줄은 다는 몰랐던 나는 멀고도 험한 인생길을 혼자 걸어 오면서두 외롭지 않았어.

필생의 연고가 우리를 믿음으로 맺어 놓았지.

넌 아직 내 마음 다는 몰라.

바리케트에서 싸우던 그 열흘나마 내가 의로운 그네들에게서 얼마나 큰 뜻을 받아 안았는지... 아니 그것두 다는 아니야. 제 생명으로 우리를 삶의 계선으로 건지여 보낸 그네들의 피 타는 갈망을 나도 받아 안았어. 애끓는 그 뜨거운 사랑도 함께 말이야. 그 고귀한 철리를 그이는 나에게 깊이 깨우쳐 주었어. 제 심혼이 새겨진 그림마다에 잇을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아니될 통일의 길박한 사명감을

말이야.

사실 그이는 바리케르트전에 섰던 그때부터 나를 딴 눈으로 보게 됐어.

(너한테만 고백하건대 그이는 나를 사랑했어. 그것두 남달리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내 심금을 하나하나 튕겨 보며 마지막 어린 심정까지도 후더운 입김처럼 포근한 정으로 그려 낼수 있었겠니. 미온의 정이 젖어 드는 그 손길 더듬느라하면 내 마음도 하냥 즐기워!)

내 홀로 있을 때면 그이가 넋을 기울여 그린 그 모습들을 지켜 보며 굳건해 지는 마음을 말없이 나누곤 해.

바위처럼 웅건한 그이의 큰 뜻에 가냘픈 내 몸을 실느라하면 마음은 끝없이 평온해 저.

면회를 가도 더는 만나주려 차지 않던 그이의 모진 말속에 사랑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었다는것을… 아니 뒤늦게나마 사랑보다 더 고귀한것을 나도 받아 안았어. 내 조국을 지켜 제 한몸 서슴없이 바쳐 싸운 고결한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안고 사는 그이의 장한 뜻을 말이야. 불로도 태울수 없는 억센 의지의 힘을 낳는 불굴의 그 신념이 우리겨레가 것처럼 갈망하는 통일성전에 비껴 있기에 의로운것이지. 나도 오로지 의로운 그 뜻을 지켜 소중한 인생을 다 기울이려 했을뿐인데 그마저 따르지 못하고 나 먼저 가게 되니 그게 더 안타까워.

순희! 언제인가 네가 말했지.

내가 손만 내밀면 재부도 단란한 가정도 행복도 어렵지 않게 차례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보다 크고 성스러운 모두의 뜻이 필생의 과제로 부르고 있어. 적어도 분렬의 아픔으로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겨레앞에 말이지.

령어의 몸으로 철창속에서도 그 뜻을 가슴에 안고 곳곳이 싸워 가는 그이를 지켜 주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남겠니.

난 그저 그이의 장한 뜻을 고여 주는 자그마한 조약돌이 되면 그만이지 더 바랄것이 없어.

홀로 산다고 외로운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된다고 부러울것도 없어.

에서 현이가 나를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 주곤했는지 친딸인들 그보다 더하겠나.

현이는 나를 한갓 이모만이 아닌 큰아버지의 큰 뜻을 받드는 내 마음을 알기에 그리도 극진하다는걸 난 알아. 아니 현이만이 아닌 수많은 <현이>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걸 난 뜨겁게 느껴!...

내 한생 남 부럽게 자매처럼 자별하게 지내온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해.

해마다 가을이 오면 그이한테 내 마음 전해줘. 내

가 먼저 간줄 모르게 말이야.

난 저세상에 가서도 그이의 장한 뜻만 생각할테야. 이젠 세월도 무섭지 않아.

…그이가 옥살이에서 풀려 나오면 (눈물자욱으로 범벅되었다.)… 날 찾아 먼 다도해까지 오지 말라고 해.

부디 찾겠으면 그이 장한 뜻이 실현되는 통일의 그날, 통일연의 축배잔에 부은 술 한잔 내 무덤우에 부어 주면 난 더없이 행복하겠어.

내 땅속에서도 오아시스보다 더 달고 시원하게 이 가슴 적시며 한떨기 소박한 들꽃으로 피여 나 그네들이 이 고귀한 청춘을 바쳐 지켜 싸운 조국강산에 나도 진한 향기를 더해 줄테야. 의로운 그 뜻을 따르는 내 마음 담아…》

저도 모르게 《헉-》 하는 흐느낌속에 시누런 눈물이 글자우에 떨어 저 어룡거린다.

《경아!-》

글줄을 삼키듯 읽던 내 가슴속에서 외마디 같은 부름이 새여 나왔다. 비몽사몽에 싸여 경아생각만 뛴고 있던 나는 건넌방에서 들려 오는 누이의 말소리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서둘러 나에게 편지를 보여 준 현이를 청원하는 소리다. 그제야 나도 눈굽을 닦고 나서 자세를 가다듬었다.

《오라버님, 찬물을 드세요.》

(경아는 이 땅 한끝 다도해까지 밝은 날이 오기를 바래 자기를 거기에 묻어 달라고 했다는것이다.) 찬물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몸이 한결 거뜬해 졌다.

그날 저녁상을 물린 뒤였다.

《태달 초에 모임이 있다고 했지?》

《네, 통일연구회요.》

내 눈치들 살피던 현이의 눈빛은 빛났다.

《나도 참가하겠다. 통일투사의 자격으로…》

《우리도 함께 나서면 비전향장기수송환이 꼭 실현될거예요. 북에선 모두 떨쳐 나섰으니까요.》

현이의 눈가엔 벌써부터 기쁨이 남실거린다.

《그래 실현되구말구. 그날이 오면 내 먼저 북으로 갈테다.》

《어머! 큰아버님은 고향도 친지분들도 다 여기에 있는데두요?》

현이보다 더 놀리와 하는것은 누이였다.

《혈육들이 옆에서 각근히 돌봐 줘두 불편이 많을텐데 아는 이도 하나 없는데 어쩔려구요.》

《모르는 소리, 혈육보다 더 뜨거운 동지들의 손길이 이끄는데야… 내 얼마나 바랬다구.》

그래도 누이는 벌써부터 눈물을 앞세우며 한사코 막아 나서는것이였다.

《오라버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말년에나마 혈친들과 세월을 두고

쌓인 정을 나누며 락을 봐야지요.》

내 눈치를 보는 현이의 눈가에도 물기가 그렇하니 맺히었다.

《내 왜 네 그 마음을 모르겠냐만 내 일신만 생각할수 없지 .

이 땅에 청춘을 바친 동지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게 아니냐. 그게 우리 겨레가 바라는 길인데... 내 여생을 다 기울일 생각뿐이다.》

정 깊은 눈길로 나를 지켜 보던 현이는 나의 손을 어루쓰다듬었다.

《이모도 그걸 바랬을거예요.》

가볍게 새여 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

드디어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이 실현되어 나는 분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

그날 배웅 나온 현이는 차에 올라서도 시종 두손을 잡은채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다감한 그 눈길은 말보다 더 많은 사연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고속도로로 살갈이 달리는 차가 분계선을 가까이 할수록 커다란 기대와 석별의 정이 엇갈린 그의 안색은 자못 심각해 지었다.

입을 열면 설음이 터져 나올것만 같아 입술을 옥물고 있던 현이는 레의 그 그림을 꺼냈다.

《이모가 고이 간직했던것이예요. 받으세요.》

《고맙다.》

수십년전 감방에서 전우들을 그리며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새겨 본 나는 그의 손에 쥐여 주었다.

《네가 고이 간수하거라. 이 땅을 지켜 싸운 선렬

들의 고결한 넋을 함께... 말이다.》

《명심하겠어요. 큰아버님, 저두 이모의 넋을 이어 살겠어요.》

《그래 너와 나 서로 헤어져도 이모의 뜻까지 합친다면 큰 힘이 될게다. 아니 북과 남의 우리겨레가 손 잡고 일떠서면 통일의지는 곱절로 솟구칠게다.》

어느새 북에서 불어 오는 시원한 바람에 실려 환호성이 들려 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현이와 나는 두손을 꼭 잡은채 시선을 모두었다. 현이의 두눈은 언저리가 불길하게 상기되며 불우물 패운 입언저리가 가볍게 물결친다.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함께 다도해를 찾아 가자꾸나.》

《큰아버님! 꼭... 만나요!》

서늘한 눈가에 물기가 서서히 어리다 맑은 눈물로 방울져 내리는 현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새겨 보던 나는 단아한 그 모색이 경아와 너무나도 흡사한데 다시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온 겨레의 주시속에 내 조국의 허리를 갈라 놓은 원한의 분계선을 나는 전우들의 피 타는 갈망만이 아닌 경아의 지향도 함께 안고 넘어 왔다.

애국의 마음이 한뫼으로 풀리는 길! 이 길 따라 서로 오고 가면 마음도 넓어 지고 통일의 문도 열릴것이다.

추기

나는 지금 푸르른 수양버들이 흐느적이는 보통강반을 창너머 바라보며 이 글을 쓴다. 지금도 나의 가슴속에는 그네들의 애국의 넋이 고패친다.

통일의 환희를 안고 저 멀리 다도해를 찾아 가게 될 그날까지 나의 수기는 계속될것이다.

수령님추억속에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의 관념속에는 자기라는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것이다 하는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관이였습니다.》

《그는 늘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의 정을 받는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자기 정을 줄 때가 훨씬 더 좋다는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철학입니다.》

바다밑에도 땅이 있다

박운

내 숨결 이어 준 그 품이 없다면
이 몸은 바람에 진 락엽 같으리
(현대가요중에서)

두 발자국이 찍혀 진 기슭에서

그는 자기가 왜 군복을 입은 아들을 이끌고 전송의 역두와 멀리 떨어진 이 기슭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해풍에 벗겨 지러는 군모를 벗어 든채 그는 뒤를 돌아 보았다. 멍하니 키만 자란 아들은 바람을 손바닥으로 막으며 따라 오고 있다. 실밥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새 군복옷깃에서 빨간 신입병사령장이 찢어지게 눈을 찌른다. 아들은 바위처럼 억세게 버티고 서 있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버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아들이건만 바람을 피하려 그의 품으로 기어 드는것이다.

김명석은 부지중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언뜻 한 길을 옆으로 물러 서려 했으나 어쩐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등지를 갓 턴 어린 해연 같은 아들을 광풍이 이는 아아한 창공으로 놓아 보내는것같은 심정이였다.

(하지만 아들이, 군사복무의 나날에 너의 깃은 억센 강철의 나래가 될거다.

그래, 이 아버지는 네가 대견하다. 아버지가 젊어졌던 세대의 바통이 나에게로 옮겨 지는구나. 아들이, 부디부디 우리 장군님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드는 기둥이 되어 다오.)

김명석은 말없이 돌아 서서 벌과 서해를 길게 엿가르며 뻗은 제방밑으로 내려 섰다. 썰물때여서 드러난 감탕모래땅위로 갈게들이 오골거리며 구멍을 찾아 들고 불그레한 소금풀들이 한창 독을 쓰며 기슭을 덮고 있다.

김명석은 배낭에서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들을 꺼내 제방밑 석축의 멀어 진 돌쪼매에 박았다. 그리고는 손때가 올라 반질반질한 메자루를 아들에게 내밀었다.

《힘껏 때리거라!》

《아버지!...》

아들은 안타까운 눈길로 역방향을 바라본다.

《일 없다. 아직 열차시간까진 멀었다. 녀석두, 천만리길을 가야 할 사람이 조급해 하긴...》

아버지가 빙그레 웃자 아들은 그제야 벌썩거리며 메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제법 사내답게 메질에 몰

동까지 생긴다. 제바의 석축 여러군데를 든든히 손질하고 나니 어깨에 땀발이 솟는다.

김명석은 제방우에 올라 서자 군복 옷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들었다.

《광철아, 이 제방이 언제 생겼는지 아니?》

아들은 손을 위로 올리다가 멈췄다. 머리를 긁으려다 군무생각이 났는가 보다.

《할머니가 그리는데. 오래됐대요. 조국해방전쟁 전이라던지...》

《그래, 광복직후였지. 네 할머니도 그때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이 제방을 쌓느라 치마폭으로 술한 돌을 날랐지. 그래서 오랜 사람들은 이 제방을 1호제방이라고 부른다.》

《나도 지난해 가을 양영수영웅부분대장한테서 들었던것 같아요.》

김명석은 아들의 말에 흠칫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적동색얼굴에서 크지 않은 눈이 번쩍 하고 빛났다. 그는 그 눈을 가늘게 찌프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드넓은 바다와 전야가 한눈에 비껴 들고 멀리 수산기지가 있는 옛섬이 가물거리며 안겨온다. 이 제방에 그대로 도로가 되어 별의 기슭이자 바다기슭을 이루고 있다.

영웅의 령혼이 깃든 땅! 애젊은 나이에 동지들을 위하여 한몸 서슴없이 내댄 영웅의 넋이 저 바다에 고이 잠들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의 세계의 기슭에 피여 난 영생의 꽃으로 땅과 바다를 물 들이고 있다.

겨울의 얼음바다, 폭풍에 흔들리는 전마선, 바스레기를 실은 수산부업선, 넋을 바친 조개양식장, 광란하는 물결, 일곱병의 동지들의 목소리, 광풍이 몰아 치는 얼음바다에 뛰어 들어 전우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영웅, 영생의 삶...

지금 김명석이 속한 구분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으로 양영수공화국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김명석의 눈길에 아프게 감겨 졌다.

이 피치 못할 제방을 걸어 간 두사람. 전세대와 후세대, 그들은 생활의 길에서 서로 마주친 일이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였다. 하지만 김명석은 그 두사람을 알고 있었다. 한명은 아버지였고 한명은 전우였다.

그 두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시기 다르게 찍혀 졌지만 이 길에 영원히 남았다. 이 운명의 제방우에! 그것이 어떻게 찍히고 어떻게 남았던가?

김명석의 얼굴은 한참나 아픔과 고통으로 이그러졌다.

김명석은 아들과 함께 제방길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아픔이 한순간 그의 심장을 비튼다. 그는 아들을 돌아 보았다.

《아야, 이 제방길을 툭툭히 새겨 두거라. 고향의 상징으로 가슴속에 깊이... 묻어 두거라!》

김명석은 심장 한구석이 지그시 결려 와 손을 가슴에 가져 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다.》

문득 손에 무엇인가가 집혔다.

김명석은 군복 왼쪽 옷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모서리에 철테를 두른 소박한 거울이었다.

김명석은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걱정으로 이그러진 네모진 얼굴의 40대나이가 마주 보고 있었다. 때 이르게 내린 귀밑의 흰 서리, 고뇌의 흔적인 저 눈섭사이에 패인 주름...

이 거울의 의미는 무엇인가?

얼굴의 외형을 살펴 보기 위해서인가?

우리는 밤낮으로 거울앞에 마주 서게 된다. 무엇을 보려는가?

김명석은 뚫어 지게 자기의 얼굴을 쏘아 보았다. 점차 초점이 흐려 지며 뿌연 적동색막이 아물거린다.

얼굴이 아니라 저밑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란 머리에 있단 말인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 가슴에, 심장이 가까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비쳐 보기 위해 얼굴을 들여다 본다. 마음은 눈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김명석은 거울을 아들에게 내밀었다.

《이 거울은 언젠가 바로 그 양영수영웅이 표창휴가로 고향인 강계에 갔다 와서 자기 분대원들에게 하나씩 준거다. 그때 나에게도 주더구나. 네가 건사하거라. 영웅처럼 자주 이 거울앞에 자신을 세워 보거라.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비쳐 보거라!》

멀리 벌 한끝에서 기적소리가 들려 온다.

김명석은 입대하는 아들에게 채 터놓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그냥 심중에 가득 차 해일처럼 넘실거림을 의식했다.

그래, 아들이. 너는 흔들리지 말고 뚝뚝하게, 억세게, 곧바로 걸어 가거라, 날아가거라!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바람 부는 운명의 제방길을 걸어 가고 있었다.

세대의 결산

비바람이 몰아 치고 있었다. 하늘과 땅은 온통 뽀

얀 비발속에 형체가 희미하고 파도가 길길이 솟아 올라 제방밑 석축을 물어 뜯었다.

퇴색한 군복에 홀쭉한 배낭을 진 한 청년이 제방쪽에 망연히 서 있다. 휘몰아 치는 해풍에 제방 안쪽의 관목숲마저 꺾어 질듯 사정없이 태질하건만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는 다부진 청년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는 먼 북방초에서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 왔다.

불 같은 혁명동지들의 집단속에서 잔뼈는 굳어졌고 배낭속엔 훈장과 메달이 들어 있었으나 그의 가슴은 텅 빈것 같았다.

중학생동창생들은 기사로, 교원으로, 군관으로 뿔뿔이 고향땅을 밟았으나 그는 그토록 가슴속깊이 소원하던, 굳이 자기의 존엄의 상징이라고 여기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귀향하였다.

...복무의 나날 명석은 나라앞에 죄 지은 아버지의 뿔뿔치 못한 생을 생각하며 복무를 더 잘하려고 애 썼다.

그러한 나날속에 그의 령장의 줄도 늘어 났고 훈장과 메달도 늘어 났다.

제대가 가까와 오고 전우들이 하나들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자 그의 마음도 들뜨기 시작했다. 나도 그 영광의 대오에 설수 있을까?!

그러한 때 그의 부대는 대상건설에 동원되게 되었다.

어느날 그의 분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과는 엄중하였다. 완공기일이 근 보름이나 지연되게 되었던것이다.

명석은 분대장으로서 그 책임을 맡아 나섰고 전사로 강직되게 되었다. 전사령장을 달고 묵묵히 일하는 그를 바라보는 지휘관들과 전우들의 눈빛은 저지기 무거웠다.

하여 그는 마음속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한채 제대되게 되었다...

그에게 먼곳의 새 일터를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김명석은 그 모든 따듯한 동정과 권고를 물리치고 나서 자란 못 잊을 땅으로 돌아 오고야 말았다.

그 누가 뭐라든, 낯을 들고 다니기 어렵든 난 이 고장을 뜨지 않을테다, 아버지의 치욕이 깃든이 제방을 지켜, 이 제방아래 펼쳐 진 바다에서 한생 조개를 잡은 할아버지세대의 뒤를 이어 조국의 재부들 건져 낼테다.

아버지는 한순간에 범한 죄를 조국앞에 씻기 위하여 홍안의 시절부터 근 반세기 바다와 함께 살았다.

그래, 아버지의 잘못을 이 아들에 씻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에서 걸음마를 떼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로부터 우리 말을 익힌 조선청년이라고 하랴. 그렇다. 나의 대에 씻지 못

하면 아들대이라도 조국앞에 지은 아버지의 죄를 씻으리라. 몇몇한 공화국공민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고귀한 칭호인 당원의 영예를 지니리라.

비바람은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으나 심장은 격동으로 달아 오른다. 북방의 동지들속에서 다진 언약을 이 운명의 언덕에서 다시금 쇠못처럼 심장에 박고 나니 한결 마음이 든든해 진다.

비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명석이 이 사람, 자네 여기에 있는걸 찾아 다녔구만. 그런걸 난 집에까지 갔댔지.》

《명관아바아!...》

채소한 몸집에 얼굴이 바다벌에 까맣게 탄 아바이는 손에 들고 온 비옷을 내밀었다.

《여길 먼저 찾은 자네 심정을 내 다 아네. 너무 마음 쓸건 없네. 그저 당을 믿고 곳곳이 한생을 바치겠다는 마음만 굳으면 되는거야. 그게 이 제방처럼 드물지 않으면 돼!》

《아바이, 제 구실을 못하고 돌아 온 이 못난 놈을 고향사람들이 받아 들일가요?》

김명석은 처음으로 나약해 지는 속심을 이 수더분한 아바이에게 내비치고 싶은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람두, 어찌면 그런 생각을 다 하나? 그게 어디 자네탓인가? 그리고 고향사람들을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바다에서 한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네두 짜개바지때부터 바다에 길 들었는데 보게, 바다야 넓구 억세지. 그래서 바다사람들이 아닌가.》

명관아바이는 김명석의 등에 손을 얹고 재방길을 걸었다.

《명석이 이 사람, 너무 외곬으로만 생각지 말라구. 사내라는게 마음을 좀 크게 가질줄 알아야지. 이젠 모든것이 자네자신에게 달렸네.》

《고맙습니다, 아바이.》

비발이 좀 뜬해 지는것 같다. 김명석은 안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라이타불이 적은 담배끝을 겨우 말리며 타들어 갔다.

《사실 요즘 조개잡이가 신통칠 못하네. 로력도 문제지만 운반이 걸렸거든. 우리가 부업선을 잘 놀려야 군인들의 식탁이 나아지겠는데...》

《아직도 아바인 바다일을 보십니까?》 .

김명석은 예순이 가까운 아바이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명관아바이는 아직도 하얀 이새를 보이며 빙그레 웃었다.

《허허. 내가 바다를 떠나서 살수 있겠나? 임자아 버지랑 한생 배운게 조개잡이지.》

이보라구, 명석이. 부대에서는 이번에 립시수산부업조를 자네에게 책임지우기로 결정했네.》

《제가요?》

《한번 제대군인답게 배심 있게 내밀어 보라구.》

우리 오랜 내기들이 뒤에서 잘 밀어주지 않으리.》

《...》

《왜 자신이 없나? 젊음이답게 본때를 보여 주게. 지금이야 전쟁때라구 화구를 막고 고지를 치달아 영예를 떨치겠나. 자기가 맡은 일터가 비록 눈에 띄지 않게 작아도 거기에서 크게 실적을 내는게 바로 충성심이야.》

이게 바로 당에서 바라는거야.》

김명석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번뜩이었다.

《세포비서아바이, 제 마음을 알아 주어 고맙습니다.》

《자네두 원! 됐네. 사람들두 좋으이. 장철이, 오아주머니, 해남이...》

그저 앞장에만 서주게!》

명관아바이는 웃으며 김명석의 등을 철썩 갈겼다.

림시수산부업조

석양이 불 타는 귀항길, 검푸른 물결이 조심스레 배전을 쳤다. 바다새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분주하게 선미쪽에 붙어 날았다. 저녁바다가 어찌나 잔잔한지 새의 나래소리가 유포하게 들려온다. 김명석은 바스레기조개무지우에 비스듬히 누워 감빛창공을 이윽도록 올려다 보았다. 연한 실구름이 그 아름다운 창공에 신명한 푸른 선으로 길게 건너 갔다.

아직도 무릎아래도리가 감미로운 바다물의 애무를 받는듯 상쾌하다. 김명석은 슬며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삶의 충만감속에 잠간사이 흘러 가버린 벅찬 로동의 한순간이 불현듯 떠올랐다.

조개잡이란 본초를 다루는 긴장한 전투이다. 썰물과 밀물의 교차점, 그것은 대양의 나이에 비하면, 한찰나에 불과하다. 물이 가슴노리에 내려 앉을 때부터 본격적인 조개잡이가 시작된다. 수위가 무릎아래까지 내려 갔다가 다시 가슴속까지 오르는 한시간이 채 못되는 순간이 조개잡이군에게 차례진 기회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다. 이 순간을 더 지체하면 밀물이 달려 들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조개잡이는 열성보다도 다분히 경험에 의존한다. 그래서 조개발위치를 잡는 일은 바다귀신인 명관아바이 말고는 어방도 없다.

김명석은 몇달새 흘러 가버린 로동의 나날 이것을 날마다 절감하였다. 덕분에 립시수산부업조는 이 아근에서 생산량이 부쩍 앞서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립시수산부업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 졌다. 몇명 안되던 인원도 보충되고 전마선이 발동선으로 바뀌었다. 늘 얼굴에 메산자가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홍부장의 입에도 가끔 격에는 맞지 않으나 싫지 않은 성구속담이 묻어 다녔다.

《역시 젊은 패가 달라. 지금처럼 나가단 이 수산 분조에서 로력영웅이 나올지도 몰라! 썩 잡는게 때라니!》

그 《매》는 더 높이, 더 빨리 날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날아야 할 창공이 비좁았다.

배 한척,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안되게 말해서 뜨내기 투기업에 불과한것이다.

김명식은 가볍게 큰 숨을 내쉬었다.

《왜 한숨이예요? 총각이 장가들 생각이 인 모양이지?》

《오드살》이 다가와 호리호리한 몸매에 비하면 별로 커보이는 엉치를 조개무지에 쿡 박으며 은근히 속삭인다.

남편이 주변 무역지사의 수출입과장인 이 녀인은 말하자면 수산부업조의 《참모장》격이다. 아침 조희때마다 가끔 결론이든가 결속 비슷한 발언을 하곤 하여 명관아바이의 눈총을 사기도 한다.

《오늘은 예비조개발을 돌아 보느라 좀 늦었는데 가정부인인 오아주머니한테 안됐습니다.》

김명식은 팔베개를 거두며 일어 나 앉았다.

《안돼진! 바다녀인의 생활에선 흔히 있는 일이지. 남편이 해주는 밥을 먹을 재미도 있더라니까.》

《오드살》은 팔꿈치도 친근하게 김명식의 옆구리를 찌르며 활짝 웃었다. 석양빛빛에 유표한 금이가 반짝하고 빛난다.

녀인은 김명식의 턱밑으로 바투 다가앉았다.

《총각, 그렇게 누래서 앉아만 있지 말고 내 처녀 하나 소개해 줄가?

간단치 않은 대상이야. 우리 세대주네 지사장파님, 교원대학을 다니다 중퇴했는데 이 아근에선 일등공주지. 안면이 넓은 지사장령감이 그 외동딸앞에서는 부처님이 된단가. 하여간 복을 잡을수 있어.》

녀인이 웃었다. 해사한 얼굴이나 웃음이 좀 징그럽게 느껴 진다. 김명식도 열적게 따라 웃으며 상념에 잠겼다.

처녀, 가정! 그것은 저 먼 수평선너머의 뽕안 회백색안개에 휩싸인 아름다운 신기루였다. 형체는 있어도 실체는 없는...

김명식은 머리를 숙였다. 이 몇달새 당한 서글프고 먼구스러운 사연들이 머리속을 스쳤다. 어머니의 친구들과 형님이 몇번 줄을 놓아 선을 보았으나 그때마다 결실은 없었다.

김명식의 가정에 대한 리상은 높은것이 아니었다. 그저 녀자가 수수하고 마음씨만 어느정도 고우면 그만이었다. 그 기준이 그리도 높은것이었던가. 첫눈에 처녀들의 불은 빨강계 타고르곤 했으나 며칠 후에는 별안간 침울해 지곤 하였다.

《그러다가 오아주머니 낮이 짝이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내뱉는 대답이었으나 그것은 진심이었다.

《어라, 솟저워 하긴. 어드래서? 제대군인이겠다, 내밀성이 있겠다, 남자싸겠다...》

김명식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명관아바이가 똑한 얼굴로 다가오자 《오드살》은 선수쪽으로 몸을 사리었다.

《어험, 담배 있나?》

《<해당화>밖에...》

《허허, 그게 어째서. 얼마나 이름이 좋은가. 바다냄새가 나거던.》

아바이는 담배를 몇모금 빼금빼금 빨다가 흘금 김명식을 올려다 보았다.

《이보게, 책임자. 임잔 지금의 생산량에 취했겠지? 린근에선 다들 김명식이 하면 <조개미치광이>라고 아우성이니까.》

김명식은 우울하게 눈길을 들었다.

《비서아바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은 저도 자나깨나 그저 그 생기뿐입니다. 만족이다 뭘니까.》

《그래, 생각해 듣게 있나?》

《결정적으로 발동선 한척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배는 바다에 늘 떠서 조개를 캐내고 다른 배는 계속 운반해야지요.》

명관아바이의 눈이 빛난다. 그는 꿈초를 배전너머로 휩 던졌다.

《웁네. 생산을 늘이고 정상화하려면 그 길밖에 없어. 임자 잡도리가 괜찮아. 배 한척이라...》

김명식은 작업복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다.

《이런 형태로 개조한 배를 한척 무으면 고정로력과 가두로력까지 많이 싣게 되니 아마 지금보다 생산을 적어도 몇배는 올릴수 있을것 같아요. 이 배는 전문운반선으로 쓰구요.》

명관아바이는 신중한 눈길로 수첩장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귀가 벅글썩 열렸다.

《알겠네. 모두가 달라붙으면 못할게 없지. 우리 마음 먹고 자체로. 만들어 보세.》

김명식의 작은 눈도 확 밝아 졌다.

석양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먼 수평선을 물 들이고 있었다.

먼 별빛

김명식은 부두옆 크지 않은 휴계실에 앉아 줄곧 생각에 잠겨 있었다.

새 배무이가 끝나 조개잡이는 이즈음에 들어서서 엄청난 기록적인 수자어로 치달아 올랐다. 그것이 부대후방일군들라 주변사람들을 깜짝 놀래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불안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거의 달포씩 바다현장의 배우에서 젊은 축들과 침식을 하면서 조개를 잡았다. 책임자가 얼굴

이 까맣게 타서 바다에 툇고 앉으니 운반은 손탁이 켜 《오드살》이 말아서 진행했다. 사실 어떤면에서는 잡는것보다 운반해서 선별제량하여 입출고시키는 일이 더 악을 써야 할 번잡한 사업이었다.

그리 눈에 뜨이지도 않던 자그마한 수산부업조가 새로운 방법(그것을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수있겠는가. 그저 배 한척에 사람들을 싣고 우르르 밀려나갔다가 조개와 인원을 다 걷어 싣고 들어와 짹짹이 낚시를 보가며 나가던 일이 끊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다작업이 진행된것이지만.)으로 실적을 내기 시작하자 가두 로력들도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생산실적이 엄청나게 오르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 지고 어로기구들은 날을 따라 갱신되었다.

하지만 김명석은 모두의 관심이 커갈수록 생각이 깊어 졌다.

이제는 가까운 바다의 조개밭을 다 파먹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것이다.

더러 급한 축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애조개까지 마구 퍼올리고 있었다.

《바다귀신》인 명관아바이도 선별에서 걸려 되는대로 내버린 잔조개무지들을 어두운 눈길로 바라보며 혀를 찼다. 아직은 그 아바이덕으로 보이지않는 바다밑에서 수산부업조가 계속 실리 있는 《노다지》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터였다.

바다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바다 멀리 어디까지 나가야 할지 모른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 썰밀물이 교차되는 지점의 수위가 사람의 키를 넘으면 만사는 끝장이다. 벌써 바다 현장에서 1호제방이 보이지 않은지가 오래다.

(생활이 일시 어렵다고 바다의 귀중한 자원을 써도 없이 말린다면 후대들이 우릴 보고 뭐라 하겠는가.

이제 애국심이 있는 행위인가.

일찌기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바다가 양식을 착실히 해아줬는데 우린 애초부터 그걸 켜 던지고 마구잡이로 바다를 뜯어 먹고 있다.

어머니바다는 신음하고 있다.

설리도 얼마 못 갈것이다. 빈 바다에서 무엇을 캐낸단 말인가?...)

고뇌속에 손더듬으로 담배갑을 찾으며 그는 휴계실안의 사람들을 둘러 보았다.

《오드살》이 김명석의 눈치를 흘끔흘끔 살피며 주위의 장년축들에게 무슨 말을 해대는지 일시에 가버운 목소가 터진다.

요즘은 《오드살》과도 관계가 어성비성해 졌다.

그 녀인이 분주하게 뛰어 다니며 나선 일도 마감 무렵에 와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김명석이 큰 기대를 건것은 아니였으나 결국은 아버지문제가 또 일을 잡친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오드살》의 눈길이 땡땡해 지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불만을 터뜨렸다.

어제 배수리때문에 운반선과 함께 현장을 철수했을 때였다.

《오드살》이 부두에 바줄을 걸고 있는 김명석의 곁으로 썰 다가오더니 허리에 손을 짚었다.

《이보라구. 로총각, 이번엔 집중해서 새 배수리만 하구 저 할망구 같은 낚은 뺨 폐기하는게 좋겠어.》

고기비린내에 야릇한 향수냄새가 섞여 돈다. 진한 그 냄새가 어둠속에서도 그 녀인의 자취를 늘 알려 준다.

김명석은 바줄을 매고 일어 섰다.

《그러지 않아도 바다현장이 멀어 졌는데 배 한척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계획이나 보장하겠습니까.》

《흥, 계획이라든지야 우리가 올려 놓은거지. 사람들을 아껴야 해요. 다들 녹초가 됐지. 바다일은 예로부터 낚시를 보가며 이력저력 하는거야. 올릴땐 올리구 썰 땐 쉬구... 이제 누구 낚을 내긴가 말이에요!》

더 높이, 더 빨리! 머리를 짓수그렸다.

녀인의 눈길이 그의 정수리를 탐조등처럼, 아니 가시처럼 내리 쪼른다...

오늘은 좀 말을 해야겠다.

김명석은 사업일지를 뒤적였다.

휴계실 출입문이 열리며 찬 기운이 뜨겁게 단 그의 얼굴에 와닿았다.

《이 사람, 책임자.》

명관아바이는 옆구리에 낀 책을 주밋거리며 손에 내려 들었다.

《아바이세요? 저 이...제》

《응, 이 사람 책임자 우리 말일세. 모임을 좀할가 하네.》

아바이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예?...》

《!...》

김명석은 불시에 얼굴인 확 달아 올랐다.

그리고 보니 휴계실에는 당원들만 모여 있었던것이다. 찬 기운은 《오드살》이 앉아 있는 쪽에서 이미 뻗쳐 오고 있었던것이다. 김명석은 모닥불을 뒤집어 쓴것 같은 감촉속에서 어느새 출입문을 나섰는지 몰랐다. 밖에 나와 출입문에 등을 대고 두눈을 감았다.

무엇때문에 네 얼굴이 붉어 졌느냐. 너의 처지에서 모멸감을?... 너무도 웅당한 현실앞에서... 하지만 단 얼굴은 인츰 식어 들질 않는다.

《이보라구요. 비서아바이, 우리가 언제까지 저 사람의 지도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우?》

여느때없이 모를 세운 《오드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김명석의 귀를 아프게 때렸다.

털썩, 책이 나무책상에 놓이는 소리.

《오동무, 무슨 소리 하느지요? 당조직에서 그만

큼 말했는데 또 무슨 비뚤어 진 소리요.》

《비뚤어 진, 소리요? 그리 우리들속엔 이 수산분조를 이끌 똑똑한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반동의 아들에게...》

《오동무! 동문... 관직을 바라고 당에 들어 왔는가! 젊은 제대군인이 바다에서 침식을 하며 그만큼 아글타글 오늘까지 일해 있는데 우리 당원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잘 받쳐 주면 뭐가 나쁜가? 개인 감정을 앞세우는건 좋지 않소. 남의 진심을 그렇게 모욕해선 안되단 말이요.》

눈물이 앞을 가렸다.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발길이 가는대로 내쳐 걸었다.

내가 정말 오지랖이 넓은 놈이구나. 내 주제에 당원들이 시퍼렇게 살아 숨 쉬는 대오의 앞에 서려 하다니. 아니, 그 진실하고 미더운 당원들이 대중속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기에 오늘의 성과를 낸것이 아닌가.

그래. 오아주머니의 말을 탓하지만 말자. 그의 심정을 이해하자. 그 녀자의 외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끌려 갔던 반동단체에 의해 피살되지 않았는가. 그건 응당하고 원칙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인격이나 자존심이 서 있을 구석은 어디에도 없다.

신뜻한 바람결에 눈을 떴다. 어느새 그는 1호제방가에 와 있었다. 바다가 어두워 가고 있었다. 제방밑에서 돌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심중 아래로 눈길을 달렸다.

《누구요?》

몸이 다부진 군인 한명이 제방턱에 올라 섰다. 저녁빛에 인상적인 까만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그 군인은 군복팔소매를 내려 붙였다.

《수산부업조 책임자동지구만요. 그새 안녕하십니까.》

《아, 초소의 양영수동무구만.》

김명석은 반가와 하며 병사의 손을 잡았다.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 가다 보니 석축의 돌이 들떠 있길래...》

《허, 정말 용한 생각을...》

《아닙니다. 전번에 이 제방에 대한 책임자동지의 말을 들은후부터 그제 무심히 지나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 분대원들도 다 같은 생각인걸요. 이 제방길이자 우리 초소길이 아닙니까.》

양영수는 생각에 잠겨 제방끝에 자리 잡고 있는 초소를 바라보았다. 초소결에는 림시수산부업조의 작은 부두도 함께 있었다. 바다의 한창철엔 구분대도 부업조의 일을 적극 도와 나서곤 했다.

《영수동무의 말이 오늘은 오히려 내게 힘이 되지만.》

《책임자동지가 알려 주지 않았습니까. 이 제방이 든든해야 이쪽 벌엔 오탁이 넘신거리고 저 바다엔 조개발이 풍년이 든다고...》

양영수의 말이 무심하게 들리지 않는다.

양영수가 가버리자 김명석은 제방쪽에 주저앉았다. 담배를 찾았으나 휴게실에 그냥 두고 온 모양이다. 그는 제방아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곳에 앉으니 어쩔선지 마음이 안정되는것 같다. 그는 아예 팔베개를 하고 제방우에 누워 버렸다.

검푸른 창공에 희미한 별이 하나 나타나더니 점차 살아 나는 다른 별들속에서 선명해 진다.

눈을 감았다.

파도소리, 바람소리... 어디선가 먼 곳,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 오는 목소리, 김명석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 그 망태기에 든 애조개는 왜 바다에 뿌리나?》

《그래야 이태후에 크게 자라지.》

《그럼 발에 씨를 뿌리는것과 같나?》

《그럼. 저 바다밑에도 조개발이 있지 않니.》

《야, 그럼 넓은 바다가 다 발이나?》

《명석아, 저 제방이 보이지?》

이 넓은앞바다에 늘 조개가 옥실거리게 하려고 제방을 쌓았단다.》

《아버지도 쌓았나?》

《이 못난 아버지는... 저 제방에 돌 한개 없지 못했구나. 음... 오히려 그 돌을 허물었다고 해야할지...》

《아버지, 그건 무슨 소리나?》

《명석아, 그제 저 제방이 억척같이 든든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나라를 튼튼히 다지는 길이란다.》

...김명석은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마음속에서 파도가, 격랑이 일고 있었다. 주위는 어둡지만 마음의 하늘이 들리고 있었다.

그 누가 뭐라든, 가는 길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나는 이 길을 드림없이 가야 한다. 나의 세대에 그 어떤 빛나는 정신적결실을, 보수를 나는 바라지 않겠다. 나의 제방을 쌓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생기고야 말 나의 자식들이 그 제방길을 활개치며 건게 할테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그래도 갈테다. 죽을 때까지 갈테다. 물러 서지 않을테다. 그 무엇도 바라는것이 없다. 오직 바치자. 바치는데서 내 생활의 행복을 찾자.

바다 멀리에서 외로운 불빛이 반짝인다. 어느 짐배의 불빛인가, 눈물속에 바라보니 그것이 불빛인지 별빛인지 가려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바다 먼 창공에 뜬 별이기를 속으로 바라고 또 바랐다.

보이지 않는 대지

뜯앞 추리나무에 열매들이 빨갭게 익었다.

부루가 오른 밥상, 불빛, 고즈넉한 침묵...

《...》

《텔레비존까지 다 없애야 하겠니?》

《너석이면 이게 어머니의 유일한 길동무인줄 알아요.》

《허허, 일 없다. 네 하는 일만 잘된다면 난 저 고성기소리를 듣는것 하나로도 만족하다.》

《어머니, 이중에서 얼마만이라도 좀 펴줄가요?》

《너석두, 펴구졌으면 네 색시 데려 올 때 쓸 레장 값이라도 펴줄게지. 하지만 일 없다. 산 사람입에 거미줄 쓸겠니. 우리야 바다를 끼고 살지 않느냐.》

어머니의 눈에는 따뜻한 빛같이 흐르고 있다. 인간의 눈에 그런 빛이 흐르면 너인의 얼굴은 늙어도 아름다와 보이고 고결해 보이는것이다.

김명석은 두툼한 봉투를 손으로 쓸어 만졌다. 부모들이 근 40년세월 저축한것이다.

《어머니, 이렇게 마지막한푼까지...》

《명석야, 돈이란건 쌓아 뒀야 흑심만 더 크는 법이다. 네 아버지도 아마 기뻐 할게다.》

그저 우리 제도만 지키구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일 없다.》

김명석은 혼혼한 마음으로 부두를 찾아 갔다.

상가대에서 갓 내려 온 배의 란간에 색감을 먹고 있던 명관아바이는 김명석의 용단에 처음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온몸이 굳어 저 버렸다.

썰물때여서 개바닥이 드러나 기슭은 여간 살풍경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그것대로의 바다의 미묘한 풍치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김명석은 명관아바이의 눈치를 살피며 묵묵히 기다렸다.

명관아바이는 바다물에 손을 썩썩 비비고 나서 움쭉 몸을 일으켰다.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 남들이 마구 캐서 불합격된 애조개들을 제 돈으로 사다가 저 한바다에 뿌리잔 말이지? 그제 밀 빠진 독에 물붓기로 끝나면 어찌려나?》

아바이는 미심쩍은듯 떠보는 눈초리로 김명석의 너부죽한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김명석은 조용히 웃었다.

《비서아바이두 참, 그제 왜 밀 빠진 독이겠습니까. 우리 땅에 씨를 뿌리는것이지요.》

아바이도 전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해보았다고 하셨지요?》

《허허. 그제 언젠데. 그건 제방앞기슭에 터밭정도 넓이로 해본거지. 품두 들거니와 인내력이 있어야 했지. 공것이 있나.》

명관아바이는 실눈을 하며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웁습니다. 품도 들고 인내력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이태씩 애조개들을 키워 계단식방법으로 차례차례 캐나간다면 바다도 살 찌우고 실적도 더 낼게 아닙니까. 지금은 큰 조개, 작은 조개 막 끌어 내니 바다가 어떻게 돼갑니까. 난 이게 가슴아파서 더 그렇니다.》

김명석의 절절한 말에 아바이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여보게, 내가 분명 헛나이를 먹긴 먹었네그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바다밑의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을 기다린단 말이지?》

《기다리지만 말고 짹짹이 보습형식의 갈구리로 가로 세로 모래흙을 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개들이 숨도 편히 쉬고 먹이감도 모여 듭니다.》

아바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래그래. 이건 정말... 애국심에서 나온 보물같은 생각이야. 자네의 마음이 더 가슴을 치는구만. 한번 해보세. 하루살이식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하는 일인데 이거야말로 장군님의 뜻을 지키고 따르는게 아니겠나.》

《아바이가 지지해 주니 힘이 생깁니다.》

김명석의 적동색얼굴에 웃음이 살아 났다.

명관아바이는 다시 미간을 찌프렸다.

《하지만 이 사람, 그 보따리는 걷어 놓게. 집안사람들도 생각해야지. 아니 늙은이앞에서 텔레비존까지 들어 내다니. 그럼 못 쓰이. 자금은 내 우에다 제기해서 어떻게 해결해 봅세.》

김명석은 아바이의 앞을 막아 섰다.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아직은 시작인데 어떻게 나라에 손을 내밀겠습니까.》

먼저 시험적으로 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아바이야 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이건 자그만 사심도 없는 저의 진정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라 빠진 사심인가. 그제 이 보는게 내 마음에 걸려서 그러네. 자네가 동지들을 믿지 못해 그러는것 같아 그런단 말일세.》

《아닙니다. 아바이, 동지들을 귀중히 여기기에 제가 책임지고 해보겠단겁니다.》

《후-》

명관아바이는 주저앉아 애긋은 담배만 지독스레 빨았다....

보이지 않는 대지건만 땅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간에게 응당한 결실을 안겨 주었다.

주변의 다른 단위의 애조개 수십톤을 사들여 제방앞 넓은 바다땅에 때 맞추어 뿌리곤 했다.

하루살이식끓어내기에 습관된 일부 사람들은 이 일을 쓴외 보듯 했다.

《오드살》은 펄쩍 뛰며 련일 불평을 늘어 놓더니 기왕에는 언제부터 눈독을 들이던 옆의 생산단위로 훌쩍 가불었다. 어찌나 착 불었는지 몇달 못가 당당한 책임자로 발탁되어 제나름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루이틀을 내다보는게 아니였다. 김명석이네는 판눈을 팔지 않고 부지런히 《땅》을 알심 있게 가꾸었다.

이태후 바스레기는 끌고루 큰 조개들로 자라나 수확의 알찬 기적을 가져 왔다.

처음에 미심쩍은 눈치를 보이던 홍부장의 입귀가 반달형으로 길게 찢어 졌다.

중앙과 지방의 기자들까지 찾아 왔다.

《이보시오. 기자동무들, 이 바스레기란게 유독 우리 나라 서해에만 서식하는 세계적인 특산이란말이요. 중국연안쪽으로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가 기본이요. 이 <조개미치광이> 김명석이가 큰 일을 했소. 이제 <명석조개>라면 어디서나 손을 내미오. 솔직한 말로 우리옆의 수산기지에선 백명이 넘는 인원으로 한해 열댓톤 캐내는것을 이

<조개미치광이>는 스무나문명으로 수백톤계선을 돌파했거든. 대틀이요, 대틀! 국가에 수백만원을 기여했던 말이요.》

기자들앞에서 열변을 토하던 홍부장은 저녁녁에 명석을 따로 불렀다.

《명석동무, 내 말이요. 동무문제를 이미 상급에 제기했소.

솔직한 말로 내 전에 <오드살>의 말을 듣고 아예 수산부업조를 해산해 버리려했는데 큰 실수를 할 뻔 했소. 역시 아낙네들의 말에 귀 기울일건 못돼. 암탉이 울면 수탉이 알을 낳는단가...》

가벼운 웃음이 나왔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부장동지, 이해부런 우리 기지자금으로 대담하게 양식발을 열정보쯤 더 넓혔으면 합니다.》

홍부장은 기세 있게 손으로 허공을 찍었다.

《좋아, 해보자우. 대담하게 일판을 벌리기로. 그 <오드살이> 다른데 붙어 수산기지를 책임지고 육속한다는데 너자한테 질수야 없지.》

《...》

김명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인원과 부두 문제때문에 시기 많은 그 녀인과 더러 신경이질이 있었다.

명관아바이가 오녀인을 만나 전망성 있게 양식발을 함께 조성하자고 권고하였으나 눈앞의 실적에 달 뜬 이 녀인의 고집을 꺾을수는 없었다.

《바다에 가까운 돈을 마구 뿌려요? 조개야 예로부터 저절로 자라는건데 이제 보라요. 하루아침에 떨어지로 나앉지 않나.》

소원대로 책임자가 되었으나 녀인의 드살만은 더 세련된 가고 있었다. 몇해사이 회초리 같은 몸이 《중량감》있는 《절구통》으로 《발전》한것이 큰 변화이다.

국토부문일꾼들은 바다속땅을 양식장으로 떼여 주는데서는 손이 컸다. 김명석은 큼직한 도장을 퍽 퍽 찍어 주는 일꾼들의 모습앞에서 속으로 웃었다. 바다속의 땅은 아직 그들의 눈밖에 있었다.

했어도 김명석에게는 그 땅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물땅이었고 제 살점보다 귀한 조국의 대지였다.

늘 바다에서 살았다. 물우에 뜬 배가 그의 집이었고 출렁이는 바다가 프락이었다. 씨 뿌린 보이지 않

는 대지를 바라보며 지키며 가꾸며 바다에서 해를 맞고 달을 보냈다.

먼 산촌에서 안해도 데려다 놓으니 집안에는 이제 윤기가 돌았다. 안해 김순영은 밀이 없는 온순한 녀인이었다. 어머니도 말이 없다 나니 두 녀인은 종일 묵묵히 집안일들을 해제쳤다. 어느 휴식날 김명석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그 두 녀인과 함께 머리쉽하다가 자그마한 발전에 은근한 충격을 받았다. 두 녀인은 해종일 몇마디밖에 주고받지 않았으나... 또한 온종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눈의 대화였다. 그 대화는 다정한것이었고 솔직한것이었고 완전한 호상리해를 주는것이였다...

한밤중에 폭풍이 일었다. 김명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폭우와 바람에 시달리는 문을 차고 달려 갔다.

문득 뒤를 돌아 보니 안해가 아이들과 함께 문가에 서서 자기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안해의 품에서 둘째가 손을 흔들었다.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가슴속으로부터 몽클 치솟아 오른다. 그것이 나약해 지는 감정인가 아니면 강직한 심정인가?

김명석은 바다가로 달려 갔다.

폭풍에 산 같은 노도가 일어 서서 제방벽을 때렸다. 바다와 하늘이 노호하듯 한데 어울려 찢고 터치며 퇴성을 지른다.

그래도 김명석은 부두에 정박한 배에 뛰어 올랐다. 바줄을 풀려는데 누군가의 억센 손이 그의 팔을 부여잡았다.

《이보라구, 책임자! 죽자구 그러나? 저 파도를 보게! 곧 해일이야!》

김명석은 무서운 눈으로 명관아바이를 쏘아 보았다.

《아바이! 난 죽어도 좋습니다. 조개들을! 우리 땅을!...》

《정신을 차리라구!》

《아바이, 이 팔을 놓으세요! 저 땅! 저 바다가!... 날 보내주세요!》

그것은 거의 야성적인 울부짖음이었다.

김명석은 몸부림쳤다. 했으나 그것은 성난 자연의 횡포앞에선 부질 없는 허덕임이었다.

해일이 밀려 오고 있었다.

저쪽 작은 만의 반대쪽 부두에서 영차영차하는 숨 가쁜 소리들이 들려 온다. 두사람의 눈길이 그쪽으로 쏠렸다. 비탈속에 해불망치를 든 《오드살》의 모습이 보였다. 주련이 서 있는 배들을 상가대쪽으로 끌어 올리고 있었다. 폭풍이 치건 해일이 밀려들건 바다에는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은 《현명한》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김명석의 넓은 저 바다밑대지에 가 있었다. 그의 녀원이, 생활이, 투쟁이, 행복이 숨 쉬고 있었다...

폭풍이 멎은 며칠후 김명석은 우에서 내려 온 검

열조앞에 나세게 되었다.

한생과 한순간

《명석동무는 해일이 올걸도 예견해야 한다는걸 몰랐소?》

《바다물속의 땅이라 안전하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일은 동무의 그 무사태평한 어리석은 생각을 무시해 버렸소. 그래 해일이 지나간뒤 양식장을 돌아 보았소?》

《예.》

《그래, 무엇이 남아 있었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무는 무엇을 잃었소?》

《술한 바스레기를, 이제 보름후엔 채취해야 할 귀중한 조개들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동무가 잃은건 조개만이 아니라 엄청난 수자의 국가자금이요. 문제의 엄중성은 거기에 있소.》

《...》

《문건에도 있는것처럼 지난 몇해동안은 그 양식장들에서 동무가 우리의 상상과 상식을 훨씬 넘어서는 놀랄만한 생산실적을 올렸소. 그 조개덕을 여러 구분대들과 군내 인민들이 톡톡히 본것도 사실이요. 하지만 어제의 성과가 오늘의 파오를 삭감할수는 없지 않소. 이젠 원칙적인 문제요.》

(웁은 말이다. 어제날의 죄과와 오늘의 성과 그리고 래일의 파오, 시공간적개념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가야 할 길은 이제 또 얼마나 먼가.)

《바다에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낸 자금이 되는가 동무도 알고 있소?》

《...》

《이 수자를 보시오.》

《정확합니다.》

《홍부장동무가 수표했고 오향순동무가 보증한 문서요. 그리고... 그 양식장에서는 얼마만한 생산량이 나오게 되어 있소?》

《적어도 그 자금의 열배는 예견했습니다.》

《보시오. 그러니 동무의 파오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심중히 듣지 않을수 없소. 물론 거기에는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련관이 없는것도 있지만...》

《아!...》

《가슴 아프겠지만 들어 두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술한 품을 들어 바다에서 캐낸 조개를 작다고 해서 다시 바다에 처넣는것을 의문시하고 있던 말이요.

물론 사람들속에서는 좋은 반영도 제기되고 있소.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사람, 바다에 진

심을 묻고 실적으로 당을 받들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다에서 사는 사람, <조개미치광이>. 물론 마지막별명은 다들 두가지 의미로 쓰고 있었지만... 여하튼 여론을 무시할수는 없지 않겠소.

그게 오늘의 이 험악한 상태에서 동무는 막대한 국가적손실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말지요?!》

(책임, 그건 문제가 아니다. 내 한생을 바쳐서라도...)

하지만, 하지만...

아, 내가 어찌다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나는 어느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은가.

생활은 너무도 가혹한 운명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있구나.

아버지, 이런 때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 나의 아버지 김성삼...)

...

그들은 묵묵히 밤바다기슭을 걸어 가고있었다.

미제침략군의 함포사격이 있는 직후여서 땅우에는 포연이 자욱했다.

세사람은 두명의 《내무원》 복을 입은 사나이의 앞에 서서 밤길을 걸었다.

어둠속, 낮 익은 제방뚝이 막아 섰다.

포격에 제방 한가운데가 뭉쳐 끊어 저 나갔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 앉으면 밀물때 바다물이 벌에 흘러 들지도 모른다.

김성삼은 좌회쳐 진 제방뚝앞에 우뚝 멈춰 섰다.

그 순간 눈매가 날카로운 사나이가 그의 어깨를 위협적으로 떠밀었다.

몇시간전 군량정사업소 물자를 싣고 신의주로 향하던 화물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김성삼은 부속을 구하려 읍으로 달렸다.

조국해방전쟁이 인 다음 갓 운전을 배운 열일곱 나이로 아직은 자동차속이 밝지 못한 그였다. 읍으로 들어 가는 다리목에서 완장을 두른 《내무원》대위가 그를 단속했다. 증명서를 보더니 무작정 앞서 걸으라고 독촉했다.

그가 영문을 모르고 따라 간 곳은 바다기슭의 야산골짜기였다. 바다를 향하여 파놓은 빈 전호에 학생복을 입은 청년과 농민 한명도 함께 와 있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로 왔습니까?》

《내무원》이 은폐부로 들어 가버리자 김성삼은 다소 겁에 질린 낯으로 두사람을 여겨 보았다.

《모르겠소. 길에서 단속되어 이리로 끌려 왔소. 나는 군민청에 급한 연락을 가던 길이었소. 미국놈들이 안주까지 쳐들어 왔다는데...》

학생청년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짙게 어려 있었다.

《우릴 이제 어떻게 한다오?》

농민의 눈은 한계점까지 커져서 종시 줄어 들줄 모른다.

《심상치 않은데... 이거 무슨 흉한 코에 걸렸는지... 하는 행동들이 별스럽소. 우릴 죄인 다루듯 하

거든.》

《어허 난사로군. 난 아직까지 나쁜짓이라군 한적
이 없는데...》

눈매가 날카로운 《대위》와 또 한명이 은폐부에서 나와 그들을 무작정 일궈 세웠다...

제방길, 그 끝에는 이전의 섬이 외롭게 우뚝 솟아 있었다. 두 사나이는 《섬》 기슭의 바위밑에서 모포에 싼 길다란 막대기뭉을 같은것들을 끌어 올리더니 그들에게 하나씩 지웠다.

김성삼은 그것이 엄청나게 무거운데 놀랐다.

어린 어깨를 파고 드는 그 무거운것을 메고 다시 제방길에 올랐다. 음산한 바람이 서해쪽에서 불어왔다.

짐을 고쳐 메려고 몸을 기웃거리는 순간 등뒤에서 선뜻한 총구가 옆구리를 찔렀다.

《그냥 걸어. 이건 무기란 말이야. 움쩍하면 쏠테
다! 일을 마치면 너희들도 알게 돼. 우리 세상이란
말이야. 공을 세워야지!》

그것은 분명 공화국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김성삼은 그것을 어조에서가 아니라 주위를 감도는 이상한, 배신적인 위협적인 공기에서 온몸으로 느끼었다.

다리가 부르르 떨렸다. 내가 지금 무엇을 등에 지고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반동놈들과 한 짝이 되어 그들의 무기를 운반하고 있다니...

제방길, 이쪽은 바다, 저쪽은 , 벌, 어디 뿔곳도 없다. 더 기회를 보아야 하는가.

왜 이리 걸음이 무거울가, 왜 이리 다리가 떨릴가. 김성삼은 등에서 흐르는 땀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다.

한걸음 또 한걸음 운명의 발걸음, 거기에 온 생애가 실리고 있었던가. 제방길이 끝나면 반동들이 집결한 산골짜기가 나진다.

발이 돌부리에 걸리는 순간 김성삼은 몸이 앞으로 쏠렸다. 위협적의 손길과 총구가 다시 그의 가슴팍을 찌른다. 김성삼은 눈을 감았다...

벌써 제방길이 끝나가고 있었다. 치욕의 발걸음이 끝나가고 있었다. 아니, 치욕의 인생이 그 발걸음속에 락인 찍히고 있었다.

...

아버지는 끝내 원썬들의 총부리와 맞서지 못했고 한달동안이나 끌려 다녔다. 어느 날 혼잡속에 탈출하였으나 골짜기에서 굴러 떨어 저 의식을 잃은채 쓰러져 있다가 며칠후에야 신고 아니 자수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반동집단은 공화국의 준엄한 징벌을 받은 뒤였다...

전후... 아버지는 바다에서 일했다. ... 한생의 종점까지 바다의 땅을 두지고 또 두지였다. 그리고 첫 새벽에는 온 동네를 돌아 다니며 파철을 모아 수매소마당에 말없이 쌓아 놓곤 했다. 휴식일이면 등에 돌을 지고 제방을 손질하러 다녔다. 제방길에는

불우한 사나이의 때 늦은 발자국들이 무수히 찍혔다. 그것이 몇백밤이었던가, 몇천새벽이었던가.

(아, 죄를 짓기는 한순간이었어도 그것을 씻는데는 한생도 모자랐구나!...)

녀인은 안해로 완성된다

수리개 한마리가 채석장하늘을 빙 감돌다가 골짜기너머로 급히 사라졌다. 해 저무는 서견하늘의 노을때문인지 협곡을 이룬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진한 검보라색을 띠며 용암으로 안겨 든다.

로동의 하루도 지나가 버렸다. 김명석은 작업짚 시간에 모아 둔 돌과 흙부스레기들을 한곳에 쌓다가 손길을 멈추었다. 발파에 날린것들이다. 거기에는 화약내가 섞여 있다. 이상하게도 조개들은 화약내를 무척 좋아 한다. 이 돌부스레기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바다밑에 넣어 두면 조개들이 잘 모여 들기도 하고 살이 오르기도 한다.

조개는 결모양만 보아서는 살이 찘는지 뚫았는지 알수 없다. 하지만 《조개미치광이》의 눈에선 그것이 인차 가늠된다. 살이 뻗친 놈들은 색깔부터가, 부드럽고 조화로우며 열리는 가장자리가 아름다운 곡선미를 눈맛 있게 유지한다.

땅에 모래만 있으면 먹이가 적고 흙이 지나치게 많으면 숨통이 막혀 내린다. 우리의 서해기슭과 대륙붕은 아마도 이 희귀한 바스레기조개의 서식에 가장 적합한 땅인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속속으로 자래우려면 화약성분과 같은 《비료》가 필요하다.

김명석은 돌가루를 한줌 들어 부벼 보다가 긴 숨을 내쉬었다. 채석장에서의 로동의 나날도 이제는 한계절을 넘겼다.

로동의 강도는 오히려 이 채석사업소의 일판이 바다에서보다 썩 약한 편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로동자의 작업이지만 처벌로동의 정신적구속과 짐이 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걸음마다 생각을 깊게 하는것이였다.

발자국소리에 김명석은 머리를 쳐들었다.

엉겨주춤 자리에서 일어 섰다.

《허 이거 난 순영동무를 따라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나?》

명관아바이는 별썩 웃으며 들고 온 가방을 돌우에 올려 놓았다.

《아바이, 이제 오시지 말라는데...》

김명석은 안해가 끌고 온 손수레를 옆에 세우며 먼구스러워 했다.

《허, 무슨 소릴 하나? 자네 처는 이틀이 멀다하게 이 길을 오네반 나야 가끔 들리는건데... 말하자면 내 병원에 면회 오는 기분이란 말일세.》

《예?...》

《가시있게 들진 말게. 하지만 자네에겐 이 곳을 <병원>으로 생각해서 탈이 없을걸세.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야. 사람은 자기를 일생 수양해서 나쁠 것이 없네.》

명관아바이는 가방에서 술병과 음식들을 꺼내놓으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다.

김명석은 얼굴을 붉혔다.

(그래, 아바이의 말이 옳다. 나는 국가앞에 죄를 진 놈이다, 이것을 어쩌면 중병을 만난것이나 다름없다.

과연 나의 《치료기간》이 끝나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평범한 로동생활, 이것이 나에 대한 처벌로서는 너무나도 가볍지 않은가. 비록 무겁게 받아 들인다 해도 나는 집단과 동지들의 그 마음의 백분의 일도 갚지 못하고 있구나.)

《내 전번에 채석사업소 당위원회에도 들렸댔ে. <조개미치광이>가 이곳에 와서 <돌미치광이>가 댔다고 허를 차더군.

아예 함숙에도 내려 가지 않고 들판에서 침식한다면서? 그러면 못 쓰이. 몸이 건디겠나.》

《저야, 바다사람이 아닙니까.》

김명석은 퍼그나 수다스러워진 아바이를 눈물겹게 바라보았다. 그리운 배사람들의 모습이 체소하지만 강직한 인간의 적동색얼굴에 다 있는것 같다.

안해는 음식을 차리기 바쁘게 가져 온 마대들에다 돌부스레기들을 손으로 퍼담기 시작하다. 면회를 때마다 날라 간것이 이제는 집앞에 산더미를 이루었다고 한다.

김명석은 아바이가 내미는 술잔을 받아 들고도 마디 굵은 힘한 손으로 돌가루를 부지런히 퍼담고 있는 파묵한 안해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는 연하고 길고 하얀 땀이 있는 처녀의 손이었던것이 아프게 살아난다.

손톱에는 봄에 물들인 말그레한 봉선화물이 력력히 남아 있던 그 손.

...김명석이 자전거를 타고 명관아바이의 뒤를 무작정 따라 동림의 깊은 림산마을로 찾아 갔을무렵 언덕에는 한창 철쭉꽃이 지고 있었다. 내물이 흐르는 언덕기슭에 기와를 촘촘히 엮은 림산마을집들이 안겨 들고 여기저기서 성난 북방개들이 사납게 목소리를 모아 《합창》을 하고 있었다.

오랜 류벌공인 장인 역시 말수가 적은 사람이였다. 그는 소박한 레장감을 가방에서 꺼내놓는 명관아바이를 놀라운 눈길로 내려다 보았다.

《동갑이, 딸애를 선 보이지도 않구?...》

《허허, 콩밭에서 팔이 나겠나. 우리가 전쟁때부터 알지 않나. 인 젊은인 오늘 아예 약혼식을 하고 래일 색시감을 데려 갈 결심일세. 잔치는 우리 바다사람들이 차리겠네.》

《허, 이건 정말 콩밭에 서술치기로군.》

《그래 젊은이가 어떤가?》

그래도 명관아바이는 알던바와는 달리 능청스러운데가 없지 않다.

《넌들 알겠나? 그저 자넨 알지.》

장인은 입맛을 다시다가 부엌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인보우, 뭘 좀 차려 오우.》

《아니, 제수님도 올라 와서 사위감을...》

《뒤두게, 옛말에도 머느리는 꼴라서 데려 오고 딸은 달라는데 주라고 했어.》

권커니 작커니하는데 옷방문이 배시시 열리는 기척이 났다. 장인이 눈길을 들자 명관아바이가 억지로 로총각의 등을 떠밀었다.

김명석이 옷방에 들어 서자 놀란 처녀가 토끼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사람은 굳어 진채 방 한복판에 마주 서서 한동안 서로 보기만 했다. 눈과 눈이 한순간 번쩍이며 그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했다.

《?...》

《!...》

《!...》

《?...》

김명석은 마치 무엇인가 눈가에서 불꽃이 튀는것을 의식했다. 심장은 조그마한 주저도 없이 이 녀자구나. 내 사람이구나 하고 근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뭘 그리 귀은 보리자루들처럼 서 있나. 순영아, 일전에 말한 그 젊은이다. 앉아서 인생길을 의논해봐라.》

어느새 얼근해진 명관아바이의 애정어린 목소리가 열린 방문으로 날아 들었다.

다음날 아침, 김명석은 약혼서를 자전거뒤꽂무니에 태우고 림산마을을 떠났다.

동네개들이 이번엔 《독창》으로 넘어가 저마끔 울었다.

실개천과 스러져 가는 철쭉꽃무지들이 얼핏얼핏 옆을 스쳤다. 산골길이지만 그는 줄곧 속도를 놓았다. 그저 빨리 집으로 이 녀자를 데리고 갈 마음뿐이었다. 순간이라도 지체한다면 등뒤의 아름다운 새가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것만 같은 위구심과 조바심이 가슴벽을 쳤다.

처녀는 모든 사연을 모르고 그저 전쟁로병인 아버지세대만을 믿고 따라 섰을것이다. 속이고 데려가는줄 모를거야. 아, 량심아. 일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그 당당한 머리를 숙여 주렴. 날 좀 도와주렴. 나의 패썽한 리기심을 너그럽게 리해해 주렴. 이 로총각을 어서 장가 들게 해주렴.

처녀는 처음에 그 봉선화물이 빨갛게 든 연한손으로 배기름에 절은 김명석의 작업복자락을 조심스럽게 잡고 가더니 산골길에 들추기 시작하자 《어마

나!》 하고 가는 탄성을 지르며 그의 억센 등을 부들켜 안았다. 한참나 일생에 처음 느껴 보는 짜릿한 전율이 처녀의 손길과 따뜻하고 향긋한 가슴이 기대인 곳으로부터 머리끝으로, 발끝으로 번개처럼 달았다.

큰길에 나서자 맞바람이 세쳤다. 어느새 명판아바이는 멀찌감치 떨어 졌다.

《이 사람, 같이 가세… 후행없이 가는게 아닐세!》

속도를 늦추었지만 처녀는 얼굴을 들지 않았다.

처녀는 김명석의 잔등에 한쪽 뺨을 묻고 있었다. 마음의 눈이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

아 녀자는 나를 믿고 있구나. 자기를 속인 이 멸통한 사내에게 아낌없이 순정을 바치려 하는구나. 무엇인가 몽클하는 걱정과 함께 량심의 회오리바람이 가슴속을 휘젓고 있었다. 하지만 김명석은 진귀한 보물을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서두르는 사람처럼 그는 조금하계 고향으로, 집으로 자전거를 몰아 가고 있었다…

《명석이, 내 한발 먼저 내려 갈테니 천천히 식살하게. 당위원회와 약속한게 있어. 광철이 엄마, 지체석장지휘부마당에서 기다리겠네.》

아바이가 느닷없이 자리를 일자 김명석은 안해를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도 한술 드요.》

《어서 다 드세요.》

김명석은 억지로 안해를 일으켜 음식보앞에 앉혔다.

김순영은 작은 잔에 술을 부어 남편에게 내밀었다. 술잔을 든 두박한 손끝에 형짚오리가 칭칭 감겨 있었다. 언젠가는 봉선화물이 들었던 손이다. 무엇인가 가슴을 날카롭게 허빈다.

김명석은 단번에 술을 넘기었다.

《요즘 고생이 많겠소… 후- 여기 와서 생각이 많은데 당신을 데려다 놓고 고생만 시킨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소. 정말 미안하오.》

안해는 손등을 눈가로 가져 갔다.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을… 이젠 아이들도 다 컸는데 제가 바라는게 뭐겠어요. 당신 일이 제대로 되는것과 아이들이 곧바로 자라는거지요.》

김명석은 담배갑을 끌어 당겼다. 그는 측은한 눈길로 한동안 안해를 건너다 보았다.

《여보… 내 언제부터 묻고 싶은것이 있었는데. 이거 갓 마흔에 첫 보선이라 너무 늦긴 했소. 실은 결혼 첫날에 해주려던건데…》

《뭘 당신답지 않게 갑자르세요.》

안해는 따뜻한 눈으로 어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말이요. 시집 오기전에 말이요. 아니, 그… 당신은 우리 집래력을 언제 알았소?》

《…》

안해는 말없이 그를 흘끔 올려다 보더니 다시 눈길을 내리깔았다.

김명석도 머리를 숙였다.

《후날 그걸 알았을 때 속으로 원망했으리라 보오. 참 안됐소. 내 일생에 량심에 걸리는거라면 그것이 였소.》

안해가 눈길을 들고 그를 찬찬히 올려다 보았다.

《사실은… 당신이 동림으로 찾아 오기전에 명판아바이가 몇번 왔었어요. 당신이야기를 밤새 했어요. 이 사람이 오직 당만을 믿구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 쓰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 주는 가까운 혁명동지가 없다고 진심으로 걱정하더군요. 마음속에 누가 뭐라든 당을 받들겠다는 억척 같은 마음이 보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외우더군요.》

《?!…》

김명석은 큰 몽둥이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그때 제게는 부지런히 따라 다니는 총각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통계원을 하면서 직장청년조직을 맡아 보고 있다 나니 늘 얼굴을 마주쳤지요. 며칠밤을 생각했어요.》

이 공대졸업생은 아버지가 도의 간부고 본인도 막히는데가 없으니 생활을 힘차게 개척할것이다. 하지만 바다가의 그 젊은이는… 밤새 베개잇을 적셨어요. 어머니는 처음 눈을 흘기고… 그런 때 당신이 찾아 왔어요. 일은 그렇게 되었어요.》

김명석은 담배연기를 힘껏 들이키었다.

목이 꺾꺾 막히었다. 말을 뱉으려니 소리가 나가지 않는다. 그는 기침을 짓었다.

《그러니 당신은… 한 불우한 인간을 위해 한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었구만. 너무도 가혹한 희생이었소. 내가 얼굴을 들수 없구려.》

김순영은 또다시 머리를 곧추 들고 남편을 찬찬히 올려다 보았다.

《여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희생이 있어요. 난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부부가 묵묵히 이 길을 걸으면 우리 애들이 떼떽이 땅을 밟을게 아니나요.

우리가 닦은 길로 그 애들이 갈거예요.

이게 행복이구 사는 보람이지요. 이걸 생각하면 난 늘 힘이 솟군 해요.》

안해는 눈물속에 웃었다. 썩 멀리로 사라진 봉선화꽃물이 든 시절의 아름다운 웃음이였다.

녀인은 안해로 완성된다고 한다, 녀인은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김명석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생활은 그를 이렇게 걸음걸음 가르치고 이끌고 있는것이다.

마음의 제방

김명석은 불도 켜지 않은채 방안 옷목에 팔배개를 하고 드러누워 버렸다. 머리가 지끈지끈 쏘고 가슴속에 큰 산이라도 들어 앉은듯 무겁고 온몸이 지겹다.

모든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해일피해가 가서 진땀 남의 수산사업소 상가대에 오를 때를 기다리며 배 두척은 거의 반년 가까이 맨 꿈무늬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양식밭이 녹아 나자 수산부업조사사람들은 먼바다를 떠지는 경쟁의 열풍에도 끼우지 못하고 풀이 죽어 있었다. 벌써 많은 인원이 한창 신명이 난 《오드살》네 쪽으로 빠져 나갔다. 범 없는 끝에 삶이 주인행세하는 격이다.

그나마 김명석이 품을 놓아 다듬고 쌓은 작은 부두마저 어디를 쭈서 비틀었는지 《오드살》의 손탁으로 넘어 가 수산부업조의 남은 전마선들이 더부살이격으로 겨우 한켠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명색뿐인 수산부업조마저 김명석을 기다리고 있는것이 아니었다. 우에 올라 간 명관아바이에게서마저 소식이 없다.

마음의 충격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김명석이 돌아온 다음날 풀이 죽고 비만하던 몸까지 폭 간 홍부장이 차도 없이 김명석을 찾아왔다. 여러가지 일로 되게 비판을 받고 다른 곳으로 조동되어 가던 길이었다.

홍부장은 정작 김명석과 얼굴을 맞대자 담배만 풀석풀석 피워 댔다.

《저때문에 두루 부장동지일이 안됐습니다.》

김명석은 진심으로 속이 내려 가지 않았다.

홍부장은 방금 붙여 문 담배대를 휴게실앞 부두바닥에 내던졌다.

《그런 말은 마오. 이번 조동은 동무네와는 전혀 상관 없소.

또 양식밭은 내가 적극 밀었으나 책임이야 통채로 동무가 지고 고생하지 않았소.

우리모두가 현훈증에 걸렸댔지. 올라 못 갈 나무는 피해 다니라고 했는데 사상루각을 기대한거요.》

홍부장은 초점 없는 눈을 어디에 박을지 몰라 안타까와 했다. 위세와 틀이 사라지니 사람이 오히려 텅텅하게 느껴 진다.

《...》

《어험, 이보라구 명석동무, 내 큰 교훈을 안고 떠나면서 늦게나마 동무에게 진심으로 말해 줄게있소.

내가 나쁜 말로 동무를 우롱했던것 같소. 영웅이요 뭐요 잔뜩 취주며 공명심만 북돋아 주었거든. <오드살>의 말에 일리가 있었소.

동무가 지금처럼 아득바득하는건 다 재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거라고 말할 하는데...

이젠 좀 자중하오. 우리야 누가 누구를 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소. 더우기나 지금은 <고난의 행군>시기란 말이요.》

《내 말이 아프더라도 새겨 두오. 내만이 이런 준절한 말을 해줄수 있었을거요,

난 가겠소.》

홍부장의 뜽기적거리리는 모습이 뿌연 망막속에 점점 멀어 진다.

김명석은 입술을 악물고 그의 뒤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

과히 명철한 말을 해주고 갑니다. 하지만, 저를 몰랐군요. 저는 그런 엄청난것을 앞에 목표로 세운적이 없습니다. 오직 당만을 믿고 당을 따르는 그 길에 제 한몸 바치려 했을뿐입니다. 믿음을 달라! 아닙니다. 믿음을 달라는게 아니라 저의 온 생을 불태워 그 믿음을 쟁취하려는것입니다...

김명석은 자기의 감정이 격해 졌으나 반대로 의지는 나약해 지고 있다는것을 의식했다.

생각이 번잡하고 머리속에는 호소와 녀두리가 가득 차오르는데 어지 한생의 언약이 가늘어 졌다고 말하지 않으랴. 생각끝에 그는 부대당위원회를 찾아 갔다.

침착한 표정에 눈매가 유난히 부드러운 젊은 새정치위원이 한참 지켜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아, 김명석동무구만. 기다렸소.

명관아바이에게 이야기했는데 소식을 벌써 받았소?》

《...》

김명석은 말없이 종이장을 정치위원의 책상우에 올려 놓았다.

《이건 뭐요? 사직서?...》

정치위원은 종이장을 들여다 보더니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갔다.

《난 동무를 함께 손 잡고 일할만 흰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안 깊이 료해해 보니 동문 많은 일을 했거구만.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한개 기업소도 무색할만큼 큰 실적을 내지 않았소. 지금은 실력전의 시대입니다. 충실성은 실적에서, 실력에서 표현됩니다. 이젠 우리 장군님께서 간곡히 하신 말씀입니다.》

(정치위원동지, 하지만 이젠 저에게 발 붙일 일터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코 바다에서 물러서지는 않을것입니다.)

정치위원은 한참만에 돌아 섰다.

얼굴표정은 심각하지만 눈에는 아직도 그 온화한 빛갈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 종이장은 내가 건사하겠습니다. 돌아 가서 깊이 생각해 보며 기다리시오.》

...김명석은 그냥 불 꺼진 방안에 누워 상념에 시달렸다. 집은 고요했다.

어머니는 친척집에 가고 안해는 《오드살》 네 부업선에서 아직 돌아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예 단잠에 빠져 버린 모양이다.

밖에서 자동차소리가 들렸으나 김명석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안에 불이 켜졌다.

《허, 방에 구겨 박혀 있으면서 아닌 보살했군. 이 보게, 일어 나게 정치위원동지가 오셨네.》

김명석은 뜻밖의 일에 놀라서 후닥닥 일어 났다.

《허허, 우리 산하에 있던 일군이 나가겠다는데 정치위원이 가만 있을수 있소? 헤어지기전에 하루 밤 같이 지내면서 속이나 터놓으려고 왔습니다.》

정치위원은 우선우선하게 장관바닥에 퍼더앉아 방안을 빙 둘러 보았다.

《허, 천만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집안은 서발 막대를 휘둘러도 곱길게 없겠구만. 자, 명관아바이 두 앉아 그 쫘무니에 찬거나 내놓으시오.》

이 빠진 보시기에 술을 쿨럭쿨럭 부었다. 김명석이 부엌찬장을 뒤져 찢기 시작한 까나리 몇웅큼을 싸들고 들어 왔다.

밤새 김명석의 집은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김명석은 정치위원과 함께 집을 나섰다. 밖에는 승용차가 없었다. 급히 달려 온 명관아바이가 전화를 걸려 하자 정치위원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 좀 걸겠습니다. 이 명석동무가 늘 돌아본다는 그 1호제방길을 따라 걸어 봅시다.》

정치위원을 부대쪽이 아니라 초소가 있는 제방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사람이 생각에 잠겨 따라 섰다.

제방에 올라 서자 바다바람이 세차게 몰아 쳤다. 정치위원은 군모를 깊이 눌러 썼다.

《사실은 나도 병사시절을 저 초소에서 얼마간 보냈습니다. 전우들의 배움을 받으며 이 제방길을 걸어 대학으로 떠나던게 어제 같습니다.》

정치위원은 얼핏 추억에 잠겼다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명석동무, 이 제방이 든든히 솟아 있어 저 대지가 굳건한게 아니겠소.

난 동무가 늘 이 제방을 못 잊어 하는 심정을 명관아바이에게서 들었소. 바로 그거요. 저 억센 제방이 마음속에도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하오. 오직 우리 장군님뜻대로 살겠다는 믿음만 강하면 되오.

동무가 지금처럼 시련을 이겨 내고 당만을 믿고 진심으로 일한다면 반드시 당원이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오.》

《정치위원동지!...》

《지금 당에서는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맞겨 모든 부대와 단위들이 자체로 살아 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기했소. 우리는 이 어려운 난국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하오.》

정치위원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김명석을 믿음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당위원회는 상급당과 토의하고 립시수산부업조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부대의 부업생산기지를 내오기로 결정했소.

이미 있던 종업원들을 망라하여 조직되는 수산부업생산기지를 김명석동무에게 책임 지우기로 결정했소.》

김명석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정치위원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군부대당위원회에서는 김명석동무를 초기복무사관으로 복대시키기로 했습니다. 래일 아침 일명 받으려 부대에 와야겠소.》

김명석은 그 자리에 우뚝 돌처럼 굳어 지고 말았다. 바다를 들이마신것처럼 큰 호흡으로 가슴을 들먹이었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서해의 물결이 아침해빛에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다음날 저녁 새 군복을 펼쳐 입은 김명석은 제방길입구에서 마중 나온 양영수부분대장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기지장동지, 이제부터 함께 일하게 되였군요.》

양영수의 눈가에서 기쁨이 찰랑거렸다.

《이 모든게 꿈만 같소. 한번 손 잡고 본때 있게 일해 부자구》 이 제방아래 드넓은 양식장을 만들고 바다속의 대지를 한번 살 찢워 보잔 말이요.》

《야, 생각만 해도 힘이 솟습니다. 아침부터 기지에선 명관아바이랑 부두를 손질하느라고 분주탕을 피웁니다.》

《응, 그 다음엔 속도전을 벌려 기지에 우리 기지상가대를 건설해야겠소, 늘 남을 쳐다볼수야 없지. 부대에서도 적극 떠밀어 주겠다오. 우리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내밀어 보자구!》

두사람의 눈길이 의미 있게 마주쳤다.

제방밑에서 파도가 넘실대고 있었다.

폭풍우야 나를 좀 취하게 해주렴

몇달동안의 전투끝에 기지자체의 상가대가 완성되는것과 함께 새로 마련된 세척의 105마력 40톤 급배들도 소박한 진수식을 진행하였다.

해일피해교훈에 기초하여 바다궂을 잘 타고 넓힌 양식밭에서는 조개가 움쭙거리며 자라기 시작했다. 조개생산량은 다시 부쩍 늘기 시작하더니 해를 넘자 기록적인 수치에로 접근했다.

기지는 해마다 정상적으로 천수백톤의 생산량을 돌파하여 부대의 물질문화사업에 실질적인 큰 보탬

을 주게 되었다.

문제는 늘어 가는 배수량에 비해 비좁은 부두였다. 김명석은 바위들을 들어 내고 부두를 더 안침지게 넓히려고 결심했다. 건설이 시작되자 배들을 임시 옆으로 끌어 내야 했다.

어느 날 병사들과 함께 세멘트로 한창 몰탈작업을 다그치는데 드바삐 달려 온 반집차에서 <오드살>이 험한 눈길로 내려 섰다. 그새 어찌 몸이 낫는지 운전칸을 겨우 내려 서는데 땅이 다 울리는것 같다.

《아니 기지장, 정 이러겠소?》

《오래간만입니다. 오책임자아주머니!》

김명석은 손을 털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시치미를 떼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보구두 물라요? 왜 우리 배들을 비루 먹은 강아지 열구리 차듯 기슭으로 내팽개쳐요?》

김명석은 자제의 미소를 지었다.

《오해하지 마시오. 책임자동무, 우린 부두를 상가대쪽으로 넓히고 있소. 건설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배도 대지 못합니다. 요즘은 바다날씨도 좋은데 정 안심치 않으면 배들을 제방옆 수산사업소 쪽에 임시 대지요?》

《오드살》의 눈귀가 살아 났다. 녀인은 입술을 옥물며 김명석을 쏘아 본다.

《흥, 그 속심을 모를가. 요즘은 그 잘난 <명석조개>때문에 우리 생산량의 허리가 툭 꺾이었는데 이젠 부두까지 빼앗으려 들어?》

김명석도 속이 불끈하였다. 그는 저만치 물러나서 소리는 없이 옥옥하는 병사들을 여겨 보며 격한 말의 모를 죽이려고 애 썼다.

《말을 삼가하는게 좋겠소. 사실 우리의 부두를 차지한건 아주머니네가 아니었소.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걸 그래도 우린 부두때문에 고생할 당신들을 생각해서 이제 부두확장공사만 끝나면 더 구획을 떼주려고 결정했소.》

《흥, 고양이 쥐생각이지. 그리고 이 부두자린 내가 이전부터 말아 두고 쓰던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보자니까 창문너머 들어 간 주먹이 제거란 소리군.》

어느새 다가온 명관아바이가 푸쩍 좋게 한마디하자 《오드살》은 코를 찡그리었다.

《흥, 가제도 개편이라더니... 이보우, 기지장! 그렇게 날치단 무사치 못할줄 알라요! 흥, 개구리 올챙이적생각을 못한다더니...》

《오드살》은 치마바람을 획 일쿠며 반집차쪽으로 썩 걸어 갔다.

김명석은 이를 악물고 돌아 섰다. 차라리 맞서지 않는것이 좋다. 저 녀인은 어떻게 생겨 먹은 사람인가. 가는 곳마다 달려 들어 애를 먹인다. 지난해는

세면에 못 이겨 고양이 낮바닥만한 양식발을 만들고 법석 떠들더니 몇달 못 가서 아닌보살하고 말았다. 이번에 수산기지의 양식발을 넓힐 때 그 땅이 구역안에 들어 가자 펼쩍 뛰며 여기저기에 찢러 바쳐 애를 먹였다. 제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깝다는 고약한 심보였다. 그 아까운 땅을 예돌아 먼 곳까지 발을 넓히는수밖에 없었다.

김명석은 상념에 잠겨 명관아바이가 아까부터 자기를 지켜 보는줄도 감감 잊고 있었다.

《이 사람 기지장, 나 좀보세.》

《아바이, 왜 그러십니까?》

《방금 정치위원동지한테서 전화가 왔었데. 자네를 찾다가 내게 이르더구만.》

《무슨 일인데요?》

김명석은 또 《오드살》이 불집을 일으키지 않아 나 해서 속이 그들먹거렸다.

명관아바이는 집짓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기지장,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

부대당위원회에서 자네를 찾네. 아마 입당문제때문에 그러는것 같네.》

《예?!》

김명석은 눈앞이 아찔해 저서 겨우 그 자리를 지탱했다. 그 어떤 청천벽력이 내린대도 이보다 놀라지는 않을것이다. 그는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명관아바이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한참만에야 그의 목소리가 심중에 미쳐 왔다.

《음, 이건 웅당한 결심이지.

내 이날이. 올걸 믿었어, 믿었던 말일세! 준비를 하게!》

명관아바이는 나직이 중얼거리더니 어구창고쪽으로 비칠거리며 걸어 갔다.

김명석은 그냥 말두석처럼 서서 그의 뒤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양영수부분대장이 싱글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군복우즈머니에서 자그마한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기지장동지, 얼굴에 묻은 그 세멘트물을 닦으십시오. 됐습니다. 이걸 기념으로 건사하십시오. 좋은 건 아닙니다.》

《영수, 전번엔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던것과 같구만.》

《예, 표창휴가 갔을 때 강계에서 구한겁니다.》

양영수는 무엇이 좋은지 그저 빙글거리며 병사들 쪽으로 물러 갔다.

...여러명의 군인들이 입당준비담화를 하려 당위원회사무실로 조심조심 들어 갔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땀발이 솟은 밝고 진중한 얼굴들로 출입문을 나섰다.

양영수부분대장이 나와서 김명석의 손을 꼭 잡았다.

《기지장동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찌나 엄

숙한지 공부했던걸 죄다 잊어 먹을번 했어요.》

시간이 굵게 흘렀다. 텅 빈 대기실에는 김명석 혼자만이 남았다. 앞 군인까지 다 나왔으나 이윽도록 소식이 없다. 또 청명경이 지나도록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이제야 무슨 다른 일이 있으랴. 하지만 복잡한 내 문제때문에 토의는 진지할것이다. 기다리자. 래일 새벽까지라도, 아니 일생이라도...)

문이 열렸다. 몇몇 일군들이 무거운 얼굴로 나와 대기실을 빠져 나갔다.

김명석은 속이 덜컥 내려 앉았다.

김명석은 눈을 감았다. 이 모든것은 그저 그의 정신력을 시험해 보려는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했는가. 운명의 회룡이라면 이걸 너무도 모질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렇게 느껴 졌다.)

정치위원이 근엄한 얼굴로 그의 앞에 다가왔다.

그는 김명석을 외면하려다가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명석동무, 오늘은... 좀 바빠서 동무를 만날새가 없구만. 다른 생각 말고 다시 부를 때까지 가서 일을 잘해 주오.》

정치위원의 깔린 목소리는 억지로 내뱉는 쓴 약처럼 느껴 졌다. 정치위원은 단호한 걸음으로 대기실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김명석은 불시에 명치끝을 불갈구리로 쭈시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 섰다.

부대정문을 나서니 비기 휘뿌리고 있었다.

외로운 은행나무결, 쏟아 지는 비발속에 양영수 부원대장과 명관아바이가 말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영수는 지그시 머리를 숙이고 명관아바이가 말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그를 한켠으로 돌려 세웠다.

《이 사람 명석이, 기운을 잃지 말게. 다 제대로 될걸세...》

방금 알아 보니 <오드살>이 차넌 신소했다누만.

거짓으로 가득찬 험한 말이지만 차넌 알아야겠기에...

바다속에다 막대한 국가재산을 처넣고 제 낮을 내기 위해 남의 부두까지 강제로 빼앗는다고, 반동의 아들이 어떻게 큰 수산기지를 책임질수 있는가고 우에다 신소했다누만...》

김명석은 얼굴이 컴컴하게 굳어 졌다. 그는 가는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물웅덩이인지도 가늠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군복이 젖어 몸에 붙어 찰떡거렸다.

수십리길을 꿈속에서처럼 걸었다. 벌써 깊은 밤이었다. 그는 기지로 돌아 와 까딱 않고 사무실결상

에 털썩 주저 앉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너무도 생각이 번잡해 그것이 멍치고 덧쌓여 탕 폭파해 버릴것만 같았다. 함께 따라 온 양영수와 명관아바이도 자리를 피한 모양이다. 책상우에는 그를 축하해 주겠다고 아바이가 마련한 술병이 놓여 있었다. 이따금 폭우속에 퍼런 번개불이 번뜩이면서 방안을 얼비추었다.

김명석은 술병을 와락 움켜 쥐었다. 본시 그는 지독한 애연가나 술은 몇모금 못 마셔 얼굴이 붉어진다. 천성적으로 몸이 술을 받지 않았던것이다.

하지만 병채로 목에 기울였다. 맛을 느낄수 없는 뜨거운 액체가 가슴속으로 거침없이 흘러 들었다.

그래 취하자, 마음껏 취하자. 잊자, 모든것을 잊자. 아무런 개인적요구도 없었던 지난 날의 소박했던 나로 돌아 가자. 뜨겁게 찾아 오는 크나한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도 컸던탓에 마음이 한껏 들쭉던것 같다. 그래, 돌아 가야지. 나의 마음아!

그저 누가 알아 주건 말건 모든것에 말없이 양보하고 마음이 아니라 육신을 내뒀던 평범하고 소박한 나로 돌아 가 수격수격 일하자. 연약의 지점으로 굴함없이 돌아 가자. 또 한병을 들이켰으나 정신은 더 맑아 지는것 같다.

김명석은 군모를 와락 움켜 쥐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밖으로 나와다.

그는 향방없이 비속을 저벅저벅 걸어 갔다.

그의 눈앞에 긴 제방길이 불현듯 나졌다.

그는 그 지방길에 들어 서서 정신없이 걸었다.

아, 이 운명의 제방길, 이 길에 새겨 진 아버지의 죄의 발걸음이 몇천걸음이며 그 발자국의 락인은 이 땅 얼마만한 깊이에게까지 찍혀 졌는가.

김명석은 제방길엔 쓰러지고 말았다.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면서 몸을 주체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래도 정신은 말뚱말뚱했다. 얼굴을 들었다. 눈앞에 제방길이 멀리까지 뻗어 있다. 생생하게 눈엔 안겨 온다.

《아, 아!》

김명석은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비 뿌리는 그 길우에서 몸부림쳤다. 몸부림치며 신음하며 수십년전에 새겨 진 아버지의 죄의 발자욱을 지우려는듯 팔소매와 온몸으로 땅바닥을 쓸고 또 쓸며 태질했다.

《이 사람 명석이, 기지장-》

먼 곳에서 들려 오는 메아리 같은 웅글진 소리였다. 우뢰소리인가. 왜 이리 주위는 고요하게 느껴질가. 번개불이 일었다. 우뢰소리 없는 번개였다. 폭풍우가 몰아 치고 파도가 제방기슭을 때렸다. 하지만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

아, 폭풍우야, 노도야, 나를 좀 취하게 해다오. 이 가슴 쿵쿵 두드려 속이 쑥 열리게 해다오. 지난 날의 심장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내 마음을 두드려 다오. 폭풍우야! 더 세차게 불어 다오!

《명석이, 명석이, 정신을 차리라구!》

명관아바이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김명석은 조용히 아바이를 올려다 보았다.

《아바이세요? 난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 이걸 좀 보라구!》

아바이의 손에는 너무 자라 거무스레해 진 큰조개들이 들려 있었다. 새벽빛속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김명석의 눈이 커졌다.

《아니 이걸! 우리가 표시해 놓은 조개군요. 그 조개발의! 그 해일피해를 본 발의...》

《이 사람 바로 그 발의 조개야! 저 양영수부분대장이, 저 병사들이... 밤새 끝내 찾아 났단 말일세.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것들이 우리가 바다 먼쪽으로 나가는새 저 제방 가까운 빈땅으로 기여 들질 않았겠나. 이 제방아래 수십정보가 온통 살진조개발이 되었네!》

《양영수!》

김명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크기가 한계점에 달한 늙은 조개를 움켜 쥐었다.

아, 너희들은 땅속깊이 묻힌것도 먼 바다로 날아난것도 아니었구나. 저 억센 제방에 의지해서 나의대지, 우리의 땅결로 돌아 왔구나. 이제는 새끼를쳐서 앞바다를 가득 채웠구나.

명관아바이가 그의 얼굴을 닦아 주었다.

비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그냥 불을 타고 흘러 내린다.

저쪽 새날이 밝아 오는 제방끝에서 양영수부분대장과 병사들이 손을 흔들며 마주 달려 오고 있었다.

나의 땅

울렁이는 숨얼한 마음으로 조용히 당기발을 우러러 보았다.

인생의 가장 귀중하고 값 높은 시각이 드디어 찾아 온것이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물려 준 아픔의 삶이 끝나고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생명이 바야흐로 탄생의 고고성을 터치는 엄숙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김명석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아니아닌 심정에서 당원증을 정중히 수여 받는 신입당원 군인들을 꿈속에서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기폭결에 엄숙히 서 있던 정치위원이 문득 그를 바라보며 다소 갈린 목소리로 근엄하게 입을 열었다.

《김명석동무!》

김명석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을 불운하다고 생각하며 고통에 몸부림칠 때에도 때로는 주저 않아 아버지를 원망할 때에도 홀로 외로운 생각에 시달릴 때도 말없이 알게, 모르게 지켜 보면 오늘에도 키워 온 어머니당의 따뜻한 목소리였다.

김명석은 바다물속을 걷는 사람처럼 몸을 느릿느릿 흔들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도중에서 발부리가 걸린 사람처럼 비틀거렸으나 용케도 당기발 앞으로 다가갔다.

정치위원이 붉은 당원증을 정중히 들고 그에게 내밀었다.

김명석은 한순간 굳어 저서 그 신성한 당원증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손으로 당원증을 받아 들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소리치며 머리끝으로 치달아 오르면서 눈앞이 아찔하였다. 그는 의식을 잃은채 그만 그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캄캄한 의식속에서도 그는 소중한 당원증만은 손으로 꼭 붙안고 있었다.

...김명석은 한참만에야 눈을 떴다.

군 의와 주사기를 든 간호원처녀의 뒤로 눈섭이 짙은 정치위원의 얼굴이 보였다. 김명석은 정신이 드는 순간 자기의 손부터 바라보았다. 붉은 당원증이 그의 심장 가까이 놓여 있었다. ... 정치위원이 그의 몸을 안아 일으켜 주었다. ...

다음날 아침, 김명석은 정치위원방에 가 있었다.

홍철준정치위원은 손을 맞잡고 오래동안 김명석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김명석은 그의 눈빛을 보고 놀랐다.

뜻밖에도 정치위원의 눈가에는 일종의 자책감과 열망과 준절한 심각성이 떠돌고 있었던것이다.

한참만에야 홍철준은 침착성을 회복한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명석동무, 동무가 받아 안은 영광속에 얼마나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오늘은 말해야겠소...

입당심의를 앞두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동무만 못지 않게 나도 마음이 괴로웠소. 해당부문 일군들이 내려 와 여러날째 동무문제를 엄격히 객관적으로 료해하였소. 한마디로 108명의 대중을 만났는데 그중에서 105명이 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공정하게 평가했고 3명만이 그 반대의사를 표시했소.

해당 료해조는 근 10년간 우리 당의 바다가양식 방침을 심장으로 받아 안고 적은 인원에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수많은 국가적재부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동무의 희생적인 투쟁내용을 객관적으로, 자료적으로 분석하여 장군님께 보고 드리었소.》

정치위원의 눈가에 뜨거운 걱정이 실렸다.

김명석은 온몸이 충격으로 굳어 졌다.

《?!...》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동무에 대한 보고자료를 밑줄을 그어 가시며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지

난 날의 경력과 공직, 부모들의 덕을 톡대고 비사회주의적으로, 투기적으로 일하면서 실적을 내는 일꾼들의 뒤다리를 잡아 당긴 일부 사람들을 준절히 교시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김명석동무를 두고 이 동무가 걸어 온 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아들은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본인의 충실성이 기본이라고, 우리 당의 정치는 광복정치이라고 뜨겁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김명석동무에 대하여 일을 많이 한 훌륭한 일꾼이라는 과분한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에게는 말을 많이 하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보다 자기 말은 초소에서 묵묵히 실적을 내고 자력갱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두무릎을 꿇고 얼굴을 싸진 김명석의 눈가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속에 창밖의 눈 부신 태양을 바라보았다. 눈물속에 태양의 명료한 룡광이 선명하게 안겨 들었다.

김명석은 반생애 처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태양의 빛발 아래 서 있는 자기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 해빛은 한순간 비구름에 가리울수는 있어도 그 높은 창공에서 순간의 멈춤도 없이 해살을 뿜고 있었던것이다.

정치위원은 김명석을 일으켜 결상에 앉혔다.

《명석동무, 이번에 나 역시 정치일꾼으로서 큰 교훈을 얻었소. 입당심의회직전에 동무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자 처음엔 나도 동요했거든.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동무의 운명을 지켜 주시었소.

이걸 한생 잊지 말고 우리 장군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자구. 전사의 길이 왜 평탄하기만 하겠는가. 기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영광도 있고 희생도 있는 법이지. 하지만 이 진리만 좌우명으로 간직한다면 언제나 행복의 길이 열릴거요.》

《정치위원동지, 제 장군님의 하늘 같은 믿음을 죽어도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체90(2001)년 4월 10일, 김명석은 새로 개편된 수산부업구분대의 구분대장으로 임명되면서 소좌의 군사칭호를 수여 받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말은 일에서 남 다른 실적을 내어 군인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말없이 이바지하고 있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었다.

김명석은 이미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 앉은 명관아바이를 찾아 갔다.

명관아바이의 진한 적동색얼굴에서 주름살이 퍼졌다. 활짝 웃는 두눈에서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

리고 있었다.

《임잔 정말, 고생끝에 락이 온다더니…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을 받다니!

장군님께서 자네 이름을 외우시고 일을 많이 한 일꾼이라고 평가를 하시다니!

그래 이걸 잊어선 안되지. 앞으로도 갈네. 오아주머니도 나를 찾아 왔었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더군. 우리 언제나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야지. 그저 장군님만 믿고 가면 만사가 풀리네.》

주체91(2002)년 봄 우리 나라 중앙신문들에는 동지애의 아름다운 위훈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고결한 동지애의 전사 양영수공화국영웅에 대한 기사였다.

양영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속에서 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되었던것이다.

동지를 위하여, 바다의 땅을 위하여 청춘을 바친 양영수부분대장에게 금별메달이 수여될 때 영웅과 함께 위훈의 자리를 지킨 김명석도 격정의 눈물속에 높은 국가표창을 받아 안았다.

얼마후 김명석소좌가 지휘하는 구분대는 공화국영웅인 양영수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영웅은 떠나간것이 아니었다. 영원히 자기 동지들과 함께 한대오에 서 있는것이였다.

지금 김명석은 영웅이 남기고 간 손거울들을 마주하고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산뜻이 눌러 쓴 자기들의 모습을 비쳐 보는 병사들을 깊은 사색속에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전에는 둘째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가 한대오에서 총대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있다.

그래, 이제는 몇몇한 군인가정이 되였다.

김명석의 눈가에 행복의 빛이 얼른거린다.

(세대와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 멈출수 없는 줄긴 찬 세대가!…

우리 광철이녀석도 지금쯤 저렇게 손거울을 들여다 보며 아침검사준비를 하겠지,

하지만 병사들, 그 거울에 빨간 령장과 반짝이는 도표, 눈매 총총한 얼굴만을 비쳐 보지 말라. 마음을 비추어 보라. 장군님의 전사로 짧은 한생을 빛나게 바친 영웅의 넋을 자신의 심장속에서 찾아 보라. 한점의 티도 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비추어 보라.

그런 깨끗하고 뜨거운 심장을 안고 한생을 곧바로 걸어 가자.

저 제방길처럼 곧게, 억세게…)

김명석은 격동을 안고 구분대앞으로 길게 뻗어간 제방길에 들어 섰다.

제방에 올라 서자 사랑하는 땅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그것은 바다물속에 잠겨 있었으나 분명 아름답고 강대하고 풍요한 어머니조국의 대지였다.

《작가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인간학의 체모를 갖춘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김정일

편집부의 말

한해의 무대우에 서정시들을 세워 보며

세월은 흐르는 물결과 같아 엇그제 새 세기 첫해와 송년의 악수를 나눈것 같은데 어느새 새해와 또 다시 포옹할 시각이 왔습니다.

독자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의연 문학운동의 초점의 대상으로 일년 열두달 몹시도 불같이, 몹시도 바쁘게 산 우리의 《조선문학》!

참으로 한해는 갓 샘을 배우는 아이들이 훌쩍 훌쩍 뛰어 넘으며 세여 가는 수자처럼 빠르기도 합니다.

그럼 가슴 벅찬 년간무대우에서 서정의 한해를 들어 올린 우리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기로 합시다.

오늘날 우리의 땀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며 휘황찬 우리 조국의 래일이 어떻게 펼쳐 지고 있는가를 한쪽의 생동한 그림처럼 보여 준 《두 언제중에 어느것이 큼니까》(고남철)!

아이들의 아이세계가 너무나도 방불하고 독자들에게 던진 물음조차 매력 있어 첫호부터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협동농민의 자각과 본분을 땅처럼 구구하게 그리고 량만적인 생활정서로 감명 깊게 보여 준 《이 땅이 나를 안다》(채동규)와 시초 《나는 협동농사람이다》(리진협)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각이한 형상수법으로 땅도 인간들도 몰라보게 달라 진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얼마나 개성적으로 잘 보여 주었습니다.

빙글어 지는 웃음을 초원에 한벌 쪽- 깔아 놓은 것 같은 염소떼 흐르는 《꽃구름 피는 산천》(강옥녀)이 나서 자란 고향, 한생토록 가꾸고 지켜 갈 고향이어서 바다를 길들인 병사도 그만 고향의 개울가에선 애들처럼 개구리헤엄을 치게 되는 이것이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사랑의 《젓줄기》(리동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무대로는 선군시대의 사랑과 증오를 새로운 경지에서 보여 준 시초 《우리의 세월은 어떻게 흐르는가》(전승일)와 《레루뭇에 대한 시》(김명의)가 독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오르고 있습니다.

웃음망을 안고 흐를수 없는 우리 세월, 사랑이 무

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전승기념탑마당을 부디 거쳐서 흐르는 우리 세월에 대한 심오한 철학은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여 주었습니까. 레루뭇에조차 증오의 시가 있는 이 땅, 참으로 이 땅에는 증오가 묻어 나지 않는 흙이 없고 미제에 대한 증오가 깃들지 않은 곳이란 없음을 다시한번 새로운 목소리로 깨우쳐 준 《레루뭇에 대한 시》도 우리는 여운 있게 보았습니다.

다음은 선군시대 우리 녀인들, 우리 어머니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조국과 미래라는 지향점에 걸어놓고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뜨개수 놓듯 섬세하게 보여 준 《엄마의 속삭임》(리명옥)과 《아이를 키우며》(렴형미)를 만나보기로 합시다.

새근새근 잠이 든 아기를 바라보며 깊어 지는 어머니의 생각, 꿈속에서도 발쪽 웃는 저 아기를 위해 우리 장군님은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길에 계시었고 우리 조국은 얼마나 고난에 찬 시련을 이겨 내고 오늘에로 달려 온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곧 승리이기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비록 장난이 세차고 벌차다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넘어 쳐도 아프지 않는 이 땅, 실컷 보아도 눈시리지 않는 그 푸른 하늘이 아이들이 간직할 조국에 대한 사랑이기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소개돼야 할 작품들이 더 있으나 무대가 제한된것으로 하여 이만 그치려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무대밖에서는 《술한》 서정시들이 눈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이 무대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수 없는 《측은한》 서정시들입니다.

남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받을 때 그들만은 왜 머리를 수그리고 자책속에 서 있어야 하는가.

생각이 많은것은 쌀알속에 뉘가 섞여도 모르겠는데 북대기속에서 난알을 골라 내듯 좋은 서정시를 독자들앞에 선보이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편집부의 역할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심어린 탐구가 부족했고 시대앞에, 력사앞에 서정시 한편한편을 주옥으로 책임지려는 그 자각이 부족했음을 편집부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정시의 주인들인 매 시인들이 떳떳한

작품으로 편집부의 문턱을 넘어 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슴 아픈것은 한때 독자들과 그리도 친숙했던 작가들이 점점 그들과 거리가 멀어 지는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독자들과 친근한 벗이였던 그때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 와 주십시오.

한해의 서정시들을 눈여겨 보며 주목되는것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창작태도가 벗겨 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낡은것을 뜯어 고치는게 아니라 종식시키는 시대가 아닙니까.

창작에서도 새로운것을 들고 나와 독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 작품을 써내야 할 새 세기인것입니다.

좋은 시를 보시면 누구보다 기뻐 하시는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편집부는 우리 시인들이 조금만 더 분발하면 능히 이런 작품을 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과 공화국창건 55돐이 되는 뜻 깊은 해년에는 작가들이 《조선문학》의 질적양양을 위해 올해보다 더 원심을 써주고 보다 다양한 경지를 개척해달라는것입니다.

선군혁명문학의 나팔수로 온 한해 불덩이처럼 자신을 달구며 누구보다 수고가 많았던 우리 시인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리며 편집부는 이해의 마지막장을 덮습니다.

평론의 한해를 바라우며...

눈,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송이로 새해를 맞던 때가 어제런듯 한데 또 다른 눈송이로 한해를 바라우게 되는 이 시각.

《조선문학》잡지는 눈과 눈의 《상봉》과 《작별》이 안아 온 열두달의 흐름속에 찍힌 자기의 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그 눈속을 헤치여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삭들의 설레임, 구수한 향기가 실려 오는듯합니다.

눈여겨 보면 우리 《조선문학》에 보다 아름다운, 꿈을 엮고 참신한 문학발전을 위해 줄달음쳐 온 우리 평론문학의 높뛰는 숨결도 새차게 일렁입니다.

눈은 뜻 깊은 현대의 류다른 추억을 안고 소담히 내려 앉습니다. 이해를 장식하는 우리 편집부의 창가에...

파연 이해에 소설, 시의 급진적인 발전과 더불어 평론의 키는 얼마나 컸으며 형식과 문제에선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대강 《주체문학론》 발표 10돐을 맞으며 《우리 식 평론이여, 너는 척후병, 선도자, 전위투사로서 주체문학의 대오앞에 영원》한, 기발이 되자고 잡지 첫호의 문을 새차게 두드린 《장군님의 총대-우리 식 평론》.

그 힘찬 호소에 열렬한 호응이 뒤따랐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의 정서를 구현한 선군혁명시가문학에 대한 고찰을 웃음에 대한 철학적정서로 일관시켜 2호 특간호를 이채롭게 해준 평론 《선군혁명시가문학에 내려치는, 웃음의 정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

하시던 때때의 내면심리세계를 파고 들어 고전적명작의 의의를 밝혀 준 평론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정서세계와 불멸의 송가》.

평론의 본도를 지켜 쓴 평론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를 비롯하여 20세기 추억, 단평묵음, 회고평론, 연단, 독자편지들이 지난해보다 흥미 있고 단수 있게 씌여 졌습니다.

새 세기 선군혁명문학운동을 선도하려는 숭고한 문학정신과 열정, 자기 식의 독특한 발견, 개성적인 목소리로 하여 이해엔 향기롭고 달콤한 자기고유의 향취를 물씬 풍기는 열매들이 호합지게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잡지의 열매들이 다 향기를 풍긴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향기의 그늘밑에 아무런 맛과 빛갈도 없는 열매, 자기 고유의 본도를 잃은 근사안적 평론들이 더러 있는것입니다.

창가에 내리는 눈송이를 보면 《요즘 평론들이 왜 점점 읽을 맛이 없습니까?》라고 묻던 독자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저 눈송이에 매달려 실려 옵니다.

자기 글의 깊이를 보장 못하고서도 서둘러 《깊이속의 깊이를 찾자》고 호소한 평론, 자기의 확고한 주견과 발견적목이 없이 둥글둥글 작품해제에만 그친 독후감적인 평론, 공정성과 정확성, 친절성을 잃은 평론들, 형태와 문제에서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평론들...

한해의 추억을 불러 오는 12월의 눈송이앞에, 우리 문학앞에 허심하고 공정하고 예리한 평필을 들었던가를 비쳐 봅니다.

순수 론문식평론, 순수 작품평은 누구를 위해 무

엇에 필요했던가를...

사색과 탐구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평론, 넓은 의미에서 우리 문학의 참신한 발전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평론, 작가들의 창작적의도를 계발시키지 못하는 평론이 열, 백인들 무엇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문학평론이라 할수 있을가요.

신군혁명문학을 창조하는데서 선도자, 척후병이 되어 나가야 할 평론이 뒤에서 독후감이나 찬양일변식으로 작품을 어루만지는것이 평론의 본도일가요?

문학은 언제나 그 어떤 강요나 아침, 가식을 모릅니다. 그 문학앞에 자기의 량심과 진심을 송두리채 쏟을 때 그 미지의 넓은 세계를개척해 나갈수 있습니다.

작가들 못지 않게 작가와 작품을 뜨겁게 대하는 열렬한 심장, 형상세계를 정확히 꿰뚫으며 작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까지도 찾을줄 아는 철학적이면서도 감각적이고 립체적인 분석력 랭철하고 론리적인 분석력과 형상적환상력, 문체와 형식에 대한 새로운 탐구!

이런 평론가적자질과 열정이 문학적량심과 융합될 때 참다운 문학평론을 창작할수 있다고 봅니다.

새것을 창조하여 비약적으로 날으는 오늘의 시대는 창작을 본성으로 하는 문학평론을 기다립니다.

진정으로 평론가들이 시대의 요구, 새롭고 독창적인 문학평론의 참신한 발전을 생각한다면 새해에 명필을 무겁게 들어 주십시오.

자기들의 붓에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문제성, 시대가 창조한 인간성격, 형상수법과 문학형태발전에서의 새로운 미학적발견, 론리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문제에 대한 창조가 깃들었을 때 랭철하고 예리한 붓을 들어 주십시오. 꾸준한 사색과 탐구속에 더 이상 쓰지 않고서는 못 견딜 창작적열정으로 심장이 세차게 뛸 때 시대와 혁명이 안겨 준 평필을 달려 주십시오.

현 시대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침체와 답보가 더 이상 머무를 곳 없는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추어 언제나 새로운 창작으로 문학운동을 선도할 때만이 더 높은것을 지향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설수 있다고 당부하는듯 속삭이는듯 이해의 마지막 눈송이마저 깊은 생각을 불러 줍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과 공화국창건 55돐을 맞는 뜻 깊은 새해의 숫눈길에 우리 평론의 자욱도 뚜렷이 찍으며 달려 새로운 비약의 한해를 궁지높이 뒤돌아 볼 다음해 12월의 그날에 우리모두 내리는 눈송이를 축복의 꽃보라로 뿌리며 땃땃이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추억에 남을 소설을...

설을 앞두고 수도의 운치를 돈구어 주며 송이송이 내리는 함박눈은 우리에게 류다른 추억을 불러줍니다.

한돌기, 두돌기... 주마동처럼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속에 년륜이 두터워 질수록 기억은 삭막하게 흐려 저도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추억은 다감한 정서를 불러 두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니, 세월에도 흐려 지지 않는 추억은 아름다움만이 아닌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선문학》잡지 2002년 12호 편집을 끝내고 나니 새 세기에 들어 서서 벌써 두번째 년륜을 새기었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워 집니다.

이 두해사이 우리는 얼마나 더 높아 솟구치고 더 빨리, 더 멀리 달려 왔는지...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새로운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벽찬 행군길에 큰 자욱을 남기면서...

올해만도 세계자주화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으로

달아 오른 전 인민적인 충성의 열기로 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는 새로운 위훈이 나래 퍼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속에 자주의 향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새 시대의 지향을 반영한 유리의 소설문학은 올해 새 세기 문단우에 어떤 화원을 장식하게 되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파란 많은 인생길을 걸어 온 일본인 요시꼬를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우한 어제날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것보다 오늘과 희망찬 래일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으로, 정치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과정을 깊이 있게 형상한 단편소설 《나의 아리랑》, 장장 50여년 얼어 붙였던 분렬의 장벽을 넘어 온 남조선연론인들을 만나시여 비범한 예지와 천재적인 천리혜안으로 통일의 밝은 길을 펼쳐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감명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한 여름날의 대화》 등 실로 수령형상창조에서 새로운 폭과 심도를 가지고 참신하게 형상된 작품들이 독자들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 집

니다. 이밖에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동지애의 심원한 철리를 받아 안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곳곳이 살아 온 비전향장기수를 응심깊이 형상한 단편소설 《까뜰골사람》 그리고 단편소설 《방파제》, 《내 나라》, 또한 새로운 형식의 소설을 탐구하는 길에 이채를 띠는 운문소설과 우화소설도 우리 소설문단을 새롭게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담은 뜻 깊은 작품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생활의 교과서로, 길동무로, 투쟁의 무기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좋은 작품, 무게 있는 작품은 우리가 옛 사람으로 불리우게 될 후세에 가셔도 사람들의 추억속에 별처럼 빛나 아름다움만이 아닌 시대를 담은 무게로 하여 힘을 북돋아 주게 될 것입니다.

하기에 이 한해에도 추억에 남을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고자 진지한 사색과 탐구의 어려운 길을 걸어 온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벅찬 시대의 성격을 구현한 새로운 인간전형창조를 위해 삼태성이 기울 때까지도 우산장창작실에서 열기 띠는 논쟁을 벌리기를 그 몇번...

하지만 잡지의 갈피갈피를 새겨 보느라하면 아쉬운 작품들도 적지 않습니다.

소설이 출판된후에 문단에서 독자들속에서 의견이 야기될 때면 편집원도 남 모르는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작가의 잠재력을 좀 더 계발시켰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을 소급해 보면 그 회오가

더 깊어 집니다.

단편소설창작에서 명수라고 하던 한 로숙한 작가가 오랜간만에 편집부에 단편소설을 《조심스레》 가져 온 일이 있습니다. 비교적 원숙한 작품이었으나 작품의 품격을 더 올리고 싶은 욕망에서 편집부는 종합된 의견을 《조심스레》 주었습니다. 오래동안 수령형상총서작품창작에 진전하던 그 작가는 얼마후에 수정을 끝내었습니다. 읽어 보니 작가가 얼마나 정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사색의 흔적이 글줄마다에 력력히 비껴 있었습니다. 편집부에서는 자연히 심사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두차례, 세차례... 의견이 교환될 때마다 작가는 편집부에서 준 의견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작품을 수정하곤 하였습니다.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도 작가는 형상을 더 높일 여지는 없겠는가고 의견을 물으며 따져 보았습니다. 이처럼 작가의 잠재력이 무겁게 실린 그 작품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추억에 남을것이다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품에 대한 높은 요구성에 비쳐 진 사색과 탐구! 지칠줄 모르는 정열! 이것이 시대의 명작을 낳는 작가의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뜻 깊은 새해에 시대의 높이에 올라 선 추억에 남을 소설을 더 많이 창작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편집부에서도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 보람찬 나날에 적으나마 디딤돌이 되리라는 열의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고맙습니다.